



정답과 해설

고등국어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1) 삶의 길을 찾아가는 책 읽기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008~010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토의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③

01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대학의 학과나 직업을 선택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찾아보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직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적성을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를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③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일 수 있다.
⑤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다.

02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과정이다. 외부적 조건인 사회적 인정, 경제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적성과 관련 없는 진로를 선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⑤는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②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가치관에 맞는 분야에서도 진로 및 관심 분야를 찾아볼 수 있다.
③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기 전에 관심이 있는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03 <보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책을 읽는 목적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통해 해당 분야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한 책 읽기 활동에서의 읽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②, ⑤ 해당 분야에 관한 최신 정보나 청소년기에 준비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모둠에서 책 읽기를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화 독서를 할 때 적절한 읽기 목적이다.
③ 이미 광고 및 홍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광

고 및 홍보 분야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읽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도서 청구 기호를 활용하여 서가에서 책을 찾을 때에는 찾고자 하는 책 주변에 유사한 내용을 지닌 책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의 차례를 살펴보거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면 자신이 검색한 책이 아니더라도 읽을 만한 책을 발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컴퓨터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책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책 찾기 과정이 시작된다.
② 검색한 책의 도서 청구 기호를 정확히 적어야 서가에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④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인지 살펴보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⑤ 모둠 구성원들이 고른 책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하면 책 선정하기를 할 때 편리하다.

05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고를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를 안내한 책(ㄱ)을 읽으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개괄적인 정보를 소개한 책(ㄴ)을 읽으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고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세부 분야를 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고를 때는 책 내용이 자신의 지식수준에 맞는지 고려하여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 전공 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담고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책 읽기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ㄷ). 또한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읽을 책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ㄹ).

06 모둠이 선정한 책들 중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를 때, 모둠 구성원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였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골라야 한다.
② 내용이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③ 책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고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⑤ 모둠 구성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활동이므로, 정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07 독서 일지는 책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책 한 쪽을 읽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독서 일지를 기록할 때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적어 두면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독서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언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었는지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읽기 방법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③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를 적어 두면 책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④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두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08 모둠 구성원들과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 주고 서로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책 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토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책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을 준비하여 자신의 의견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책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할 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책을 더 읽고 싶는지 추가 독서 계획을 밝힐 수 있다.

② 자신이 읽은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

③ 자신이 읽은 책이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읽은 책이 자신과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책을 추천할 수 있다.

09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자신이 쓴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한 발표하기를 할 수 있다.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을 때에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며 듣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친구의 발표를 듣고 책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지 어느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책 내용을 왜곡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해야 발표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④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발표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다른 분야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비교하며 들으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0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책 내용과 관련하여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토의의 과정을 통해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사고의 깊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11 추가로 읽을 책에 대해 더 조사하는 활동은 독서 일지를 작성한 후 친구들과 독서 일지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책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이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는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친구들과 책 읽는 목적을 정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③ (나)에서는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활동이 필요하다.

⑤ (다)에서는 책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 등을 독서 일지에 기록해 두는 활동이 필요하다.

12 예지는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봐야 함을 깨달았

다고 말하고 있다. 정연은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겠지만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준은 사람보다 똑똑하고 강한 기계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토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예지는 “처음엔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중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진로가 있을까 해서 읽기 시작했어.”라고 하며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② 서준은 적정 기술의 개념과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토의 참여자들은 공동 관심 분야인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각자가 읽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정연은 “과학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한다면,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 같아.”라고 하며 과학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할 때 성찰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3 예지는 토의 주제를 알리면서 서준이부터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며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밝히는 것을 통해 예지가 로봇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예지는 “읽다 보니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라고 하며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밝히고 있다.

③ ‘로봇에 대한 책도 찾아 읽고’라는 예지의 말을 통해 예지가 새로운 독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예지는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중 관심을 가질 만한 진로가 있을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였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로봇에 대한 책을 찾아 읽고 싶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말을 통해 예지가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책을 읽고 토의 활동을 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다(ㄱ). 또한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ㄴ). 그리고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친구들에게 진로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ㄹ).

오답 풀이 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진로를 정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진로를 비교하여 더 좋은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진로 탐색에 있어 독서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15 예지는 토의가 끝나면 로봇에 관한 책을 읽어 보고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그려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친구들은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진로 및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큼 도움이 되는 책은 진로를 탐색하는 데 보탬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책이 예지의 진로를 확정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심화하기 위해 책을 더 찾아 읽어 보는 것이므로 로봇에 관한 책을 읽겠다는 예지에 게 로봇 공학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권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다.

④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책을 골라야 한다.

⑤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을 선정할 때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글로 쓰는 나의 꿈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012~014쪽

01 ⑤ 02 ② 03 ㉠: 정서 표현 ㉡: 예상 독자 ㉢: 인쇄 04 ⑤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 상
호 작용 ㉡: 대화 ㉢: 사회적 행위 12 ③ 13 ② 14 ⑤

01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이 지닌 배경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며 다양하게 글을 해석한다. 따라서 글쓰이는 예상 독자가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을지 예상해 보고 그것을 헤아리며 글을 써야 한다. ⑤는 글을 읽을 때 독자가 고려할 점이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주제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글의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② 자신이 쓴 글을 읽을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글의 내용과 표현이 달라지므로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③ 왜 이 글을 쓰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글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④ 글을 발표할 매체를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02 글쓰기를 계획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글의 주제가 광고인의 다양한 업무 분야와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일이므로 광고 원리에 대한 설명은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교지는 학교 학생들이 보는 매체이므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갖추어 써야 한다.

③ 학교 학생들이라는 예상 독자의 지식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④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처음-가운데-끝'으로 글을 구성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글의 주제에 따라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일을 제시하도록 한다.

03 쓰기 맥락을 분석할 때는 먼저 글의 목적이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정서 표현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 독자에 대해서는 나이, 성별, 대상을 고려하여 흥미나 배경지식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또 글을 발표하려는 매체가 인쇄 매체인지, 영상 매체인지, 인터넷 매체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한 쓰기 맥락을 글에 반영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

04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집약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의 최근 시사 자료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 기관에는 그 분야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과거의 자료도 보존되어 있고, 관련 서적이거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 서적과 같은 인쇄 매체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도 높다.

② 인쇄 매체는 책에서 해당 부분을 찾으려 읽어 봐야 하기 때문에 정보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③ 인터넷 매체는 정보 검색이 수월하고 짧은 검색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④ 인터넷 매체에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해야 한다.

05 자신의 배경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글을 쓸 때 아무런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독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글의 주제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되,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③ 글로 쓸 내용과 관련된 인물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도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④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배경지식)과 알고 싶은 내용(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도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06 수집한 자료에서 글에 활용할 내용을 선정할 때 반드시 예상 독자의 취향에 맞는 내용의 자료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자료뿐만 아니라 새롭게 알 필요가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골라야 한다.

② 자료의 내용은 공정해야 한다.

③ 자료는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활용해야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07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쓰면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더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설명문, 논설문, 정서를 표현하는 글 등 글의 종류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②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보통 글의 끝부분에 제시한다.

③ 글의 구성 단계에 맞게 조직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연결해야 한다.

④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8 가운데 부분에서 광고인이 되기 위해 청소년기에 준비할 일을 제시할 때는 광고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전문 서적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비전문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처음 부분에서 사례를 제시하면 글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② 광고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가운데 부분에서 광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광고인의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

④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글쓴이의 포부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⑤ 예비 광고인으로서의 다짐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속담 등의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09 고쳐쓰기를 할 때는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 자료에서 얻은 내용이 잘 종합되었는지, 매체의 특성이나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에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해야 한다. 글 제목은 중심 내용이나 주제가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목에서 글을 쓴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

10 글을 고쳐 쓰고 친구들과 돌려 읽으며 공유하는 과정에서 글쓴이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글쓴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언어 예절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매체에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고쳐 쓸 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② 자신이 쓴 글을 짚고 바꾸어 읽어 보고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

③ 친구의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을 때에는 언어 예절을 지켜 바람직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④ 친구들이 자신의 글에 남긴 의견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누고 그러한 반응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글의 잘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파악하기 쉽다.

11 글쓴이는 그 글을 읽을 독자를 예상하며 글을 쓰고, 독자는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글을 수용하는데, 이는 글쓴이와 독자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을 쓰는 것은 글쓴이가 독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2 로봇 공학 분야와 다른 공학 분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공학 분야가 다른 공학 분야보다 어렵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중심 내용에 맞게 제목에서 자신의 꿈이 로봇 공학자임을 밝히고 있다.

②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소개할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가운데 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끝부분에서는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 당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로봇 공학자로 성장해 나갈 자신의 미래를 응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자신과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3 이 글은 로봇의 구성 요소,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글에 쓸 자료를 선정할 때는 글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ㄱ은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고 관련 지식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다. ㄴ은 이 글에서 로봇 공학 전문가인 홍○○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ㄴ. 이 글에 로봇 공학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ㄷ.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로봇 공학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로봇 공학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잡지 기사는 이 글을 쓸 때 활용했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14 예상 독자가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면 전문적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로봇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글 시작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이 글은 2, 3, 4문단에서 지나치게 긴 문장이 사용되었다.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면 글의 흐름이 명확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③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잘 종합하여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때에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 시각상과 촉각상

본문 확인문제

본문 016~022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②	06 문답법
07 ⑤	08 ①	09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짐.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배경지식	15 ⑤	16 ③
17 ㉔: 일반적	18 ③	19 ②	20 (1) 시각상 (2) 촉각상	21 ③	22 촉각상
				23 ②	24 ③

01 이 글은 글쓴이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쓴 설명문이다. 이 글에는 초상 갈래에 관한 사실 정보만 제시되어 있을 뿐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서술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프로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우르비노 대공 부부」 그림을 제시하여 프로필 초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나)에서 서양과 동양의 초상화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글의 처음 부분에서 파리의 테르트르 광장 이야기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2 글을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떠올려 보거나(ㄱ), 제목 등을 통해 전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ㄷ)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ㄴ. 책을 읽기 전에 책 내용을 미리 다 듣는 것은 올바른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ㄷ. 어려운 내용이라면 보다 집중하여 세밀하게 읽는 것이 좋다. 한번 훑어보는 것은 매우 가볍고 쉬운 내용을 읽을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03 프로필은 서양에서 많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서양의 유일한 초상화 제작 기법은 아니다. (나)의 ‘서양에서도 정면 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을 통해 서양에서 정면 상이 그려진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한다.
 ② 프로필은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것이다.
 ③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정면 상 초상화가 발달했고 프로필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⑤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에 서양에서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04 이 글의 독자는 글을 읽으며 “서양에서는 측면 상을, 동양에서는 정면 상을 주로 그렸구나.”라고 하며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의 질문처럼 정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질문을 만들며 읽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궁금한 점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 읽고 있지 않다.
 ③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④ 글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질문을 만들고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는 않다.

05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 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 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동양에서는 주로 정면 상으로 초상화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 초상화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③ 동양에서는 정면 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 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다는 점으로 보아, 측면 상이 아닌 정면 상이 동양인의 특징을 잘 포착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얼굴의 특징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 측면 상이 발달한 것이며, 동양에서 인물의 앞 얼굴을 실루엣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정면 상이 발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동양권에서도 정면 상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06 (다)의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 뒷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예시를 들어 동물이 하나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을 지님을 강조하고 있다.

07 ‘전형으로서의 면’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대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이다. 말과 물고기의 경우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며, 도마뱀은 위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물은 하나의 이미지 면, 즉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이 전형으로서의 면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읽는 중 활동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거나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읽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책을 더 찾아 읽을지 계획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그림 자료와 글을 연관 지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 ③ 글을 읽는 중에 만난 어려운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가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④ 글에서 비교하고 있는 두 대상의 차이를 메모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⑤ 글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보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으로 적절하다.

09 백인과 흑인의 경우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더 잘 드러나고, 측면 상이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쉬우며, 고대 로마에서 황제의 측면 상을 주화에 새긴 전통이 있었다는 점은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에 해당한다.

10 고대 이집트 벽화가 정면 상과 측면 상을 함께 그리는 혼합 형식으로 그려진 것은 인체의 각 부위를 떠올렸을 때 대표적 이미지인 측면인 부분과 정면인 부분으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인체의 특정 부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인체의 각 부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을 그린 것이지, 그리기 쉬운 방법에 따라 인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④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로 그리는 것이 당시 미술의 새로운 풍조였는지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모습이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은 아니다.

11 ㉠은 인간이 네 발로 보행할 때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옆면을 의미한다. 나머지 ㉡은 모두 정면 상과 측면 상의 두 가지 이미지 면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은 측면과 정면이다.
 ② ‘혼합 형식’은 측면 상과 정면 상이 섞인 형식을 의미한다.
 ④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⑤ 전형의 면이 두 개라는 것은 곧 인간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측면과 정면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12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 즉 부분 측면 상으로 그리는 것은 원근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인체의 실제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느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부분 측면 상은 인간의 두 개의 이미지 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하였다.
 ②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 상이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④ 원근 표현에 따라 그리면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원근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의 형태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측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처럼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쉽다.

13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 상을 발달시켰는데, 흥미로운 것은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렸다는 사실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주인공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지면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촉각 상에 토대를 두고 그림을 그렸다. 즉 고대 이집트 벽화는 부분 측면 상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렸다.

오답 풀이 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을 원근에 의한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사물의 객관적 형태와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촉각 상에 토대로 둔 그림을 그렸다.

②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을 원근에 의한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근법적 표현으로 인체를 그리는 것을 꺼렸다.

③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 속의 주인공이 내세에서도 이승과 같이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④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일지라도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이게 그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촉각 상을 토대로 사지의 객관적 형태가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그렸다.

14 (사)의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이승과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독자는 (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였을 것이다.

15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은 시각 상이다. ⑤는 시각 상의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촉각 상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 보면 같듯, 보이는 것과 관련 없이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③, ④ 시각 상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로, 보는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일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다.

16 <보기>는 글을 읽는 중에 한 활동으로 글에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찾으며 읽으면 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읽기 전 활동으로 적절하다.

④ 읽은 후 활동으로 적절하다.

⑤ 읽는 중 활동으로는 적절하나, <보기>에서 활용한 읽기 활동은 아니다.

17 (차)에 따르면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이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즉 촉각 상에 기초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는데, 이렇게 시각 상에 기초한 그림은 특수한 표현이라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고 하였다.

18 ㉠은 촉각 상에 기초한 그림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은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시각 상에 근거한 표현이다. 따라서 ㉠에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뒤에 있는 사물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없다. 이를 통해 공간 표현을 할 때 시각적 사실성을 무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책거리 그림은 서가의 책, 벼루 상자 등을 그린 우리나라 민화이다.

⑤ 사물 하나하나를 촉각적 진실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촉각 상에 토대를 둔 그림이다.

19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에서는 시각 상을 중시하여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였다. 고대 이집트 벽화는 대상에 따라 시각 상 또는 촉각 상으로 다르게 표현하였고, 이집트 벽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대상의 신분에 따라 그림 그리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을 그림에 담았다.

③ 농부나 무희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는 시각 상에 가깝게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

⑤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는 정면과 측면을 통합하여 촉각 상에 가깝게 그렸다. 현대의 추상화 역시 사물의 사실적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점·선·면·색체에 의해 표현한 그림이므로 촉각 상을 중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 (1) 이집트 벽화 중 「악사와 무희」에서 악사는 순수한 정면을, 무희는 순수한 측면을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시각 상에 토대를 두고 그린 것이다. (2) 촉각 상은 시각 상에 비해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라고 하였다.

21 (파)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는 대로 그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집트인들은 세계의 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고유 인식을 반영하여 그림 그리는 방식을 달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과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은 인간이 지닌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미술의 보편적 기능에 대한 화가들의 생각이 각자 다를 것이라는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농부나 무희 등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시각 상으로 그려졌는데,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철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는 시각 상 역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고대 이집트 벽화가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보다 더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근거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며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즉 시각 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2 이 글의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 상보다는 촉각 상에 바탕을 두고 미술의 의의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이와 같은 미술 관련 글을 읽으면 미술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술 이론 글만 읽고 미술 실기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읽고 나면 시각 상과 촉각 상을 고려하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③ 이 글의 내용을 읽고 추가 독서를 계획할 수 있다.

④, ⑤ 미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수용하여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4 친구들에게 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글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여러 번 세밀하게 읽는 방법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글 전체를 빠르게 읽는 것보다 세밀하게 꼼꼼히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② 글 전체의 내용을 대강 살피며 빠르게 읽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글을 읽을 때의 방법으로 적절하다.

④ 자신이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추려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므로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만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⑤ 흥미가 가는 부분만 읽으면 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만큼 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23~024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㉞: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
06: 생각의 여로 06 ④ 07 ② 08 ①

01 (가)는 논설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고, (나)는 수필로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오답 풀이 ㄱ.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일을 고백하는 글은 수필이다.

ㄷ. 글쓴이가 알게 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a. 수필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다루는 글이다.

c. 허구의 인물이 벌이는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소설이다.

02 (가)에는 자동차 위주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나타나 있지만, 이를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나)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니 오죽했겠는가.'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이 의미가 큼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만났다는 것을 밝히며 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인간이 신중단처럼 모시고 사는 자동차'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불평등한 자동차 문화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나)는 '책 속의 언어는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로' 같은 것이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도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 다닐 권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등'에서 열거를 통해 도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나는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게 되고, 중세 궁정의 풍속도 알게 되고,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에서 열거를 통해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03 (가)는 논설문으로, 독자들은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타인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읽는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논설문에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도가 나타난다.

② 글쓴이의 입장이나 관점이 드러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과 글쓴이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는다.

④ 수필은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이다.

⑤ 독자는 수필을 읽으며 자신을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04 (가)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글이므로, 이를 읽는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 삶의 이치나 교훈을 전해 주는 글이므로, 이를 읽는 독자는 글 내용에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참고로, (가)와 같은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 비판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것으로, 독자는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세워 논리적인 판단력으로 글을 평가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나)와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감상적 읽기를 해야 한다. 감상적 읽기란 글에 나온 여러 인물이나 사건에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읽는 것으로, 독자는 재미와 감동, 슬픔과 연민 등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을 읽기 전에는 항상 자신의 읽기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② 논설문을 읽는 중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수필에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깨달음이 드러나므로 이를 읽을 때에는 글쓴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④ 논설문을 읽을 때에는 글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글쓴이가 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고, 수필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05 (나)의 글쓴이는 책 속의 언어가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㉞)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를 '생각의 여로'(㉟)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곧,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나 구절의 뜻만 아는 것이 독서가 아니라 그 단어나 구절, 결국 그 글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독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06 ㉞은 책을 읽기 전에 지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글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동차에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다고 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평등을 이야기한 후,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권리, 즉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 다닐 권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등 구체적인 권리의 예들을 열거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으면서 영국의 헨리 8세, 중세 궁정의 풍속,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자신이 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독서가 유익한 활동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7 '기본에 충실한 세상'은 글쓴이가 바라는 세상으로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공공의 공간에서는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보행자인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공간에서 소수의 권리도 보장받는 세상은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은 자동차로부터 노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의미한다.

③ ㉠은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이다.

④ 공공의 공간에서는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은 보행자의 권리가 운전자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을 의미한다.

⑤ 보행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운전자보다 고농도의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고 하며 보행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8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기쁨을 드러내고 있으며(ㄷ), '책을 읽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앎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독서의 힘에 대해 새롭게 얻은 인식과 깨달음을 밝히고 있다(ㄱ).

오답 풀이 ㄴ,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이지,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ㄷ,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ㄹ,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일 뿐 글쓴이가 『왕자와 거지』를 읽기 전, 세계에 대한 근시안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나)에 나타나 있지 않다.

소단원 평가

본문 025~027쪽

01 ③ **02** ④ **03** ③ **04** 사자가 인체를 완벽하게 갖추고 내세를 살게 하려고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 ⑤ **12** 미술의 정의(의의) **13** ④ **14** ③

01 (다)는 동서양 초상화와 차별화되는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벽화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측면 상을 따르지 않고,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미지 면을 나타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동서양의 초상 갈래를 비교하며 서양에서는 측면 상이 많이 그려진 반면, 동양에서는 정면 상이 발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② (나)는 인간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으로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④ (라)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내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물을 부분 측면 상으로 나타내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⑤ (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림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그림이 축각 상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02 이 글에서 이집트인들이 건강하고 우람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소망을 지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라)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 속의 주인공이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내세가 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리)의 무덤 속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지면 그 원근 표현에 따라 사지의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부분 측면 상은 원근 표현이 적용된 화법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대영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에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과 같이 무덤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었겠지만, 진화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 면이 된 것이다.'를 통해 인간이 네 발로 돌아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서 옆면과 앞면, 두 개의 전형의 면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영혼 불멸 사상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반드시 다른 책을 읽을 때 활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③은 이 글을 모두 읽고 난 후 추가 독서 계획을 세우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책을 읽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이므로 읽는 중 과정에서의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읽는 중에는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 이해해 가면서 글을 읽도록 한다.

② 읽는 중에는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서 글을 읽도록 한다.

④ 읽는 중에는 글과 함께 제시된 그림을 글 내용과 연관 지어 이해하며 글을 읽도록 한다.

⑤ 읽는 중에는 미리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글을 읽도록 한다.

04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인물의 모습을 정면 상과 측면 상을 부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방식으로 그린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죽으면 내세를 산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무덤 속 주인공이 내세에서도 이승과 같이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자가 인체를 완벽하게 갖춘 채 내세에서 불편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면 상과 측면 상을 편의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그린 것이다.

05 ㉔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나타난,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이고 ㉕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면과 측면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식이다. ㉖가 ㉔보다 인간의 신체 부위를 더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방식이므로 ㉕보다는 ㉔가 정면 상과 측면 상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 '혼합 형식'은 측면과 정면의 모습을 함께 그리는 형태를 말한다. 「늑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에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 상을, 가슴과 눈은 정면 상으로 그린 혼합 형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를 보여 준다.

② ㉔ '혼합 형식'은 측면과 정면의 모습을 함께 그리는 형태로,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④ ㉖ '부분 측면 상'은 측면과 정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원근법적 표현을 따른 것이다.

06 글을 읽기 전 과정에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는 등의 읽기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읽은 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②, ④ 읽는 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07 이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므로,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 글쓴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 및 수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참고로, 이 글과 같은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사실적 읽기를 해야 한다. 사실적 읽기란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으로, 독자는 단어, 문장, 문단의 정보를 통해 그들의 의미 관계와 글의 핵심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한다.

② 설명문을 훑어보기로 읽으면 중요 내용을 놓칠 수 있으므로 집중하면서 꼼꼼히 읽어야 한다.

③, ⑤ 내용이나 주제를 음미하며 천천히 읽거나 글에 쓰인 표현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주로 문학 작품을 읽을 때의 방법이다.

08 (다)에서 '~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하였지만 스스로 질문을 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가)에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 보면 같듯',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고, (다)에서는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을 설명하면서 '말이나 글처럼'이라고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촉각 상과 시각 상을 비교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면서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09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시각 상 또는 촉각 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중시하면 시각 상으로, 실제 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면 촉각 상으로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 반드시 주체가 보는 대로 사물을 크거나 작게 그릴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시각적 사실성 표현을 중시한 것은 유럽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촉각 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고, (다)에서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촉각 상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 상에 가깝게 그리고,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촉각 상에 가깝게 그리는 등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와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 그림 그리는 형식을 달리했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를 쉽게 이해하지만 원근법적 표현이 익숙하다면 그것을 어색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10 제시된 글은 실제의 형태나 모양에 초점을 맞추어 그린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와 (다)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촉각 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내며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1 ㉔와 ㉕는 모두 고대 이집트 벽화이나 이미지의 표현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㉔의 주인공은 신분이 높은 존재로, 촉각 상에 가깝게 그려졌고 ㉕의 인물들은 신분의 낮은 존재로, 시각 상에 가깝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사물의 객관적 형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리는 것은 촉각 상에 대한 설명이므로 ㉕는 ㉖가 아닌 ㉔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② ㉔는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는 촉각 상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이다. 따라서 화가가 알고 있는 실제의 모양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③ ㉔의 주인공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으로,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인체의 정면과 측면을 편의상 봉합하여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㉕의 '무희'는 순수한 측면에서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따라서 주체가 본 그대로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12 (마)에서 글쓴이는 고대 이집트 벽화를 통해 미술의 정의(의의)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13 촉각 상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의도가 잘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촉각 상이 그림의 가치와 위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지닌 것은 아니다.

② 촉각 상은 그림의 표면적 의미 외에 이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③ 그림에 담겨 있는 초월적인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인물이 지닌 권력이나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그림에 반드시 삶의 보편적인 진리가 담기는 것은 아니다.

14 ‘대변(代辯)’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함. 또는 그런 일’,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대표적으로 나타냄.’을 의미하며 ‘대변자(代辯者)’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의 ‘대변자’는 문맥상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뜻한다.

대단원 평가

본문 028~031쪽

01 ③ **02**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맞는가?,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은가? **03** ② **04** ⑥: 저자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② **10** ⑤ **11** 조직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함. **12** ③ **13** ⑤ **14** ④ **15**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01 자신의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의 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에 종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② 진로 및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독서 목적을 정해서 독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④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은 자신의 적성을 드러내어 준다.

⑤ 자신의 적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진로 및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

02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 수준, 책에 대한 평가, 분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03 도서관 열람대에 비치된 컴퓨터 검색대에서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잡지, 논문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광고로 유명해진 상품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에 관한 정보나 그에 관한 내용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책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검색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경이는 광고 및 홍보 분야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하므로 ‘광고’, ‘홍보’ 등은 적절한 주제어이며, 이를 입력하여 책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③ 유명한 광고인들 중 그들이 쓴 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다.

④ 광고 관련 책을 많이 펴내는 출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출판사에서 발행한 광고 관련 책들을 살펴볼 수 있다.

⑤ 선생님이 권해 주신 책 제목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04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 청구 기호는 ‘분류 기호-저자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저자 기호는 저자명을 문자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05 서준은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준의 말에서 친구가 선택한 책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예지는 책을 읽고 과학 기술의 산물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② 예지는 로봇에 대한 책을 더 찾아 읽고,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 봐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③ 서준은 책을 읽고 적정 기술이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쉽게 기술을 배워 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⑤ 정연은 책을 읽고 뇌 과학자인 저자는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주겠지만, 그 결과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고 말하며, 과학 기술이 빛을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 과학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한다면, 과학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 같다고 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06 또래인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쓰는 글이므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친구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을 쓰므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내용을 구성한다.

② 완성한 글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글쓴이와 독자가 상호 작용을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③ 로봇 공학자의 강연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말을 인용하면 예상 독자인 친구들이 관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④ 교지는 인쇄 매체이므로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를 글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07 독서를 끝내고 독서 일지를 쓴 후에는 추가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기는 독서 일지를 작성할 때의 활동이다.

② 어려운 단어의 뜻 찾기는 글을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다.

③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은 글을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다.

⑤ 친구들의 발언을 들으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제시된 대화 과정에서 하는 활동이다.

08 이 글에서 로봇 공학과 경쟁 중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로봇 공학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소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로봇 공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로봇 공학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장치, 생각하는 장치, 움직이는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로봇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③ 로봇 공학자는 산업, 군사, 의료,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 밝히고 있다.

⑤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 열정, 따뜻한 진심을 갖춰야 한다고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밝히고 있다.

09 제시된 댓글 내용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에 대해 독자가 의견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 글쓴이가 다시 댓글을 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쓰기가 글쓴이와 독자가 상호 작용을 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요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쓰기 자체가 부정적인 글쓰기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독자의 좋은 평가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없다.
 ④ 읽기와 비교하여 쓰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계획하기, 자료 수집과 선정하기, 내용 생성과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의 글쓰기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사고하는 것은 쓰기가 사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

10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되,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든 현대든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한 설희의 태도는 옳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얻은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하므로 출처가 확실한 자료를 활용한 주만은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수집한 자료에서 글에 인용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므로 애라는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하므로 동만은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글을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해야 하므로 예진은 옳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글쓴이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과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종합·조직하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내용과 형식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의미 구성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상
내용을 다룬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형식을 다룬 〈조건〉을 충족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형식을 다룬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서술한 내용에서 의미 구성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2 ㉞은 글쓴이가 독자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와 같이 의문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 상을 발달시켰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드러난 인과 관계를 이해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②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④ 촉각 상, 시각 상 등 글의 중요한 개념은 기록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록하며 읽는 것이 적절하다.

13 ㉞의 앞뒤 문맥을 보면 촉각 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설명한 뒤 시각 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특수한 현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㉞에는 앞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어질 때 쓰는 접속어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동서양에서 부분 측면 상이 발달했다는 내용 뒤에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㉞에는 앞의 내용을 전환할 때 쓰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사자가 이승과 같이 살아갈 것이라는 내용 뒤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부분 측면 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㉞에는 내용을 전환하여 앞 내용과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사람들은 촉각 상으로 그림을 그린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내용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촉각 상에 기초한 표현을 더 강하게 이해한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㉞에는 앞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④ 보이는 대로 그린 경우에 이어서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㉞에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대상을 원근에 따라 보이는 대로 그린 것, 즉 시각 상에 토대를 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인체 일부가 작게 그려지는 것은 시각 상에 기초한 표현이다.
 ② 벽화에 드러난 고대 이집트인들의 표현 방법은 촉각 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추상화를 통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방법이다.
 ⑤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표현 방식이다.

15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의 특정 시기에만 발달했고, 현대에서는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을 충족하여 서술하였다.	상
(마)의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였지만 〈조건〉의 문장 형식을 충족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조건〉의 문장 형식은 충족하였으나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1) 향수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36쪽

- 01 ① 02 ② 03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04 ④
05 ③ 06 ① 07 ④

01 1연은 화자가 고향 마을의 정경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그리운 고향 마을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 화자가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2연에는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③ 3연에는 꿈 많던 화자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타난다.

④ 4연에는 어린 누이와 아내가 햇살 아래 이삭을 줍던 모습이 나타난다.

⑤ 5연에는 흐릿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하고 단란한 고향 집의 모습이 나타난다.

02 이 시에서 화자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과 아버지, 누이, 아내와 같은 가족들, 그리고 단란했던 고향 집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 묘사된 자연 풍경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 마을의 배경으로 나타날 뿐,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에서 고단한 삶의 모습이 보이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도 그리움의 대상일 뿐, 그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시에 그려진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화자가 동경하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는 아니다.

⑤ 이 시에서 화자가 좌절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이 시의 후렴구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는 형식적으로 연과 연 사이의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어 연을 구분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또한 내용적으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절대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04 ‘밤물결’은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비유적 표현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들은 향토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실개천, 질화로, 짚베개, 얼룩빼기 황소’는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향토적 소재로,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05 이 시는 각 연마다 ‘~는/~던 곳’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한다. 이는 문장 구조의 반복에 해당한다. 또한 이와 같은 ‘~는/~던 곳’과 후렴구(시행)가 각 연마다 같은 위치에서 일정하게 배열되고 있는데, 이는 행과 연의 규칙적인 배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ㄱ. 3음보나 4음보와 같은 규칙적인 율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ㄴ. 유사한 음운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없다.

ㄷ. 행과 연에서 일정하게 글자 수를 맞추거나 반복하지 않는다.

06 ‘수구초심’은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따라서 꿈에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화자와 관련지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만시지탄(晩時之歎/晩時之嘆)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망양지탄(望洋之歎/望洋之嘆)은 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한탄이란 뜻으로,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하는 탄식을 이르는 말이다.

④ 풍수지탄(風樹之歎/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고립무원(孤立無援)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07 ㉠은 ‘울음(청각)’을 ‘금빛(시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다. ④의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또한 ‘종소리(청각)’를 ‘동그라미(시각)’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다.

오답 풀이 ① ‘어둠(시각)’이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촉각)’라고 표현한 시각의 촉각화이다.

② ‘금으로 타는 태양(시각)’을 ‘울림(청각)’이라고 표현한 시각의 청각화이다.

③ ‘울음소리(청각)’를 ‘시리다(촉각)’라고 표현한 청각의 촉각화이다.

⑤ ‘바람이 부는 것(촉각)’을 ‘파랑다(시각)’고 표현한 촉각의 시각화이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김광균, 「와사동」

주제: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감상: 현대 물질문명의 무질서에 대한 고민을 그린 것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드러낸 작품이다.

② 박남수, 「아침 이미지」

주제: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감상: 아침이면 모든 물상들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③ 고은, 「열매 몇 개」

주제: 생명 탄생의 인고와 성숙의 기다림

감상: 생명의 성숙과 완성의 과정을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작품이다.

④ 정한모, 「가을에」

주제: 영원하고 순수한 인간애의 기원

감상: 공포와 불의가 난무하는 폭력적인 세계를 인간의 순수한 휴머니즘 정신을 바탕으로 극복하려는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⑤ 윤동주, 「자화상」

주제: 역사 속에서의 자아 성찰과 고난 극복 의지

감상: 외딴 우물을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암울한 시대를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작품이다. 자문의 형식 속에 지식인의 양심적 자제가 담겨 있다.

01 ③ 02 오디 열매 03 ④ 04 ③ 05 ③

01 이 시는 산문시로서, 화자의 유년 시절을 고백적 어조의 줄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나 반복을 통한 운율이 드러나 있지는 않는다. 반면 「향수는 유사한 문장 구조나 후렴구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즉, 운율 형성에 있어서 외적 규칙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뒷마루'를 '거울'에 비유하였고, 「향수는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밤물결'에 비유하였다.

② 이 시는 유년 시절 외할머니의 사랑을 회상하며 그 그리움을 노래하였고, 「향수」는 고향에서의 풍경과 가족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④ 이 시는 '뒷마루, 장독대, 오디 열매' 등의 향토적 소재가 쓰였고, 「향수」는 '실개천, 황소, 질화로, 잠베개' 등의 향토적 소재가 쓰였다.

⑤ 이 시는 '먹오빛 뒷마루, 손때' 등에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 「향수」는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석근 별' 등에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02 이 시에서 '뒷마루, 장독대, 오디 열매'와 같은 시어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이와 같은 향토적 시어 중에서도 '오디 열매'는 화자가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고 난 뒤 찾아갔을 때 외할머니가 따 준 것으로, 화자가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위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03 화자는 과거의 외할머니네 집 뒷마루에 얹힌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을 감싸 주었던 외할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04 이 시에서 '뒷마루'는 화자가 외할머니를 떠올리는 추억의 공간이자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며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① 뒷마루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시대 배경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② 뒷마루는 한국적인 인정과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지만, 시의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는 아니다.

④ 뒷마루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지만, 외할머니 자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⑤ 뒷마루를 매개체로 하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만,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05 이 시에서 '거울'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뒷마루를 비유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거울이 손때를 벗겨주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외할머니네 집 뒤안'은 이 시의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다.

② '손때'는 외할머니의 집안의 내력과 전통, 역사와 내력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④ 이 시는 외할머니네 집 뒤에 있는 뒷마루에 얹힌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장독대'와 같은 구체적인 향토적 소재는 이런 시적 상황과 내용에 생생함을 더해 준다.

⑤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화자의 얼굴이 나란히 비친다는 것은 뒷마루가 세대 간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존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향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08 ⑤

01 이 시는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1연) →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2연) → 꿈 많던 어린 시절의 모습(3연) →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4연) →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정경(5연)'이라는 독립된 장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회상하는 시적 상황에 따라 장면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1연과 마지막 5연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미 상관의 구조가 아니다.

③ 3연에서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의 내면 묘사가 각 연마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1연과 4연이 고향의 외부 풍경을 회상하는 부분이고, 2연과 5연은 고향 집의 풍경을 회상하는 부분이며, 3연은 화자의 내면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이다.

02 이 시의 5연에는 가족들이 흐릿한 불빛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단란하고 행복한 고향 집의 모습이 담겨 있다. 따라서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는 모습은 영상물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얼룩빼기 황소가 우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이 나타나 있다.

② 2연에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겨울밤에 얽은 줄음에 베개를 고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 있다.

③ 3연에는 꿈 많던 어린 시절의 화자가 산과 들에서 뛰놀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4연에는 밤물결 같은 검은 머리의 누이와 평범한 모습의 아내가 따가운 햇살 아래 이삭 줍던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03 이 시는 각 연마다 '~는/~던 곳'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보기>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행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모두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만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② 이 시와 <보기> 모두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는 쓰이지 않았다.

④ 이 시와 <보기> 모두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특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의 경우 민요적 율격인 7·5조를 따르고 있으나, 규칙적이지는 않다.

⑤ 이 시와 <보기> 모두 특정한 위치에서 유사한 음운이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주제: 자연에서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

감상: 이 시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하여, 시인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동심에 기대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04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자연의 모습일 뿐,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의 모습은 변해 버려서 오히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화자가 고향의 자연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온 상태이다.

②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변한 고향의 모습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쁨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③, ⑤ 고단한 삶을 사는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과 초라한 지붕의 고향 집의 모습을 통해 이 시의 화자가 고향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화자는 그런 가족들과 단란하고 행복했던 모습과 평화로운 고향 마을의 정경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정지용, 「고향」

주제: 고향 상실의 비애

감상: 이 시는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변해 버린 고향의 모습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변함없는 자연사와 변해 버린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고향 상실의 아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05 ㉡에는 고단함에 잠이 드신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에는 사철 밭 벗고 일하는 농촌에서의 고단한 삶을 사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런 모습들은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가족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아버지와 아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늙은 아버지의 모습과 밭 벗은 아내의 모습에서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지만, 이는 화자가 추억하는 그대로의 그리운 고향 집의 가족들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화자가 회상하는 가족이 그 원인이 된다는 근거 또한 없다.

④ 아내는 화자와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대상이지만, 아버지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인지는 알 수 없다. 화자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거나 아버지의 삶을 좇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아버지와 아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추억 속의 인물로, 아내가 현재 화자를 힘들게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인 실개천이 마을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역시 ‘하늘’과 ‘들’을 ‘입술을 다문’, ‘너’라고 호칭하고 있고, ‘말을 해 다오.’라고 하며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 같은 의인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면적으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임이 떠날 때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옛 맹서(맹세)를 ‘황금의 꽃같이’라고 비유하고 있으므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④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김소월,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과 승화

감상: 이 시는 여성적 어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가정하고,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체념과 인종의 자세로 승화시키고 있다. 특히,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이육사, 「광야」

주제: 조국 광복을 위한 현실 극복의 의지

감상: 이 시는 ‘광야’라는 광활한 공간과 현실 초월적인 시간 의식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조국 광복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한용운, 「님의 침묵」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감상: 이 시는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별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님’은 절대자, 조국, 사랑하는 임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④ 유치환, 「깃발」

주제: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비애

감상: 이 시는 ‘깃발’을 통해 이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상을 동경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한계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제: 국권 상실의 현실과 회복에 대한 염원

감상: 이 시는 국토를 빼앗긴 민족 현실을 ‘빼앗긴 들’로 비유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국권 상실의 비극적 현실과 새로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대비시켜 우리 민족의 비통한 현실과 설움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07 ㉠은 이 시의 후렴구로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 시구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매 연마다 반복함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08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은 고향 마을의 계절적,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고향의 평화롭고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 줄 뿐, 화자와 그의 가족들의 가난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얼룩빼기 황소’는 한가로운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정경을 보여 준다.

② 질화로의 재가 식은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 겨울밤이 깊어 감을 나타낸다.

③ ‘함부로 쓴 화살’은 어린 시절의 신비롭고 막연했던 꿈과 이상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

④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을 밤물결이 춤춘다고 표현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2) 장마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41~050쪽

- 01 ⑤ 02 ⑤ 03 광과 장룡의 열쇠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오
늘(점쟁이가 예언한 날) 안으로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③ 14 돌맹이, 나뭇개비, 돌팔매질
15 ② 16 ① 17 ① 18 ③ 19 ① 20 ④ 21 ②
22 ③ 23 '나'의 삼촌 24 ① 25 ③ 26 ⑤ 27 ②
28 할머니의 머리카락 29 ①, ⑤ 30 ⑤ 31 구렁이가 상
처를 입어 몸과 꼬리 부분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32 ⑤ 33 ⑤
34 ④ 35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고,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36 ② 37 ④ 38 ⑤ 39 ③ 40 ⑤ 41 이념, 정서

0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로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
이자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
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미성숙한 서술자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
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심리는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 '장마'라는 날씨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③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으며 외할머니는 피란을 온
상태로, 육이오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이 글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02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나'가 삼촌이 집에 온 사실을 낯선
사람에게 말한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으로 아들들이 이념적으로 대
립된 처지여서 서로 거북한 상황임에도 두 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냈다고
하였다.

② 외삼촌의 전사 소식 이전에 '나'로 인해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
으므로, 이것이 갈등의 계기는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피란을 온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일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다.

④ 삼촌이 집에 몰래 온 일에 대해 외할머니가 갈등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나)에서 할머니는 가족들이 삼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한 정성
을 보일 때까지 광과 장룡의 열쇠를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
하고 있다. 광과 장룡은 집안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
거나 모아두는 곳으로, 그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04 '장명등'은 아들의 귀환을 고대하는 할머니가 밤에 켜 놓은 것
으로, 아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명
등이 꺼졌다는 것은 곧 삼촌의 귀환에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암시하
는 불길한 징조이다.

오답 풀이 ① 가족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할머니의 생각일 뿐
이다.

② 누군가가 아침이 되어 장명등을 끈 것이 아니라, 간밤에 저절로 꺼진 것
이므로 등이 꺼졌다고 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장명등은 할머니가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켜 놓은 것이므로, 등이 꺼
진 것은 불길한 징조이지, 할머니의 기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
시로는 볼 수 없다.

⑤ 삼촌을 기다리며 켜 놓은 불이 꺼진 것이 삼촌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나
타낸다고 여길 만한 이유는 없다.

05 (다)로 보아, 고모와 이모까지 합세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집
을 청소했다고 하였으므로, 외가 식구들이 할머니의 눈 밖에 나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큰자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쫓쫓.'
이라고 하며 '나'의 아버지인 큰아들이 동생을 맞이하는 일에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노여워했다.

② 가족들은 봉창에 달린 유리 너머로 마당을 쳐다보는 할머니의 감시의 눈
초리를 뒤통수에 느껴 가면서 집 안을 치웠다.

③ 고모와 이모까지 합세하여 가족들은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을 말끔히
청소했다.

④ '나'와 아버지는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
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장명등이 꺼짐을 발견
한 꼭두새벽부터 식전까지 작업을 한 것이므로 이른 아침으로 보는 것이 적
절하다.

06 하늘이 아직 흐린 것은 가족의 불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
을 암시하며, 하늘이 조금 열리고 구름을 몰아가는 바람이 불어 다
시 비가 내릴 기미가 없다는 것은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
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의 날씨 배경은 앞으로 전개
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없다.

② 삼촌을 기다리는 사건이 진행 중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실마리를 제공하
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나
타나 있지 않다.

③ 배경 제시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전개 방향을 암시하므로, 이것만으로
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 수 없고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내용상 비가 그치는 다행스러운 일이 나타나 있으므로 갈등의 고조와는
거리가 멀다.

07 장명등을 꺼뜨린 일로 가족들에게 화가 나서 하는 말로, 앞으
로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이다. 이 말에는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잘하라
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② 봉창에 달린 유리를 통해 마당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무관심
하고자 결심한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아버지를 못마땅해하지만 큰아들 식구들을 다른 가족보다 더 미
워하는 상황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④ 무언으로 가족들을 독촉한 것으로, 혼자 아들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는 아
니다.

⑤ 아들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상황으로, 자신에 대한 봉양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08 ㉠은 자신이 복이 없다고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고향에 가까울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보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질책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아들, 며느리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는 말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아들을 낳거나 며느리를 들인 것을 후회한다기보다는 꾸짖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③ 아들과 며느리가 기대에 못 미쳐 못마땅함을 나타낸 것으로, 무시와는 거리가 멀다.

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 아들의 귀환에 대한 믿음에 차 있으므로 절망과 관련이 없다.

09 이 날은 삼촌이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말한 날이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나'의 집에 모여든 이유는 점쟁이의 말대로 진시에 삼촌이 집에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동네 사람들이 미신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할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할머니의 안부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③, ④ 부엌을 드나들고 잔칫집처럼 북적거리는 것, 연줄을 찾아 말을 거는 행동 모두 삼촌이 돌아올 것인지, '나'의 가족들은 점쟁이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 ㉠의 이유는 이야기하기 편한 화제인 날씨 이야기를 먼저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서 주된 관심사인 삼촌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이상 날씨 이야기는 없으므로 오늘 날씨가 궁금한 것은 아니다.

② 날씨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다고 했으므로 마을의 주된 화제가 언제나 날씨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③ 아버지의 직업이 날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오늘의 날씨를 보고 앞으로의 일을 짐작할 수 있다는 단서는 없다.

11 진시 전에는 가족들이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돕고 있고 진시가 지난 이후에는 모두 침통한 표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시 전의 가족들의 심리가 삼촌이 돌아올 것을 의심하고 점쟁이의 말이 맞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의구심)을 지닌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할머니는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아침상을 못 차리게 하였으므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대로 삼촌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나'의 집에 모여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에서 진시가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가족 모두들 침통한 표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나'의 가족들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구장 어른은 실의에 잠긴 '나'의 가족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고 있다. 따라서 안타까움을 느껴 위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진시가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태평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당일 안으로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13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므로 점쟁이가 용해도 시간만큼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남의 실수에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진시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식사까지 거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완고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②, 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오늘 안으로 아들이 꼭 돌아온다고 하며 아들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④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고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에서 '돌멩이, 나뭇개비, 돌팔매질'은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인데, 구렁이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15 [A]에서 할머니는 점쟁이가 말한 진시에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아무 시'가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할머니의 태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이다. 이는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학수고대(鶴首苦待)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전전긍긍(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의미하는 말이다.

16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어른이 된 '나'의 회상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B]는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그 소리가 무척 궁금했던'이라고 인물(동만)의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전달은 물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④, ⑤ <보기>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위치하므로, 누가 되었든 작중 인물은 서술자가 될 수 없다.

17 구렁이의 출현으로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할머니가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수습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는 의연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하고 있으므로, 조금함과과는 거리가 멀다.

③ 구렁이를 상대로 하여 혼자서 정해 놓은 순서를 밟는 것처럼 일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 보아 소심한 성격은 아니다.

④ 외할머니는 혼란한 상황을 수습해 가는 것이지 구렁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⑤ 너그러운 태도를 지녔음을 짐작할 만한 근거는 없다.

18 이 글은 어린이이인 ‘나’가 주된 서술자이지만, [C]에서는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를 보완해서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어린이 서술자의 특성으로, 상황을 비판 없이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순수한 시선으로 대상을 보는 효과가 있다.

④ 서술자는 동일하게 ‘나’로, 1인칭 시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⑤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담길 수 있다.

19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해치려는 ‘나’의 손을 잡은 것은 구령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삼촌이 귀환한다는 날에 집 안으로 들어온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나’를 꾸짖은 것은 구령이를 해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작대기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③ 할머니가 부릅뜬 눈으로 ‘나’를 꾸짖는 데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할머니가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며 구령이를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⑤ 구령이를 흉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삼촌이 현신으로 여기며 오히려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고 있다.

20 할머니가 졸도한 이유는 삼촌이 죽고, 대신 구령이로 환생하여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의 졸도가 삼촌의 귀환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삼촌 대신 나타난 구령이로 인해 할머니는 졸도하고, 이는 할머니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뒷부분에서 할머니는 극도로 쇠약해져 돌아가시게 된다.

② 할머니의 졸도는 두 할머니의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된다. 할머니는 구령이를 자신의 아들로 여겨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졸도하고, 그 사이 외할머니는 구령이로 인한 혼란한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한다. 이 사건은 이후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③ 구령이의 등장으로 삼촌의 죽음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더 이상 삼촌을 기다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이전까지는 할머니가 삼촌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지휘하는 등 사건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할머니의 졸도로 인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구령이를 달래서 배웅하는 역할을 외할머니가 맡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인물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21 ‘절정 1’에서 가장 큰 사건은 구령이의 출현이다. 삼촌이 오기로 한 날에 등장한 구령이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고, 삼촌 대신 등장한 구령이로 인해 할머니는 졸도하기에 이른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이 환생하여 돌아온 것으로 믿고 있다.

③, ④, ⑤ 구령이의 출현에 따른 부수적인 상황들로서, 중심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상처 입은 구령이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령이 존재 자체가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존재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를 죽은 삼촌이 돌아온 것으로 보고 외할머니가 그 한을 달라고 있다.

②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구령이가 출현하여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므로, 이는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구령이의 상처는 우리 민족의 상처를 상징한다.

⑤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죽은 삼촌으로 대하며 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려고 구령이를 달라고 있다. 할머니가 졸도하여 부재하는 상황에서 할머니를 대신하는 외할머니의 이러한 행동은 할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23 ㉠은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보고 하는 말로 구령이에게 집안 일을 못 잊어 왔냐고 묻는 걸로 보아,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죽은 삼촌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구령이에게 사람을 대하듯이 말하는 외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은 이유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구령이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웃음을 줄 요소는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삼촌이라 생각하여 달래듯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하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웃은 것은 아니다.

④ 외할머니의 말에 대한 구령이의 반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구령이가 무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⑤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웃음을 유발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5 외할머니는 구령이가 이승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족을 걱정하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은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피해로 인한 감정은 거리가 멀다.

② 외할머니가 식구들이나 집안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은 집안이나 식구들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승을 떠나지 못해서 생긴 괴로움은 아니다.

④ 외할머니가 달래는 말로 보아, 할머니를 봉양하는 구체적인 문제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집안이나 식구들과 관련되므로 이념의 문제는 아니다.

26 안방에 있는 식구들은 졸도한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어서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갔을 때 ‘나’의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려 ‘나’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안방에 있는 식구들은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달라고 있는 밖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가 이승에서 떠돌고 있는 구령이를 보면 가슴이 메어 질 것이라고 하거나 할머니가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볼 때,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외할머니는 음식들과 냉수를 차려 놓고 구령이를 달라고 있는 것에서 구령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안방에 있는 식구들은 졸도한 할머니의 주변에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할머니가 깨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어 와 태우려는 것으로 보아,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려고 땀을 쫓는 묘방을 알려 준 어떤 아낙네의 말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함을 알 수 있다.

27 (파)에서는 ‘나’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어 가져오는 장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부분에 제시된 배경은 없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닌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시간 순서를 뒤바꾼 역전적 구성은 쓰이지 않았다.

⑤ 서술자인 ‘나’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28 외할머니는 ‘나’가 얻어 온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며 구령이를 달래서 보내려고 한다. 따라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구령이의 원한을 푸는 매개물이자,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와 혈육의 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29 호박전과 고사리나물과 같은 음식들은 할머니가 아들이 오면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음식들로,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이와 같은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할머니를 대신하여, 아들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전해 주고 구령이를 달래서 보내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② 삼촌의 환생으로 믿는 구령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지, 두려움 때문은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구령이를 달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외할머니는 삼촌 대신 구령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절정 2’에서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달래서 배움함으로써 구령이가 출현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구령이가 한을 풀고 떠나게 함으로써 갈등 관계에 있던 할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를 달래서 배움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할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될 계기가 마련되므로 비극적인 결말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② 외할머니는 할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이며,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내용은 없다.

③ 구령이를 배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어지는 사건을 유발하는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의 주제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화해로 볼 때, 외할머니의 행동을 통해 이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31 구령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므로, ‘민족의 상처, 역사의 상흔’은 (거)에서 상처를 입은 구령이가 제대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 몸과 꼬리 부분이 따로 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외할머니는 구령이에게 집안일을 걱정하지 말고 먼 길을 편안히 가라고 할 뿐, 이승에 남은 가족들을 보살필 것에 대해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집안일을 형님(‘나’의 아버지)한테 맡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으로 여기고 있다.

② 구령이가 한을 풀고 가는 것에 대해 ‘고맙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몸이나 성해서 제발 먼 길을 편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는 구령이가 무사히 저승길에 이르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편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구령이를 이승에서의 한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자 오랜 시간 움쩍도 하지 않던 구령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희한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다는 서술 이후 위리가 짖어 대고 있었다는 서술이 나온다.

② 구령이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할머니가 터 준 길을 따라갔지, 외할머니를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③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자 그에 따라서 눈 앞에 벌어진 광경, 즉 구령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에 탄성을 지른 것이다.

④ 외할머니가 “쉬어! 쉬어!” 하며 구령이에게 연신 소리를 지른 것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 다음 구령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34 (더)~(머)에서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가족들을 통해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배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두 할머니는 화해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더)~(머)에서 일어난 일은 구령이를 보낸 이후이므로 구령이의 출가는 중심 사건이 될 수 없다.

②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외할머니와 화해하는 일과 같이 이어지는 사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중심 사건은 아니다.

③ 외할머니가 할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된 후 처음 큰방 출입을 하게 된 것은 할머니와의 화해를 의미하지만, 이 자체가 중심 사건은 아니다.

⑤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고 잘 달래서 배움했으므로, 사투를 벌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일은 (더)~(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35 (머)에서 할머니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외할머니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손을 외할머니가 잡고 있다. 따라서 두 할머니가 손을 잡은 행위는 곧 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직접 드러내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36 (러)에서 할머니가 “갓나?”라고 한 말 속에는 구령이로 환생한 삼촌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안심한 것은 아들이 이승에서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구령이, 즉 자신의 아들을 걱정한 것이다.

③ 구령이를 자신의 아들의 환생으로 보고 있으므로, 구령이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구령이 존재 자체를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

⑤ 저승으로 떠났다고 믿기에 안심한 것이므로, 구령이가 되어 다음 생을 이어 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37 구령이를 외할머니가 배운 일 해 듣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 것은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자신이 직접 배운 하지 못한 아쉬움, 아들이 한을 품 것에 대한 안도감, 아들을 잘 배운 해 준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의미의 허무함과 거리가 멀다.

38 (터)~(서)는 소설의 구성 단계상 결말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 외할머니와 할머니, ‘나’와 할머니 간의 갈등이 해소되며 사건이 종결된다.

- 오답 풀이** ① 작품의 배경 제시는 대체로 작품이 처음 시작하는 발단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② 사건의 실마리 제공은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 단계상 발단에 해당한다.
 ③ 인물 간의 갈등 고조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인물 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위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④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이 나타나는 단계는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가 나타나는 전개 부분에 해당한다.

39 ㉠에는 할머니의 의식이 들었다 나갔다는 반복하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을 의미하는 명제경각(命在頃刻)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좌불안석(坐不安席)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④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40 ㉠은 민족적 비극의 종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준다.
 ② 지루한 장마였다는 과거형 진술을 통해 장마가 끝났고, 사건이 장마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장마가 끝났다는 표현을 통해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④ ‘장마’는 이 글에서 가족이나 민족의 불행을 의미하고 있는데 ‘장마가 끝났다.’라는 표현은 가족이나 민족에 닥친 불행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41 이 작품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전쟁과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 및 민족의 비극과 갈등이 민족의 정서적 합일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51~052쪽

01 ③ 02 ③ 03 ④ 04 상원사, 치악산 05 ③ 06 ⑤ 07 ⑤

01 글의 갈래상 이 글은 전설, 「장마」는 소설이다. 이 두 양식은 서사 갈래에 포함된다.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일정한 짜임새를 갖추어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 오답 풀이** ㄱ.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단순한 형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전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ㄴ. 대체로 여러 인물과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는 구성을 취하는 것은 소설에 해당한다.
 ㄷ. 민족 전체의 사상과 정서 및 풍습 등을 담고 있으며 전기적이고 우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설화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02 「장마」는 육이오 전쟁을 배경으로 당시의 한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을 민족적 비극의 차원으로 확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허구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이지만, 사실적인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이 글은 전설로서, 구령이가 여인으로 변하는 등 비현실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원주 상원사와 치악산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며, 「장마」는 시골집의 마당이나, 대밭, 큰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② 이 글에서는 구령이와 평이, 「장마」에서는 구령이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고, 「장마」의 서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이다.
 ⑤ 이 글은 청년과 구령이의 갈등이 중심이 되지만, 「장마」는 한 가족 안의 인물들의 갈등, 나아가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

03 ㉠은 껌병이들을 잡아먹으려다가 청년이 쏜 화살에 죽은 남편의 아내로, 자신의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는 구령이 스스로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한을 풀고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삼촌의 환생이라 생각하고 그 원한을 풀게 하고자 샤머니즘적 의식을 진행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은 집주인인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죽이기 위해 빈방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며, ㉡는 외할머니에게 음식들과 배움을 받는 등 정성껏 대접을 받는다.
 ② ㉠은 여인이 변한 모습이며, ㉡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죽은 삼촌이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이다.
 ③ ㉠은 청년을 죽이려다가 자신이 말한 대로 종이 세 번 울리자 청년을 풀어 주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다. ㉡는 삼촌이 온다는 날에 집 안으로 들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외할머니의 의도대로 감나무에서 내려와 집을 빠져 나간다.
 ⑤ ㉠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청년을 죽이고자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이다. 반면 외할머니가 ㉡를 극진히 배움함으로써 그 고마움으로 인해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하게 되므로 ㉡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04 이 글에서 전설의 구체적인 증거물은 청년이 지었다는 절로서 지금도 남아 있는 ‘상원사’와 전설의 내용에 따라 적악산에서 이름이 바뀐 ‘치악산’이다.

05 구렁이는 오늘 밤이 새기 전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나면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청년을 살려 주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깊은 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리 없으므로 청년은 기대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때마침 종소리가 세 번 울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는 꾀병이 어미가 새끼를 살려 준 청년에게 목숨을 바쳐 종을 울린 것이므로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청년이 꾀병이들을 구하기 위해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구렁이의 아내가 청년을 죽이려 하고, 이 사실을 안 꾀병이 어미가 청년을 구해 준다. 따라서 [A]는 [C]에서 맞는 위기의 원인이 되면서 후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구렁이가 남편의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인으로 변해 하룻밤 묵는 청년에게 정성껏 대접하여 배불리 먹인 뒤 잠이 들게 한 것이므로 [B]는 [A]에서의 일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구렁이의 의도가 담긴 조치라고 볼 수 있다.
 ④ [E]에서 꾀병이의 어미가 꾀병이들을 구해 준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종을 울려서 자신을 살려 준 것임을 알게 된다. 그 이후 청년은 한 양으로 이름을 날리려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 절을 크게 고쳐 준다.
 ⑤ 커다란 구렁이에게 새끼들이 죽을 뻔했던 꾀병이들의 어미는 새끼들을 살려 준 고마움에 온몸으로 종을 울려 청년을 살리고 그 은혜를 갚는다.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는 평을 통해 은혜를 갚는 신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06 구렁이가 꾀병이들의 어미에게 양값을 한 것이 아니라, 꾀병이들을 구해 준 청년에 대한 고마움에서 청년을 살리기 위해 꾀병이들의 어미가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구렁이는 청년이 자기 남편을 죽인 일로 원수를 갚기 위해 청년의 몸을 감은 것이다.
 ② 구렁이는 밤이 새기 전에 종소리가 세 번 울리면 청년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청년이 한숨을 쉰 이유를 서술자가 개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기와집이 사라진 것은 비현실적인 요소이다.

07 구렁이는 오늘 밤이 새기 전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나면 청년을 살려 주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깊은 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리 없는데, 동이 틀 무렵 종소리가 세 번 울린다. 이 일을 두고 서술자는 참 신기한 일이라면서 인물의 상황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구렁이는 날이 새기 전 절에서 종소리가 세 번 울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년과 약속을 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은 청년이나 서술자 모두 동일했으므로 종소리가 세 번 울리는 일이 일어나자 신기하다고 서술한 것이다. 구렁이가 약속을 지켜 신기한 것은 아니다.
 ② 신기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은 구렁이가 청년을 풀어 주고 기와집이 온데 간데 없어지기 전의 일이다.
 ③ 신기한 일이라고 평가할 때까지 청년은 여인의 실체가 구렁이인 줄 알지 못하였다.
 ④ 구렁이가 청년의 몸을 풀어 준 자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종이 세 번 울릴 수가 없는데 때마침 종이 세 번 울렸기 때문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053~055쪽

01 ⑤ **02** ② **03** ④ **04** 장명등은 삼촌의 생환을 고대하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그런데 진시가 지나도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은 삼촌의 생환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05** ④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육이오 전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이 입은 상처

0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자 어린아이인 ‘나’이다.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관찰하여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나타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서술자인 ‘나’의 회상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② 빨치산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 아들을 둔 외할머니의 처지에서 비롯된 갈등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육이오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다.
 ④ 이 글은 장마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흐리고 음울한 장마라는 배경이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이 글은 ‘나’의 가족과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정한 인물의 심리를 다루거나 그 변화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인 시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라는 민족의 비극적인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④, ⑤ (라)에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되어 과거를 회상하여 전하는 어른인 ‘나’의 시점이 혼재되어 어린 관찰자라는 서술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있다.

03 (마)에서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확신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며 아들의 귀환에 집착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의 생환을 의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점쟁이가 아들이 돌아온다고 예언한 날에 아들이 꼭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②, ③, ⑤ 할머니는 점쟁이가 예언했던 진시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무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당일 내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식사도 하지 않으며 아들의 귀환에 집착하고 있다.

04 장명등은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할머니가 삼촌이 집에 잘 찾아오도록 배려해 켜 놓는 것으로, 할머니의 삼촌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명등이 꺼졌다는 것은 삼촌이 집을 찾아오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A]는 구렁이의 출현, [B]는 할머니의 졸도, [C]는 구렁이를 배웅한 사건이다. [C]에서 외할머니가 의연한 태도로 성심껏 구렁이를 배웅한 것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고, 쓰러진 할머니를 대신하여 잘 달래서 보내 주기 위함이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사건 전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구렁이의 출현은 할머니의 졸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사건을 전환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믿기 때문에 구렁이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제지한 것이며, 이후 구렁이를 잘 달래서 보내려고 하고 있다.
 ③, ⑤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를 배웅한 것을 계기로, 두 할머니는 화해하게 된다.

06 집 안에 들어온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것은 돌팔매질을 하려는 아이들로부터 구렁이를 보호하고 호기심에 구렁이를 구경하려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진정시켜 구렁이를 내보내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는 것이나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내보내려는 것에서 외할머니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함을 알 수 있다.
 ② 외할머니는 '먼 걸음'이라고 하며 구렁이가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③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 여기며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하여 구렁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⑤ 외할머니는 구렁이의 갑작스러운 출현에도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07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은 무속 신앙에 근거한 것으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한 맺힌 구렁이에게 할머니의 인간적인 체취를 느끼게 하여 구렁이를 안심시켜 돌려보내기 위한 행동이다. 따라서 '할머니의 흰머리'는 구렁이의 한을 풀어 주는 매개체이자 죽어 돌아온 삼촌을 위로하는 할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08 ㉠에서 두 할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을 잊지 못한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할머니의 감사한 마음과 외할머니의 위로가 서로 전해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② 심심상인(心心相印)은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교외별전(敎外別傳)은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09 이 글에서 '장마'는 한 가족의 비극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자, 나아가 민족의 비극인 육이오 전쟁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한 가족의 갈등과 민족의 비극이 끝났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장마'의 날씨로 인한 피해는 제시되지 않는다. '장마'가 날씨 배경이긴 하지만, 이는 육이오 전쟁 당시 한 가족과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쓰이고 있다.

10 구렁이는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처를 입은 상태이다. 이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육이오 전쟁과 관련지어 볼 때 육이오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어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57~071쪽

- | | | | | |
|-------------|----------------------|-------------------------------|------------|---|
| 01 ② | 02 ④ | 03 몽타주 | 04 장난감 강아지 | 05 ④ |
| 06 ③ | 7 ② | 08 ② | 09 ④ | 10 월리가 사라진 일 |
| 11 ③ | 12 ⑤ | 13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월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14 ① | 15 월리를 돌려주며 사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구해서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이다. |
| 16 ④ | 17 ⑤ | 18 ④ | 19 ③ | 20 ② |
| 21 ④ | 22 ④ | 23 ⑤ | 24 ② | 25 ② |
| 26 ② | 27 ③ | 28 전단 | 29 ② | 30 ② |
| 31 시유(C.U.) | 32 ② | 33 ⑤ | 34 ② | 35 ② |
| 36 ③ | 37 ③ | 38 ③ | 39 ④ | 40 생일 파티를 할 집이 없어서 |
| 41 ⑤ | 42 ③ | 43 모켄족 | 44 ③ | 45 ④ |
| 46 ④ | 47 아빠의 글 | 48 아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49 ①, ⑤ | 50 ② |
| 51 ② | 52 돈을 받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 | 53 ① | 54 ⑤ | 55 ⑤ |
| 56 ④ | 57 ㉠: 노부인 ㉡: 아빠 | 58 ⑤ | 59 ③ | 60 ③ |
| 61 ② | 62 ④ | 63 ③ | 64 도시락 | 65 ① |
| 66 ② | | | | |

01 이 글은 시나리오로 이와 같은 글은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을 거쳐 영화로 상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공연하는 희곡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영화 편집이나 작가의 장면 설정에 따라 장면을 바꾸는 것이 자유롭다.

③ 구성단위가 장면 번호인 신(Scene)으로 표시된다.

④ 시나리오 용어로 촬영 방법과 관련된 '시유(C.U.)', '인서트(Ins.)' 등의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⑤ 인물의 행동이나 배경 설정 등을 나타내는 지시문과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된다.

02 '앞부분 줄거리'로 보아,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인물은 정현이며, 지소는 그 레스토랑에서 봤던 개인 월리를 훔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고 집까지 없어져서 지소는 엄마, 동생 지석과 작은 승합차에서 한 달째 살고 있다.

③ 채량은 지소의 친구로, 지소를 도와 함께 개를 훔치려고 한다.

⑤ 지소는 동물 병원에 검진을 온 월리를 먹이로 유인해 훔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03 'S# 62'에서는 레스토랑 마르셀의 정원과 흙,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1~5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화면을 적절히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것을 몽

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소와 채랑이 월리를 흠치는 진행 과정을 축약하여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04 'S# 62'에서 지소는 장난감 강아지를 이용하여 레스토랑 홀의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그 사이에 사료로 유인하여 월리가 열린 문틈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는 장난감 강아지이다.

05 지소와 채랑은 사료로 월리를 유인하여 흠치려고 했으나 수영의 방해로 실패한다. 그러나 수영과 박 이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 트렁크에서 월리를 꺼내 마르셀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 오답 풀이** ① 수영이 월리를 안고 주위를 둘러보며 밖으로 나와 박 이사 차 트렁크에 넣는 것으로 보아 월리를 몰래 빼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월리의 목에 있는 방울 목걸이에 '윤서오'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에서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지소는 트렁크에 개를 넣는 박 이사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⑤ 채랑은 마르셀에 가서 월리를 흠치려는 지소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06 ㉠의 시유(C.U.)는 클로즈업(close-up)의 약자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나리오 용어이다.

- 오답 풀이** ① 화면을 점점 밝게 하는 것은 'F.I.'이다.
 ② 화면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은 'F.O.'이다.
 ④ 두 개의 화면을 겹치게 하는 것은 'O.L.'이다.
 ⑤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은 '인서트(Ins.)'이다.

07 지소는 개를 트렁크에 넣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알맞은 것은 수영과 박 이사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뭔가 수상한 듯'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채랑이 "왜?"라고 반문했으니 혼잣말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③ 수영과 박 이사의 행동을 숨어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가 당황한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다.
 ④ 채랑의 말에 대한 반문이 아니라 수영의 행동에 대한 의아함을 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는 반응이므로, 기쁜 마음을 지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에서 지소와 채랑이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 것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월리를 흠칠 기회가 생겼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른다.
 ④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른다.
 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겸손히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을 이른다.

09 월리의 방울 목걸이에 있는 '윤서오'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의 주인과 연락처이다. 그러므로 지소가 이를 던져 버린 이유는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여 흠친 개라는 사실을 들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개의 목걸이가 있다고 하여 개 스스로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월리라는 개가 마을에서 잘 알려진 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윤서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개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⑤ 월리가 목걸이를 불편해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0 'S# 67'에서 노부인이 수영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수영을 질책하며 못마땅해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월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부인과 수영 간의 갈등이 발생한 계기는 월리가 사라진 일로 볼 수 있다.

11 'S# 67'에서 노부인이 수영에게 "넌 눈을 어디에 달고 있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쓸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수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수영에게 월리의 행방을 묻는 등 일을 시키고 있으므로, 수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② 월리가 사라진 일에 대해 책임하므로 수영을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수영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노부인은 수영이 월리를 빼돌리려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수영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

12 수영은 월리를 박 이사에게 넘겨 빼돌리려고 했으므로, 노부인이 월리를 찾는 물음에 모르는 척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보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13 <보기>를 통해 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 낳긴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월리가 없어졌으니 충격을 받아 노부인이 주저앉게 된 것이다.

14 수영은 재산 상속 문제로 노부인에게 분노하긴 했지만 노부인이 쓰러지자 노부인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영의 심리는 ㉡ 앞의 지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제시된 대사에서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 보시는 게……."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S# 71'에서 지소는 월리를 흠쳤으니 사례금 오백만 원을 요구할 것이며 그 돈으로 집을 구해 생일에 친구 모두를 집으로 초대해 멋진 파티를 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지소가 월리를 흠친 이유를 알 수 있다.

16 지소는 월리를 빈집에 숨겨 놓았는데, 대포가 나타나 월리에게 관심을 보이자, 자신이 개를 흠쳤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당황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포가 월리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지소가 대포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월리를 돌봐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자신이 세운 집을 구하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대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포는 지소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다.

⑤ 대포가 월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만, 이러한 대포의 행동에 월리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 ㉠은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 있던 전단이다. 전단에는 빨간 지붕의 아담한 이층집 사진이 있는데, 지소는 이 전단을 보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동산 중개소에 붙어 있던 전단과 지소의 미래와는 관련이 없다. 이 전단은 'S# 71'에서 지소가 생일 파티를 하는 상상에 빠지는 계기로 작용할 뿐이다.

② 지소는 전단을 보고 오백만 원만 있으면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므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③ 지소는 전단에 나온 집을 사서 고난을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고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못한다.

④ 어린아이인 지소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집을 구해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기 때문이며, 부동산 전단을 통해 아빠를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18 지소가 처음 차에서 자게 된 것은 집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훔친 월리 역시 집을 잃고 폐가에 와 있는 것이므로, 지소는 월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이 월리의 눈빛도 쓸쓸하고 슬픈 표정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월리를 훔쳐서 처음 폐가로 왔으므로 정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월리에게 폐가가 익숙한 곳은 아니다.

③, ⑤ 지소는 폐가에 온 월리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므로, 아빠가 없는 상황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 'S# 73'에서 채랑은 월리를 찾는 전단이 붙지 않자, 다른 개를 훔쳐야 하는지 지소의 의견을 묻고 있을 뿐, 혼자 다른 개를 훔쳐서 지소에게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봤다고 이야기한 것은 노부인이 월리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노부인은 월리가 제 발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하며, 지소에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지소는 대포에게 폐가에서 자연 안 된다고 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월리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포가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⑤ 노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월리가 없어야 하는데 지소가 월리를 봤다고 하자 수영은 초조해하고 있다.

20 지소의 계획은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주인에게 데려다준다. → 사례금을 받는다. → 집을 사고, 생일 파티를 한다.'이다. 'S# 73'에서는 지소는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1 지소가 ㉠과 같이 초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월리를 찾는 전단이 없다면, 자신이 월리를 주인에게 데려가도 사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2 지소가 ㉠처럼 머뭇거리며 말을 더듬는 것은 월리를 훔친 것도 몇몇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월리를 봤다는 장소까지 거짓말로 둘러대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월리를 훔친 것은 지소 자신이기 때문에, 월리를 본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거나 상황 설명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③ 노부인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할 이유는 없다.

23 노부인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찾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소의 말을 듣고 월리를 찾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노부인은 지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영은 갑자기 찾아와 월리를 찾는 데 사례금 오백만 원을 제시하라는 지소의 말에 황당해하고 있다. 그런데 노부인이 지소의 말대로 해주라는 지시를 내려서 노부인에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네?"라고 반문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노부인이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월리는. (혼잣말로)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소는 노부인에게 아빠가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④ 노부인은 지소의 말을 다 듣고 지소의 요구대로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이라고 수영에게 지시하고 있다.

24 지소는 월리가 제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기 아빠도 길을 잃어버려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노부인은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아빠와 월리가 꼭 집에 돌아올 거라는 지소의 단호한 대답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25 지소가 사례금으로 오백만 원을 말한 이유는 자신이 사려는 집을 오백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오백만 원으로 집을 사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는 것이지, 그 돈으로 생일상을 차리려는 것은 아니다.

③ 오백만 원은 집을 구하기 위한 돈으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집을 구하려는 것이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지소는 노부인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⑤ 지소는 노부인이 진심으로 개 월리를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26 노부인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단지 월리를 봤다고 말한 지소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고 다시 강변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지소를 노려보며 말하고 있으므로, 호기심이나 놀라움, 반가움 같은 긍정적인 심리는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떻게 아는지 반문하여 지소의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서글픔은 적절하지 않다.

27 ㉠은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 주며 전단에 사례금을 넣을 것을 말할 때의 지시문이다. ㉠ 뒤에 이어지는

지소의 대사에 말줄임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소는 끝말을 흐리고 있다. 이는 전단을 붙이라고 주장하는 목적이 자신이 훔친 개에 대한 사례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떼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㉔에는 ‘단호한 목소리’가 아닌 ‘다시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전단을 붙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② 노부인의 반문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다시 전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④ 사례금이라고 반문한 후 “그래, 얼마면 되겠니?”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노부인이 사례금이 필요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시문으로 적절하다.

⑤ 노부인이 사례금의 액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자기 계획에 좀 더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지소는 다소 흥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갑자기 큰 소리로’의 지시문은 적절하다.

28 ‘S# 75’는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찾는 전단을 붙일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S# 77’은 월리를 찾는다는 전단을 본 대포가 이를 화제로 하여 지소와 대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전단’이 사건 전개상 중심 소재임을 알 수 있다.

29 ‘S# 77’에서 대포는 골목에 붙은 전단을 본 것일 뿐, 전단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무판자로 개집을 만들고, 청국장을 끓이는 장면이 있으므로 미리 소품을 준비해야 한다.

③ 대포가 개집을 만들 때 지소도 돕는다고 했으므로, 인물의 위치나 동작에 대한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

④ 개집을 만들 때 나는 소리, 청국장이 끓을 때 나는 소리 등의 효과음도 준비해야 한다.

⑤ 대포와 지소가 완성한 개집에 월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쏙 들어간다는 지시문이 있으므로 개 월리를 미리 훈련시켜 집에 들어가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 대포가 월리를 찾는 전단을 본 후에 지소의 개가 전단에서 찾고 있는 개와 같다고 생각했다면, 월리가 훔친 개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소는 자신이 월리를 훔친 사실을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이다.

31 “월리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글자가 잘 보이게 전단을 확대하여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므로, ㉔에 들어갈 적절한 시나리오 용어는 화면의 일부를 확대하는 시유(C.U.)이다.

32 대포는 골목에 붙은 전단을 보았다고 지소에게 말하며 전단의 개와 지소의 개가 비슷하게 생겼고, 전단의 개 이름도 월리라고 하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포의 말을 들은 지소는 월리를 훔친 사실을 대포에게 들킬 것을 걱정하여 전단을 모두 수거하려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대포는 월리가 훔친 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월리를 탐내는 것은 아니다.

③ 대포가 월리의 집을 만드는 것은 월리를 위한 일이며 전단과는 관련이 없다.

④ 채량이 전단을 들고 왔지만 마지막 남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⑤ 훔친 월리를 돌려주어야 집을 구하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으므로 돌려주고 싶지 않아졌을 리 없다.

33 지소가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올먹인 이유는 마르셀의 분위기가 아빠가 사라지기 전 자신의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즉 자기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노부인도 마르셀에서 쫓겨날까 봐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올먹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박 이사가 수영에게 접근하여 수영에게 받아낸 인감을 가지고 마르셀의 대지와 건물을 팔아넘겼다. 이로 인해 노부인은 마르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지소는 사례금을 받기 위해 마르셀을 찾았다가 빨간 스티커를 보게 되었다.

③ 노부인이 벽에 걸린 벽화를 보며 ‘이 사람’의 그림을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윤서오’의 그림이며 노부인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④ 노부인은 벽에 걸린 유화를 보며 지소에게 자기의 아들인 윤서오와 아들이 키우던 개인 월리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34 ‘S# 84’로 보아, 노부인의 아들인 ‘윤서오’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노부인의 반대로 집을 나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윤서오와 노부인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③ 월리는 노부인이 아들인 윤서오가 죽은 이후에 찾아갔다가 알게 된 개이다.

④ 두 인물 간의 재산에 대한 대립이나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장면은 없다.

⑤ 노부인이 화가가 되겠다는 아들의 의사에 반대한 것으로 보아, 아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5 지소는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를 그린 사람이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고 월리의 실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사례금을 요구하기 위해 들고 온 전단을 감추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유화를 그린 사람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므로, 새로운 인물과의 만남을 예고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극의 흐름으로 보아, 과거의 상황을 말하고 있을 뿐, 사건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지는 않는다.

④ 현재 노부인과 지소가 갈등 관계에 있지는 않다.

⑤ 윤서오라는 인물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사고가 ㉔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6 ‘S# 84’의 인서트 장면은 ‘S# 66’에서 월리의 방울 목걸이에 있던 이름표를 보여 주는 장면을 빠르게 회상하게 함으로써, ‘윤서오’가 월리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알려 준다.

오답 풀이 ① 화가의 이름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

② 방울 목걸이를 회상하는 장면이 월리를 처음 만난 때는 아니다.

④ 이어지는 내용에서 지소가 월리의 이름표를 버린 것을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윤서오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37 ‘S# 85’에서 정현은 지소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가 난 상태이다. 따라서 지소의 오해를 풀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엄마가 아빠에게 싫다고 해서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엄마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준다고 하는 데서, 정현은 지소가 자신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④ 지소는 엄마가 돼 가지고 애들을 차에서 키운다며 정현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정현은 지소가 억지쟁이에 불만투성이이며 심술만 부린다고 못마땅해하고 있다.

38 'S# 85'에서 지소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며 정현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대포와는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S# 86'에서 대포에게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대포가 엄마와 싸우고 나온 지소와 지석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지석은 대포에게 누나랑 엄마랑 싸웠다고 말하고 지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볼 때, 지소가 집을 나온 이유를 대포에게 일러바치듯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정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제발"을 여러 번 반복해 말하므로, 간절함과 초조함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정현과 지소는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으므로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39 'S# 85'에서 정현과 지소는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정현과 지소는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지소와 정현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두 인물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심리적 갈등은 곧 내적 갈등을 의미하므로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집 없이 승합차에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과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된 갈등 양상은 아니다.

40 지소가 월리를 훔친 이유는 사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구해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이다. 지소는 그동안 집이 없이 승합차에서 사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생일이 다가오자 생일 파티를 할 집이 없다는 불만이 크게 터져나온 것이다.

41 대포는 자신의 딸이 좋아했던 장난감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는 딸에 대한 대포의 사랑을 의미한다. 대포는 장난감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소에게 해 주어 지소가 아빠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포의 지시문에서 '장난감을 주머니에 넣으며'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소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오답 풀이** ①, ③ 지소는 대포에게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라며 쏘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아빠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대포에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딸이 좋아했던 장난감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에서 딸에 대한 대포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대포는 딸을 보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딸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S# 86'에서 대포는 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지소에게 말하면서 세상의 아빠들은 모두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지소가 아빠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해 준다.

오답 풀이 ① 대포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정착하여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볼 수 없다.

- ② 대포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대포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이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대포는 개인적 사정으로 딸이 보고 싶어도 가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른들의 세계를 알려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 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아빠들이 같다는 것을 알려 주므로, 가족 관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43 대포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언급하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사는 부족이 있는데, 자신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 부족은 '모켄족'이다.

44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런다?"라는 대포의 말에, 지소가 자신의 아빠도 그럴지를 물으며 울먹이고 있다. 이로 보아, 지소가 아빠도 자신이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본다는 대포의 말을 듣고 지소는 아빠가 더욱 보고 싶은 심정이므로, 아빠를 원망하거나 아빠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지소가 아빠와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라는 말은 아빠도 자신을 보고 싶어 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외로움보다는 짙은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45 'S# 89'에서 지소는 '애써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있으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본다는 해설이 있으므로, 지소 역시 엄마를 담당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석은 울먹이며 엄마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으므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정현이 가쁜 숨을 내쉬며 달려오는 장면으로 보아, 아이들을 찾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 ③ 지석이 엄마도 아빠처럼 그냥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데서 알 수 있다.
- ⑤ 지석은 누나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간 거 아니냐고 지소에게 말하고 있다.

46 'S# 89'에서 지소는 아빠의 글을 통해 정현이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차에서 지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엄마와 화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정현과 화해를 하는 장면이므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가출로 인한 위기가 해소되고 있다.
- ② 정현은 분노하기보다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아빠의 가출은 이 장면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 ⑤ 정현은 지소를 안아 주고 지소는 정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진다.

47 지소는 아빠의 글을 읽은 뒤에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과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정현이 일주일만 참자고 말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소는 정현을 이해하

게 되므로, 아빠의 글이 정현과 지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아빠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정현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소의 학교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빠가 나타날까 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49 구두 상자에 적힌 아빠의 글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유(C.U.)를 적용하고, 이 부분을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아빠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내레이션(Nar.)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인서트(Ins.)는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다.

③ O.L.은 두 개의 화면을 겹치게 하는 것이다.

④ F.O.은 화면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이다.

50 ㉠은 지소와 정현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세 사람이 서로를 꺼안고 있는 상황의 공간적 배경이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를 별빛이 내리비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배경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①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이므로, 결말 암시와는 거리가 있다.

③, ⑤ 밤하늘의 별빛이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상황에서의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강조하므로 외롭거나 어두운 심정, 또는 비극적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위기가 예고되는 것은 아니다.

51 ㉠에서는 지소의 내레이션을 통해 ‘집’에 대한 지소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생각의 변화를 알려 주는 것으로, 사건의 빠른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

③ 지소 자신의 깨달음을 직접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지소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행동의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⑤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전달하고 있다.

52 지소는 개를 훔친 뒤에 개를 찾는 전단이 붙으면 개를 데려다 주고 사례금을 받아 집을 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에서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지우고 있으므로, 지소가 돈을 받았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3 지소는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 개를 훔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생일 파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곧 월리를 돌려줄 것과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아 반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지소의 친구가 채량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집을 구할 계획을 접었으므로, 월리를 사례금을 받지 않고 돌려줄 것이다. 또한 ‘S# 84’에서 노부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③, ⑤ 지소는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과 함께 있는 공간이 곧 행복한 공간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④ 지소의 내레이션을 통해, 집과 가족에 대한 지소의 생각 변화를 알 수 있고, 생일 파티를 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그 같은 깨달음에서 얻은 판단이다.

54 이 글에서 대포는 지소에게 의지가 되어 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조용하고 묵묵하게 지소를 도와주는 인물이다. 대포는 지소가 월리를 훔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소를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며 적절한 조언을 해 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포는 지소가 집을 구하기 위해 월리를 훔쳤다는 것은 모르고 있으므로, 집을 구해야 한다는 지소의 의지를 북돋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5 대포가 지소에게 건넨 것은 월리의 이름표이다. 또한 월리의 이름표에는 월리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윤서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대포는 지소가 월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대포와 마르셀에 오기 전에 이미 지소는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② 월리는 지소가 데리고 있는 상태이다.

③ 월리는 지소가 훔친 개이므로 지소는 월리와 관련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④ 지소도 이미 월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56 지소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은 월리가 자신의 개가 아닌 것을 대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57 월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주인인 노부인이고, 지소가 기다리는 사람은 갑자기 집을 나간 아빠이다. 따라서 ㉠은 노부인, ㉡은 아빠이다.

58 이 글에서 지소는 사례금을 받아서 집을 구해 생일 파티를 하려는 계획을 접고 월리를 노부인에게 돌려준다.

59 [A]의 내레이션에서는 지소가 자신의 지난 사연을 노부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 내레이션 속 정보는 이미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새로운 정보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지소가 노부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된다.

② 노부인에게 들려주는 많은 내용을 압축하여 짧게 처리하고 있다.

④ 지소의 내레이션은 관객에게 직접 고백하는 것과 같다.

⑤ 영상 속에 지소는 노부인에게 지난 사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소가 말하는 목소리는 지소의 내레이션으로 영상 속에서 말하는 내용을 간략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지소의 영상 속 행동과 음향으로 들려오는 대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60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훔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므로,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이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생일 파티는 앞부분에서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한 내용이다.
 ② 월리를 돌려주는 일도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노부인에게 월리를 데려다 준 것이다.
 ④ 아빠 없이 외롭게 지내는 일은 해낸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며, 노부인과 대화하는 상황으로 보아 주된 내용도 아니다.
 ⑤ 월리를 돌려주기 위해 노부인을 찾아간 것이므로, 이미 앞선 상황이다.

61 ⑥의 노부인은 월리가 목줄을 풀어 주면 좋아한다는 것을 지소가 어떻게 아는지 묻고 있는데, 이는 지소가 월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다소 의아하거나 궁금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월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보아 월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노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지소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행동이다.
 ④ 지소가 월리를 훔쳤다는 말에 “뭐?”라며 반응하는 것은 뜻밖의 말에 놀랐기 때문이다.
 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지소의 행동과 심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함을 나타내며,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지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이다.

62 ‘S# 98’~‘S# 100’에서는 노부인이 지소를 용서해 주고 지소와 정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긴장감이 해소되며 사건이 해결되는 결말 부분이다.

63 ‘S# 98’은 노부인에게 용서를 받는 장면이며, ‘S# 100’은 정현에게 생일 선물을 받는 장면이다. ‘S# 98’에서 노부인은 월리를 산책시켜 주겠다는 말로 지소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인에게 다시 용서를 구해 본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지소는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려고 할 때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은 집은 없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다.
 ②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소는 월리가 집에 가서 노부인과 함께 사는 지금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 지소는 엄마 정현이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선물하며 축하해 주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⑤ 지소는 월리를 돌려줌으로써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에게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을 선물로 받아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64 ‘S# 100’에서 정현이 지소의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한다는 쪽지와 함께 정성껏 꾸민 도시락을 선물로 지소에게 주고 있고, 이에 지소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도시락’은 정현과 지소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65 노부인이 지소가 월리를 훔쳤던 사실을 알고도 월리를 산책시켜 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지소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산책만을 부탁하고 있다.
 ③ 노부인이 월리의 새 주인을 구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지소가 월리를 훔친 사실을 노부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할 이유는 없다.
 ⑤ 아이스크림은 산책시켜 주는 대가이므로 빗값을 무는 것은 아니다.

66 작은 쪽지 안의 글씨이므로 시유(C.U.)를 적용하여 관객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효과음을 말하는 것으로 장면에 실감을 더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③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이다.
 ④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인서트는 다른 화면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으로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하는 화면을 말한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72쪽

01 ④ 02 ⑤ 03 ③

01 이 글은 희곡이므로, 시나리오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극 갈래라는 갈래상의 공통점을 지닌다. 극 갈래는 대사와 해설, 지시문으로 구성된다.

- 오답 풀이** ①, ③, ⑤ 시나리오의 특성이다.
 ② 희곡의 특성이다.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02 넥타이는 남자를 부유하게 보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기자 여자는 그 이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하며, 남자가 다시 넥타이를 관객에게 빌렸을 때에는 남자의 부유함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남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결혼하기 위해 넥타이를 빌려 부자인 척하려는 것이다. 넥타이는 빌린 물건으로 인간이 소유하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재물에 대한 남자의 소유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여자는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긴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실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아직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④ 남자는 관객에게 다른 넥타이를 빌려 여자의 호감을 사고 있으므로, 허세가 탄로 난 것으로 볼 수 없다.

03 이 글의 등장인물인 ‘남자’는 관객적으로 걸어가 남성 관객 앞에 앉아 말을 건네고 넥타이를 빌린다. 이 장면을 영화화하면 화면 속의 인물이 영화 관객이 있는 객석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은 영화로 제작할 때 형상화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남편이 돌아온다고 약속한 시간이다. 08 ④ 09 ④ 10 <보기>에서 지소는 개를 훔친 뒤 그 사례금을 받아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집'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지소는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승합차에서 살게 된 것임을 알게 되므로, (다)에서의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11 ⑤ 12 ⑤ 13 ④ 14 ②

01 (가)에서 박 이사가 별말 없이 수영에게서 월리를 받아 차 트렁크에 넣은 것과 "인감은?"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미리 월리와 인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포가 월리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지소가 훔친 개라는 단서가 있지는 않아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지소는 월리를 훔치려고 하는 것이다.

③ 노부인은 월리가 제 발로 나갔으며,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월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④ 채량이 아니라 지소가 박 이사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며 의심적 어하고 있다.

02 <보기>는 (다)의 일부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각색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사용하면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등의 모든 것을 파악하며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관점에서 사건을 전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소와 노부인, 수영은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② (다)에 담긴 인물의 대사는 <보기>에서 큰따옴표로 직접 인용되고 있다.

③ (다)의 지시문 중, '수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소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내용은 <보기>에서 "월리가 맞아?" 하는 수영의 대사 다음에 붙어서 소설의 서술 방식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⑤ '긴장하는 마음, 당황했지만, 초조하게, 반가워할 것이라는 지소의 기대' 등 인물의 속마음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서술되고 있다.

03 ㉠에서 대포는 지소에게 개를 왜 폐가에 보관하는지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지소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례금을 받을 때까지 남들이 모르게 월리를 데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포에게 돌려대기 위해 한 말이다.

②, ③, ④ 지소가 월리를 폐가에 둔 이유와는 관계가 없다.

04 ㉠은 월리를 본 장소를 거짓으로 둘러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시문이다. 지소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하고 있으므로 '사이를 두고'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월리를 차 트렁크에 넣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② 몰래 숨겨 놓은 월리를 대포에게 들려서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개라고 계속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적절한 지시문이다.

③ 대포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가서 더 크게 말하고 있다.

⑤ 노부인이 개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만 전단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지소는 노부인의 생각을 돌려놓기 위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05 이 글은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에서 내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목소리만으로 사건이나 줄거리를 해설하는 것으로, 때로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심리는 주로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지시문을 통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시나리오에는 사건이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②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만들어질 것이므로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 등을 통해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⑤ 시나리오는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소설과 달리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직접 전개된다.

06 (다)의 아빠의 글에는 아빠가 자신이 남편과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괴로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아빠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소가 (다)에서 아빠와 엄마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지소와 정현은 집이 없어 승합차에서 사는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으므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② (가)에서 지소는 승합차에서 생활하며 만날 일주일만 참으라고 하는 정현에게 불만을 터뜨리는데, (다)에서 지소가 아빠의 글을 통해 정현이 아빠를 기다리느라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어 정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므로 (가)에서의 정현과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③ (나)에서 지소는 세상 아빠들은 모두 딸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한다는 대포의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게 됨으로써 아빠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⑤ (라)에서 지소는 아빠를 기다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월리를 기다리는 노부인을 생각하고 월리에게도 자신과 같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월리를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갈등이 종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07 ㉠으로 보아 엄마 정현이 아이들에게 승합차에서 사는 것을 일주일만 참아 달라고 줄곧 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에서 아빠가 정현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 돌아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따라서 ㉠은 결국 남편이 돌아온다고 약속한 시간이며, 정현이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08 대포는 떠돌아다니며 살지만 자기에게도 딸이 있으며 그 딸이 무척 보고 싶다고 지소에게 말한다. 많이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온다고 말하는 대포의 이야기를 들은 지소는 고개를 숙이며 아빠를 떠올리고 있다. 대포의 딸에 대한 사랑을 느낀 지소는 대포에게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라고 말하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09 노부인은 지소와 대화하며 차분하게 지소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월리와 노부인의 아들에 대한 사연을 듣고 전단을 뒤로 감추는데, 이는 월리를 데려다주고 사례금을 받겠다는 처음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심경의 변화로 이어지므로, 세심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② 아빠의 글을 읽는 지소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실제 음향 효과로 아빠의 목소리를 넣는 것이 아빠의 상황과 심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③ 공책, 연필 등의 소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내레이션은 대사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녹음을 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⑤ 촬영 시간이 밤이고, 승합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조명이나 카메라, 인물의 위치 등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

10 <보기>에서 지소는 월리를 이용하여 사례금을 받고 집을 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지소는 그 집에서 멋진 생일 파티를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 정현이 아빠를 기다리기 위해 승합차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지소가 (다)의 내레이션에서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지소는 집을 돈으로 얻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며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11 ㉠는 지소가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이므로 이때의 눈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다. 반면 ㉡는 지소가 정현에게서 생일 선물로 도시락을 받은 상황이므로, 이때의 눈물은 엄마의 정성과 사랑에 대해 감동해서 쏟는 눈물이다.

오답 풀이 ① ㉠는 노부인의 말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에서 자책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

② ㉠는 후회의 눈물일 수 있으나, ㉡가 정현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다.

③ ㉠에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 반성의 감정은 아니다.

④ ㉠는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이므로 설움의 감정이 들 수 없고, ㉡는 선물을 받은 상황이므로 후회의 감정이 드는 것은 더욱더 적절하지 않다.

12 이 시나리오에는 순진한 어린아이인 지소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애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빠가 사라져서 지소에게 집이 없어지는 등의 고난이 온 것은 맞지만,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도 아빠는 여전히 부재의 상태이므로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생일 파티를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개를 훔친다는 발상이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는 아니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정현의 속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판단이나 사고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④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도 정신적 성장의 한 단면이다.

13 ㉠의 ‘목줄’은 노부인과 월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재는 아니며, 단순히 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도구일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월리의 이름표에 윤서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지소는 아빠의 글을 읽은 뒤 엄마 정현이 차에서 살며 동네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다.

③ 개를 찾는다는 전단은 지소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제가 된다.

⑤ 지소의 생일에 정현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은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14 ㉠는 ‘S# 66’의 장면이 중간에 들어오게 연출해야 하므로, 인서트(Ins.)가 적절하고, ㉡는 지소가 공책에 적은 글을 순서대로 보다가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시유(C.U.)가 적절하다.

(4) 한 그루 나무처럼

본문 확인문제



본문 078~080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우주 나무
07 ⑤ **08** ② **09** ③ **10**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01 이 글은 수필로, 수필은 글쓰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과 성찰의 내용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는 갈래이다.

오답 풀이 ① 시와 같은 운문 문학의 특징이다.

② 수필은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갈래이다.

③ 대사와 지시문은 극 갈래의 특징이다.

⑤ 수필의 서술자는 글쓴이인 ‘나’로서 작품 속에 등장한다.

02 (가)에서 글쓴이는 산에 오르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가 말하는 장점으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 글쓴이는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산에 오르는 동행과 더욱 친밀해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은 대못을 빼낼 도구가 없어 그대로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의미로, 나무를 아프게 한 것은 글쓴이가 한 일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 자신이 산행을 계속해 왔음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경험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느 날 우연히 참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 것은 글쓴이가 의미 있는 대상을 발견한 것이다.

③ 글쓴이는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며 참나무에서도 대못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④ 누군가 바가지를 걸기 위해 박은 것 같으며 못의 용도를 추측하고 있다.

04 이 글은 수필로서, 참나무에 얽힌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체험적, 성찰적, 사색적, 고백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서사적 성격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으로서, 이 수필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05 (다)의 후반부에서 글쓴이는 참나무를 의인화하여, 나무가 마치 글쓴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나무를 위안의 존재로 그리고 있을 뿐,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다)에는 시간에 따른 참나무의 변화 모습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다)에서는 참나무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사물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다)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06 (라)에 따르면 ‘우주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이며,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에서 글쓴이와 인연을 맺은 참나무를 글쓴이는 자신의 우주 나무로 삼고 있다.

07 글쓴이가 ㉠와 같이 믿게 된 것은 글쓴이가 편찮으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나무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즉, 글쓴이는 나무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을 수는 없다.
 ② 나무가 계절에 상관없이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실제로 나무가 말해 준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나무가 위로의 말을 해 준 것처럼 느낀 것이며, 이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을 나무에 빈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④ 나무에 천들이 감겨 있다는 것 때문에 글쓴이가 나무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이유는 없다.

08 이 글의 글쓴이는 참나무의 대못을 빼 준 이후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교감을 나눈 경험을 통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산행은 과거에만 행한 경험이 아니라, 글쓴이에게는 계속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자신과 나무를 비교할 뿐,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과 자연물의 속성을 비교하는 내용은 없다.
 ④ 인간 문명에 대한 글쓴이의 의식이나 의견은 드러나지 않으며, 참나무를 통해 인간 문명을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다.
 ⑤ 나무에서 얻은 개인적인 성찰을 담고 있을 뿐이다.

09 (사)에서 글쓴이는 햇빛은 나무를 통해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상처를 받게 되면 남을 많이 원망했던 것,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 속에서 바뀐 마음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10 〈보기〉의 나무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아)에서도 역시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며 〈보기〉와 유사한 관점을 지닌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이양하, 「나무」

주제: 나무가 지닌 덕(德)

감상: 이 글은 나무를 의인화하여 성자나 철학자와 같은 나무의 덕을 예찬하고 나무를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081~082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가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기 때문이다. **07 ②**

01 이 글은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교훈적, 이념적 내용 또는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 등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글이다. 이와 같은 글은 일상의 소재를 취해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룬다.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대한 통찰을 담아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는 것은 시나리오나 희곡과 같은 극갈래의 특성에 해당한다.

02 ㉠은 산에 있는 여러 사물 중에서 글쓴이의 눈에 들어온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된 대상이다. 한편 〈보기〉의 ‘꽃’ 역시 화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된 대상이다. 이 시에서 ‘꽃’은 화자가 이름을 불러 주어서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 오답 풀이** ① ‘그’는 인식의 대상이다.
 ② 하나의 ‘몸짓’은 대상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이므로, 아직 인식되지 않은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
 ④ ‘빛깔과 향기’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⑤ ‘나’는 인식의 주체이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김춘수, 「꽃」

주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감상: 이 시는 ‘꽃’을 제재로 하여, 대상의 의미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꽃은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관념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03 ㉠에서 글쓴이가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무를 보러 산에 올라가곤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무가 글쓴이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 ‘나’가 산행을 혼자 하게 된 동기로, 산행의 동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는 산행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일 뿐, 산행의 어려움이나 보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③ ㉢는 대못이 박힌 이유를 글쓴이가 추측하여 제시한 부분이다.
 ⑤ ㉤는 글쓴이가 일상 속에서 나무에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04 (라)에는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기 전의 모습이 나타난다. 글쓴이는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렸던 모습, 상처를 받게 되면 남을 많이 원망했던 모습,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에서 글쓴이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글쓴이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내면화하는 것은 글쓰기 과정의 내용 표현하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글을 읽은 독자가 감동이나 교훈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글에 대한 감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06 (가)로 보아,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주 나무라고 하며, 글쓴이가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몸이 편찮아지시자 글쓴이는 자신의 우주 나무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빈 것이다.

07 ㉠에 담긴 삶의 태도는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과 관계가 있다.

오답 풀이 ①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무념무상(無念無想)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을 떠난 상태를 말한다.

④ 인생무상(人生無常)은 인생이 덧없음을 말한다.

⑤ 권토중래(捲土重來)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대단원 평가

본문 083~087쪽

- 01** ① **02** ④ **03** ① **04** ① **05** ③ **06** ③ **07** ③
08 ‘나’와 지소는 모두 미성숙한 어린아이이지만, ‘나’는 할머니와 화해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엄마와 화해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모두 정신적 성장(성숙)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변화를 보인다. **09** ③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④ **16** ①

01 이 시의 각 연은 화자가 떠올리는 각각의 독립된 장면을 담고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사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이 시는 고향의 여러 모습들을 독립된 장면으로 각 연에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③ 이 시는 ‘~는/~던 곳’과 같은 문장 구조나 후렴구의 반복 및 규칙적 배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 등의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질화로, 짚베개’ 등의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02 〈보기〉는 줄글 형태의 산문시로서,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보기〉와 달리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내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고향을 떠난 화자가 고향 마을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이 창작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로 사상을 전달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 어린 화자로 볼 수 없다.

③ 이 시는 후렴구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지만, 〈보기〉는 겉으로 드러난 운율은 찾을 수 없다. 반면 유년 시절을 고백하는 화자의 차분한 어조를 통해 내재율이 느껴진다.

⑤ 〈보기〉 역시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주제: 유년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감상: 이 시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어린 시절의 뒷마루에 얹힌 추억과 자신에게 주었던 외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보기〉는 시어가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에서 ㉠의 ‘게으른’은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을 지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시적 내용을 나타내기보다는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는 표현을 통해 한가로운 고향의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내용을 의미 그대로 전달한다.

③ ㉢은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향한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을 의미한다.

④ ㉣은 햇살이 따갑다는 촉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⑤ ㉤은 가난한 집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04 〈보기 1〉의 핵심 내용은 정지용의 시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며, 향토적 정서를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ㄱ은 세련된 언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이고, ㄴ은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한 시의 특징에 대한 감상이다.

오답 풀이 ㄷ, ‘화살’은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나타내고 ‘모래성’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소재로서, 향토적 정서를 보여 주는 소재는 아니다.

ㄹ, ‘열은 졸음에 겨운’과 ‘사철 발 벗은 아내’는 대상을 섬세한 이미지로 신비롭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대상의 사실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표현이다.

05 (가)~(다)는 소설, (라)~(바)는 시나리오로서, 둘 다 서사 문학에 속한다. 소설이나 시나리오 모두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하강) - 결말(대단원)’과 같은 방식의 일정한 서사 구조로 사건이 전개되며, ‘갈등의 발생 - 갈등의 고조 - 갈등의 해결’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이나 묘사에 의해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주로 소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 ② 등장인물의 대사와 해설, 지시문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 ④ 작중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의 특징이다.
- ⑤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고백적, 성찰적으로 서술하는 갈래는 수필이다.

06 (가)는 주로 서술자에 의한 직접적 서술 방식(말하기)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보기>는 (가)를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하여 사건을 전달하는 간접적 서술 방식(보여 주기)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보기>의 경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곧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 중심으로 서술하면 직접적 서술보다 분량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사건 전개 속도도 느려진다.
- ② 대화나 행동을 통해 심리를 짐작해야 하므로 심리 파악이 더 용이한 것은 아니다.
- ④ 독자 입장에서는 상상력을 더 발휘해야 하므로, 작품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진다.
- ⑤ 간접적 서술 방식은 서술자의 개입보다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서술자의 해설적 서술이 적어지므로 사건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07 (가)에서 할머니가 졸도하자 식구들은 주변을 둘러싼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색이 되어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어찌 할 도리나 방책이 없어 꼼짝 못함.’을 의미하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수방관(袖手傍觀)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이다.
- ④ 혼비백산(魂飛魄散)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매우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허허실실(虛虛實實)은 허를 찌르고 실을 꺾는 계책을 말한다.

08 (가)~(다)의 ‘나’와 (라)~(바)의 지소의 공통점은 둘 다 어린아이라는 것이며, 작품의 결말에서 ‘나’는 할머니와 화해를 하고,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엄마와 화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와 지소는 모두 정신적인 성장(성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나’와 지소가 어린아이이며, 다른 인물과의 화해 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공통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와 지소가 어린아이라는 점, 다른 인물과의 화해 과정,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점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다른 인물과의 화해의 과정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내용 없이, ‘나’와 지소가 어린아이라는 공통점만을 서술하였다.	하

09 (마)에서 노부인은 지소의 사연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지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준엄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돈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사유(C.U.)라고 지시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지소가 노부인에게 월리를 훔쳤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워져 말을 바로 잊지 못하고 있으므로, 머뭇거리는 모습의 섬세한 연기가 필요하다.
- ④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실재와 같은 소리가 나도록 하여 사실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지소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란다는 지시문이 있었고, 정현의 선물에 대해 감동을 받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10 지소가 월리를 돌려주고 개를 훔친 사실을 고백한 것은 집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하겠다는 처음의 생각이 무산되었지만, 지소는 이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바)에서 지소가 승합차 안에서 생일을 맞았음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 집도 잃게 되고 차에서 살게 됨으로써 주인공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다.
- ② 차에서 살게 되어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생겼다.
- ③ 지소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개를 훔쳐 사례금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 ④ 지소는 개를 훔쳐 사례금을 받는다는 계획을 실행하였으나 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의 개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례금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에 변화가 생긴다.

11 ㉠은 관객에게 지소에게 일어난 내면의 변화, 즉 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을 직접 말하고 있고, ㉡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곧 집을 잃고 차에서 살며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개를 훔치게 된 사연 등을 압축하여 나타내어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 돈을 받는다는 부분을 지운 이유를 알려 주는 부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는 과정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요약적 진술은 ㉡에만 해당한다.
- ③ ㉠은 월리의 사례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려 주지만, ㉡는 아직 작품이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 ④ ㉠은 현재 지소의 집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며, ㉡는 상황을 압축하여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

12 (바)의 ‘도시락’은 정현이 지소에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해 정성껏 꾸민 것으로, 지소에 대한 정현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의 ‘호박전과 고사리나물’ 역시 할머니가 아들이 오면 배불리 먹이기 위해 직접 장만한 음식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참빗’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다.
- ③ ‘불씨’는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한 소재이다.
- ④ ‘감나무’는 구렁이가 있는 곳이다.
- ⑤ ‘손’은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13 <보기>는 시이고, (가)~(다)는 소설이다. <보기>에서 ‘나’는 여승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므로, 소설로 만들 경우 주인공은 여인이며, ‘나’는 여인을 관찰하는 서술자로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관찰자로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여승이 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인공은 여인이며, 그의 삶을 오랜 시간 지켜본 ‘나’를 서술자로 내세우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보기>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2연에 평안도 금담판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평안도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의 삶을 보여 주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나’는 현재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하면서 여인과 만났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3연에서 여인의 지아비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여인의 삶은 본격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어린 딸이 죽은 일로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를 소설의 갈등 전개 과정에 적용하여 위기 단계와 절정 단계로 구성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백석, 「여승」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일제에 의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

감상: 이 시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4 이 글에서 글쓴이는 햇빛은 나무를 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토대로 강연 주제를 정한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자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희생하는 삶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했으나, 순수함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5 이 글의 글쓴이는 참나무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겪지만, 복숭아나무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참나무’, <보기>는 ‘복숭아나무’가 중심 소재이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겉모습은 변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참나무의 모습에서 굳건한 삶의 자세라는 교훈을 얻고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는 복숭아나무의 속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함을 깨닫고 있다.

③ 이 글은 참나무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발견한 것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고, <보기>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다.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시간이 흘러 햇빛은 나무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고, <보기>의 화자는 멀리멀리 지나치는 과정이 지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감상: 이 시는 복숭아나무를 멀리 지나치기만 하던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게 되고, 이후 복숭아나무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과정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자아의 성숙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 ①의 ‘우주 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정읍사」의 ‘달’ 역시 행상을 나간 남편이 밤길에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달에게 위탁하여 기원하고 있으므로 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기파랑의 높은 인격과 기상을 ‘달’의 모습에서 발견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달’은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를 의미한다.

③ 화자가 죽어 사랑하는 임 계신 창 안을 환하게 비치는 ‘달’이 되고자 하므로, 여기서 ‘달’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동짓달은 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이 시가의 계절 및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⑤ 무심한 달빛은 욕심 없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세의 물욕을 초월한 화자의 삶을 상징한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작자 미상, 「정읍사」**

주제: 남편의 무사 귀환에 대한 기원

감상: 현전하는 백제 유일의 서정 가요로, 행상을 나간 남편이 밤길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② **충당사, 「찬기파랑가」**

주제: 기파랑에 대한 찬양

감상: 충당사가 화랑인 기파랑의 높은 인격을 찬양한 향가로, 기파랑을 ‘달, 냇물, 조약돌, 잣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③ **정철, 「속미인곡」**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감상: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두 여인이 등장하여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한 연인의 애달픈 심정을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사하여 노래하고 있다.

④ **황진이, 「동지스물 기나긴 밤을～」**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감상: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여, 겨울의 긴 밤 시간을 잘라서 이불에 넣었다가 봄에 임이 오면 이불처럼 펴고 자 하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⑤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주제: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

감상: 가을 달밤에 배를 띄워 낚시질로 풍류를 즐기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3. 영킨 삶의 실태를 푸는 지혜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90~095쪽

- 01 ② 02 나인족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08 ③ 09 작업 기억 10 ④ 11 ② 12 세로토닌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② 19 ④ 20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다. 21 ② 22 ④

01 이 글은 스마트폰 중독을 제재로 하여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논설문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설을 세우지 않았고 실험 결과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일상생활 속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념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다루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허구적 인물과 그 인물이 겪는 사건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소설이다.

02 (나)에서 숫자 '9(나인)'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에 매인 '나인'처럼 스마트폰에 엮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나인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하였다.

03 (다)의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이 휴대 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 예측했다고 하였으나, 휴대 전화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나)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 휴대성이 지닌 공간적 측면에서의 장점이라 볼 수 있으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스마트폰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매체이므로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간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킨 (가)의 사례를 참고할 때 스마트폰의 사용이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관한 삶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 1의 소제목과 (마)~(사)를 살펴보면 요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내용에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삶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없다.
②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필수적 사용을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③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함을 드러내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성인과 비교하고 있을 뿐, 연령대별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다르다는 내용은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와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05 (바)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들며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ㄴ.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ㄹ. 청소년들이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은 일종의 현상일 뿐,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06 글쓴이는 ㉠에서 하루 세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비율을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과는 관련성이 낮다.
②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③ 하루에 세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위험성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바)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07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8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를 보면, 고위험군은 2011년 2.2%, 2012년 2.7%, 2013년 2.4%, 2014년 3.3%, 2015년 4.0%로, 2013년에 잠깐 주춤하였으나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중 고위험군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를 참고로 할 때 고위험군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4.0%인 데 비해 성인은 2.1%이고, 잠재적 위험군에서도 청소년의 비율이 27.6%인 데 비해 성인은 11.4%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를 참고로 할 때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1년 11.4%, 2012년 18.4%, 2013년 25.5%, 2014년 29.2%, 2015년 31.6%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와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는 모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연도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그래프의 2015년 통계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3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09 (아)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써 두뇌의 '작업 기억'이 가득 차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작업 기억은 학습해야 할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관련된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부터 인출하여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정신적 작업 공간을 말한다.

10 스마트폰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 버린다. 이로 인해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고 공부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어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학업 성적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고 주의가 분산되어 능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③, ⑤ 스마트폰 중독이 낳는 신경 정신과적 증상에는 금단 현상,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역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이나, 학업 성적 저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11 (카)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상 세계보다 현실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자)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눈, 목, 손목, 척추 등에 문제를 일으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키)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상 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강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자)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금단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자)를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이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12 (자)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로토닌 분비의 감소는 충동 조절 능력 저하와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13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카)의 누리소통망(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일탈 행동을 저지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스마트폰 중독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줄어들게 하고 이는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데서 인과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등과 같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글쓴이는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며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문맥상 원만한 대인 관계의 형성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에 어긋나는 것이다.

② 가상 세계에 몰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방해한다.

③ 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은 궁극적으로 글쓴이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지만 ㉠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상 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헐뜯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과 거리가 멀다.

15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소재목을 통해 이후 전개될 내용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에 대한 효용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하는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②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본문 1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③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는 ㉠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청소년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양상의 차이는 ㉠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6 (타)의 '지금까지 ~ 살펴보았다.'를 통해 이전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러나 ~ 유용한 도구이다.'를 통해 이전 논의의 방향과는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따라서 ~ 중요하다.'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제가 되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논의의 방향을 서술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 있을까?'를 통해 질문의 형식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17 (파)에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받기를 제시하고 있다.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중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마트폰 중독자들도 이와 같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받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글쓴이가 독자에게 공동으로 실천하기를 권하는 것은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해 준수하기이다.

④ 전문적 상담을 통해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이다.

⑤ 스마트폰 사용 행동 기록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받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18 (거)에서는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식사 시간 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량이 많은 곳, 건널목, 계단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공원 벤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건널목, 육교 계단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자습 시간 교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므로 이 또한 피해야 한다.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가족과의 대화나 식사에 방해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19 (너)에서 글쓴이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하면서도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에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② (하)에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스스로 기록해 보기를 권하고 있다.

③ (거)에서 스마트폰 금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약속을 정하여 공동으로 실천하기를 권하고 있다.

⑤ (너)에서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며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20 (너)의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이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다는 내용에서 누리소통망(SNS)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1 <보기>를 통해 철수 또래의 친구들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적절한 근거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를 든 주장이다.

③ 어느 한쪽의 견해에 치중된 의견으로 볼 수 없다.

④, ⑤ <보기>와 같은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대안으로,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와 관련 지을 수 없다.

22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활용 방식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㉔ 뒤에서 드러내고 있다. 즉 스마트폰이 지니는 양면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에 대해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실태일뿐 스마트폰의 양면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스마트폰의 기능이 사용자에게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스마트폰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단점만 언급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96~097쪽

01 ④ **02** 우리, 없다 **03** ④ **04** ⑤ **05** ⑤ **06** 육류를 즐겨 먹는 수현의 식습관은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07** ⑤

01 (가)에서는 세계 외모 만족도와 한국 청소년들의 신체 왜곡 인지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비율과 육류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물의 비율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주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을 조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나, (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외모에 가치를 많이 두는 사회 풍토라는 사회적 문제만을 언급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2 (가)의 글쓴이는 외모에 가치를 많이 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러한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후천적 노력이 아닌 선천적 외모를 중시하면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의 주제이자 글쓴이가 경계하는 바는 글의 맨 마지막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03 (가)는 한국인의 외모 집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모에 많은 가치를 두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가)는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과 관련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정상 체중인 여학생 중 34.7퍼센트가 자기가 살찐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실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기의 신체를 왜곡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③ 한국인의 외모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였다.

⑤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 있으나, 독일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세계 외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독일의 한 기관이 발표한 것뿐이다.

04 ㉠~㉣은 각각 학교, 대중 매체, 사회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상 토의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한국 청소년들은 자기의 신체를 왜곡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으므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은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 낸 현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등과 같은 법안을 정작해 외모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대중 매체와 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용하지만, 외모의 가치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긍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올바른 몸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이며, 외모를 개그의 소재로 삼아 희화화하는 것과 외모를 중시하는 표현을 삼가는 일은 외모 지상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므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모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한다.

05 (나)의 글쓴이는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⑤의 근거를 들어 제시된 삶의 문제를 파악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사육 동물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로 범벅이 된 사료를 먹고 있다고 하였다.

②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의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 원인의 18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③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고기를 더 빨리 얻으려고 사육 동물들에게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힌다고 하였다.

④ 육류의 대량 소비에 맞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평생 자기 배설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사육 동물을 가두어 기르면서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혀, 결과적으로 이런 불량 상품을 먹는 사람의 몸도 불량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06 (나)에서 환경 문제의 관점에서 본 육류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과, 2025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 소고기 1킬로그램 생산에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육류를 즐겨 먹는 수현의 식습관은 사육 동물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07 (나)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채식주의자의 삶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육류를 먹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육류 섭취를 포기하고 채식주의자의 삶의 태도를 따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류 섭취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오답 풀이 ① 고른 영양 섭취는 (나)의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②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에서 항생제로 범벅인 사료와 각종 호르몬 주사를 맞혀 생산하는 육류를 불량 상품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불량 상품의 생산을 멈추자는 것은 (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③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육류 섭취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④ (나)에서 육류의 생산 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소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은 이 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소단원 평가

본문 098~099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③ **07**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두뇌에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를 삶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활용 용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도 않았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성인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의 두 얼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과 같은 소재목을 통해 이후 전개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한국 정보화 진흥원'과 같은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 자료 등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02 (가)는 이 글의 도입부로, 한 청소년의 사례를 제시하여 스마트폰의 유용함과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스마트폰이 가진 양면성을 보여 주며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앞으로 전개될 글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청소년의 고단한 삶을 드러낸다는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와 관련이 없다.

②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의 유용함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03 (나)에서는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라고 서술하며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는 (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성인보다 더 높다는 것은 ①의 실태일 뿐, 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③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무계획적으로 행동하는지의 여부는 (나)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청소년 열 명 중 세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하였으므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내용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4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역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건강과 인간관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근묵자흑(近墨者黑)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⑤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05 연도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은 작아지고 있다. 증가폭이 작아진 것은 스마트폰 중독자의 증가율이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스마트폰 중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전체 청소년의 27.6%가 잠재적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유아·아동, 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10명 중 약 3명의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②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자료를 통해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 및 아동의 비율이 10.7%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0명 중 1명꼴이다.

④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은 2011년에는 11.4%였고,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3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라고 평가하는 ③이 타당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기록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④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줄임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는 것은 관련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07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내성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2) 음악실 사용에 대한 협상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01~104쪽

01 ① **02** ⑤ **03** 음악실 사용 시간 **04** ① **05** ②
06 ③ **07** ④ **08** ㉠, ㉡ **09** ⑤ **10** ② **11** 월요일
부터 목요일,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원래 밴드 동아리가 연습하던 한 시간을 양보하였다. **12** ① **13** ③ **14** ⑤ **15** ③

01 ‘협상 배경’과 정연과 재민의 발화를 통해 교내 합창 대회는 보름 뒤에 열리고,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내 합창 대회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뒤에 열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재민은 3반 반장으로 반을 대표하여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연은 밴드 동아리 회장으로 동아리를 대표하여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③ 정연은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정연은 대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방과 후에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재민은 ‘너희 동아리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지만’이라며 밴드 동아리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한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본인이 양보할 수 있는 바를 숨기는 것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함께 협상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 및 양보 지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참여하려는 태도는 전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이다.

②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③ 협상 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다.

④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통해 유연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이다.

03 협상 배경을 보면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는 음악실 사용 시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협상은 일반적으로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 확인 및 자신의 요구 사항 전달하기가,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요구 사항 이해하기가, 해결 단계에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하기가 이루어진다.

05 재민은 반 친구들이 직접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연주할 것이기 때문에 악기와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음악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연은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고 악기와 장비들을 옮기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음악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음악실에 갖추어진 악기와 음향 시설 때문에 음악실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재민이 내세운 근거이다.

③ 음악실의 청소 상태 때문에 재민과 정연이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음악실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담화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음악실에서만 늦은 시간까지 연습이 가능한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06 정연은 재민의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보다 보름 뒤에 열릴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라는 말에 교내 대회와 외부 대회는 다르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연의 반응은 재민의 이전 발화 내용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뿐, 평소 재민네 반의 음악실 사용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흥분한 목소리’는 언어적 표현에 수반된 준언어적 표현이다.

② 재민의 이전 발화 중 대회 개최 시기를 근거로 밴드 경연 대회보다 교내 합창 대회가 더 급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표현이다.

④ 협상 도중 흥분한 상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공적 협상을 방해하는 좋지 않은 태도이다.

⑤ 정연은 학교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한다는 점, 항상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 청소를 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07 ㉠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이에 비해 ㉡는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과 ‘네 말을 듣고 보니, ~힘들겠다’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함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언어적 표현만을, ㉡는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② ㉠과 ㉡는 감정적 대응은 의사소통의 목적 달성과 주제 전달을 방해하는 발화이다.

③ ㉡는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는 발화일 뿐 상대방의 대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미의 발화는 아니다.

⑤ ㉡는 우호적인 자세가 반영된 발화이지만, ㉠은 그렇지 않다.

08 이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대안 제시와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 나가고 있다(㉠). 협상의 조정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민과 정연이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이 필요한 처지임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재민은 상대방의 연민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급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정연도 재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대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09 ㉠ 앞에서 재민은 정연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정연의 말 속에 담긴 뜻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민에게 정연은 자신의 발화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알고 ㉡를 통해 사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재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② 서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으므로 재민 쪽의 양보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③ 겸손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양보를 더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④ 원하는 바가 서로 충돌하여 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수록 타협을 통해 조정이 되고 있다.

10 ㉡ 다음에 이어지는 재민의 발화를 보면 대회에 나가려면 매번 한 시간씩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30명이 넘는 반 친구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연습 시간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습 시간이 부족하고 연습 대상자의 인원이 너무 많아 연습 시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재민은 원래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인 오후 다섯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음악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상대방의 연습 시간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미리 반 친구들에게 공지한 것이 아니라 정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음악실에서의 연습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 연습 방법의 다양한 변화는 발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앞서 자신이 주장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적절하지 않아 ㉡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앞선 주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11 정연은 “우리는 매일 오후 다섯시부터 연습을 하거든.”이라고 하였다. 재민이 제시한 대안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시부터 한 시간’을 받아들인 것은 정연이 원래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을 재민네 반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해결 단계에서 재민은 정연에게 전자 피아노 대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협상 합의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음악실 사용 시간에 대한 합의 이후 연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재민은 비언어적 표현(‘미소를 지으며’)을 통해 협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③ 재민은 ‘우리 합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 ~ 빌려주는 거야.’와 같이 협상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④ 정연은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⑤ 정연은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줄어든 만큼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서 음악실 청소를 맡아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13 재민네 반은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맡기로 했다. 따라서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날에만 음악실 청소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연주 지도를 받기 위해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② 밴드 동아리에서 재민네 반에 교내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④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6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6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밴드 동아리가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14 재민이 “대신 주말에는 우리가 교실에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너희 동아리에서 전자 피아노를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하였으며, 정연은 밴드 동아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 피아노를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빌려주기로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밴드 동아리의 반주 준비는 이 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② 추후 일정 조정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주말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③ 주말 이들은 재민네 반이 밴드 동아리에게 음악실 사용을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④ 음악실 청소는 정연이 재민에게 부탁한 것이다.

15 이 협상에서 재민과 정연은 음악실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했다. 이러한 결과로 양측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오답 풀이** ① 밴드 동아리 대표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했다거나 봉사 정신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재민과 정연 모두 타당한 조건을 내세우며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특별히 강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④ 이용 시간을 양보하는 대신 이용 장소인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은 재민네 반이고, 밴드 동아리는 이용 시간과 이용 장소를 양보하는 대신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집중 연습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
 ⑤ 이 협상에서는 교내 합창 대회와 교외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의사소통에 오해를 빚은 일이 있었다. 처음부터 교내 대회와 교외 대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협상의 해결과도 관련이 없다.

소단원 평가

본문 105~106쪽

01 ⑤ **02** ④ **03**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니 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③

01 재민과 정연은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협상 과정에서 대화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②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 (고개를 끄덕이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흥분한 목소리로)’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다)에서 재민이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주중에 사 일은 재민네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연이 매일 오후 다섯시부터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재민은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구체화하여 재민네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시부터 여섯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라)에서 정연은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여 수용하고 있다.
 ④ 이 협상은 ‘시작 단계 - 조정 단계 - 해결 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02 ㉔에서 재민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정연이 앞서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따라서 정연이 한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협상은 재민네 반과 밴드 동아리 모두가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하여 갈등을 겪자 그 해결을 위해 열린 것이다. ㉔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② ㉔에서 정연은 지금처럼 동아리 연습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서 사용 시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③ ㉔에서 정연은 흥분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발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협상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⑤ (다)를 보면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이 매일 오후 다섯시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연은 재민의 대안에 ㉔의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동아리 연습 시간을 한 시간 양보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를 통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03 정연은 밴드 동아리가 참가하는 대회의 위상과 음악실 청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로는 협상을 할 수 없으므로 재민은 ㉔에서와 같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의사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있다.

04 (가)에서 재민네 반이 주말에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재민의 대안에 대해, 정연은 오전 열시부터 오후 네시까지 강사님의 연주 지도가 있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 오후 네시 이후에는 음악실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주말 전체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재민은 주말에 음악실을 밴드 동아리에 양보하는 대신 주중에 사 일을 자기네 반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재민은 주말에는 음악실을 밴드 동아리에 양보하여 교실에서라도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자 피아노를 밴드 동아리에게 빌리고자 한다.
 ④ 정연은 밴드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른 공간에서 연습하려면 악기와 전자 장비들을 옮겨야 해서 힘들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⑤ 정연은 그동안 음악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재민네 반과 나눠 쓰게 되면 연습 시간이 줄어드니 밴드 동아리에서 해 왔던 음악실 청소를 재민네 반이 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05 ㉔은 언어적 표현에 수반된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적 태도가 반영된 표현이다. 또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듣기 태도를 반영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데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06 ㉔은 재민이 주말에 음악실 사용을 밴드 동아리에 양보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있는 발화이다. 따라서 조건을 내세우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밴드 동아리 입장에서 그리 어려운 제안이 아니며 정연은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⑤ 서로 얻게 될 이익의 정도를 계산한 것은 아니다.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전문적인 진단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며, 자가 진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안이다. 07 ② 08 ② 09 ② 10 ① 11 ④ 12 재민 - 주중에는 음악실에서, 주말에는 교실에서 합창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 정연 - 음악실 청소 부담을 줄이고, 주말에 음악실에서 집중 연습을 할 수 있게 됨. 13 협상이 결렬되었을 것이며, 음악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밴드 동아리와 재민네 반의 갈등이 계속되었을 것이다. 14 ③ 15 ② 16 ④

01 설의적 표현이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라)의 '우리 청소년들이 ~ 벗어날 수 있을까?'는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어질 내용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 경험히 있을 것이다.'에서 누구나 겪어 보았을 만한 경험을 제시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② (나)의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세계 보건 기구가 발표한 내용을 제시하여 스마트폰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마)에서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하고 스마트폰 누리소통망(SNS)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도파민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것은 맞지만,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는 같은 자극에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기게 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더 많은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뇌의 작업 기억이 가득 차면 기억 공간이 부족해지고, 이는 일의 능률을 떨어지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를 통해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신체에 이상이 생김을 알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은 다른 중독과 같이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를 통해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03 <보기>의 철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과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스마트폰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했을 때의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누리소통망(SNS)에 대한 내용은 <보기>와 거리가 멀다.
④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과제를 해결한 경우이므로, <보기>를 토대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것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글은 삶의 문제로 스마트폰 중독을 다루고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삶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은 드러나 있으나, 개인적인 감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관념적인 대상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념 정의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정적인 상황 설정과 대상의 변화를 열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소설이 아닌 논설문이므로 허구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05 (가)에 제시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통해 스스로 중독 여부를 진단해 보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꺼린 채 중독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자가 진단만으로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다)에서 차량이 많은 곳, 건물목, 계단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이나 수업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후 등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많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기록해 보기를 권하고 있다.
⑤ (라)와 (마)에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지양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하거나 취미 등을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다.

06 <보기>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유용성'과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본다.'라는 대안을 평가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가)의 대안이 유용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가)의 대안이 유용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두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가)의 대안이 유용하며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7 제시된 지문은 협상의 절차 중 '조정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협상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오답 풀이 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③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해결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④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협상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는 조정되고 있다.

08 재민과 정연은 각자 음악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인지하고 있고 상대방도 음악실을 사용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밴드 동아리의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평일 연습이 주말 연습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악기는 이미 음악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협의가 필요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전 협의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은 정연의 말을 들은 재민이 밴드 동아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은 정연의 말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재민이 이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④ ㉠과 ㉡ 앞에서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재민이 ㉠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협상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의 반응을 본 정연이 재민에게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오해가 사라졌다. 즉 ㉠과 ㉡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10 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재민네 받은 음악실에서의 연습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자기 반의 음악실 사용 시간을 최대로 하되, 반 친구들의 일정에도 맞는 음악실 사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연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민이 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자기 반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와 조정 단계로, 협상 참여자들은 음악실 사용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나)는 협상의 해결 단계로, 협상 참여자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대안을 수용하고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할 일이지만, (가)에서는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음악실 사용 문제를 두고 협상 참여자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② (가)에서는 밴드 동아리의 입장과 재민네 반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고, (나)에서는 이들이 합의에 이르고 있다.

③ (가)에서 정연은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재민은 밴드 동아리의 연습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음악실 사용 시간을 잡겠다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나)에서는 협상 참여자 양측이 서로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⑤ (가)에서는 협상의 시작과 조정 단계에서 협상 참여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각자 요구한 바를 들어주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 (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재민네 반이,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밴드 동아리가 합창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재민네 반에 전자 피아노를 빌려주고, 재민네 받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대신 맡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되는 이익을 모두 서술하였다.	상
재민과 정연이 얻게 되는 이익 중 하나만 서술하였다.	하

13 협상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보기〉의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로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음악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협상의 성공 여부와 양측의 갈등의 지속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서술하였다.	상
협상의 성공 여부와 양측의 갈등의 지속 여부에 대한 내용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하였다.	하

14 성인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이유는 어른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스마트폰의 단점을 제시하며 중독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스마트폰의 장점도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삶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므로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글쓴이와는 다른 대안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글쓴이가 언급하지 않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창의적인 대안으로 적절하다.

15 협상을 진행할 때 자신의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양보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목표 점과 최종 양보점을 확실하게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협상 참여자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야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처지 이해와 협상 참여자 간의 양보와 배려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요건이다.

④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대화 상황에 맞게 언어적 표현과 함께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⑤ 협상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되, 자신의 의사소통을 점검 및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16 [A]에서 정연은 밴드 동아리가 대회 준비로 한창 연습 중이라는 것,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방과 후는 물론 주말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연습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음악실 사용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 설명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1) 음운의 변동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14~118쪽

-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 [궁민] ㉠: ㉠
 ㉠: 환경 07 ⑤ 08 ④ 0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 훈니불 ㉠: 형식 ㉠: 실질 14 ④ 15 ④ 16 ⑤ 17 ④
 18 ① 19 4개 20 ⑤ 21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거센소리되기 22 ⑤ 23 ⑤ 24 ④ 25 ⑤ 26 ③ 27 ③
 28 ③ 29 ③ 30 ④

01 이 글에서는 음운 변동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옷’이라는 형태소가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옷’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웁]으로 소리 나지만, ‘옷’이 ‘ㄹ’ 또는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날 때는 ‘옷만[웁만]’, ‘옷놀이[웁노리]’와 같이 [웁]으로 소리 난다. 이를 통해 볼 때 ‘옷’이라는 형태소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다른 형태소와 결합되어 쓰일 때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음운은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

②, ④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교체),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축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탈락),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첨가)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③ ‘옷’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웁]으로 소리 나는 것을 통해 음절의 끝에 쓰이는 받침 ‘ㅈ’은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2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물 : 불’의 ‘ㄹ’과 ‘ㅂ’, ‘달 : 돌’의 ‘ㄴ’과 ‘ㄷ’과 같은 것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② ‘이야기책’에서 형태소는 ‘이야기’, ‘책’이 해당한다.

③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④ 사람들은 각자 목소리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말을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다른데 이것을 음성이라고 한다. 음운은 사람들의 말소리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가리킨다.

03 ‘옷’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웁]으로 소리 나는 반면 ‘옷’이 ‘ㄹ’이나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옷만[웁만]’, ‘옷놀이[웁노리]’처럼 [웁]으로 소리 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에서는 ‘옷’의 ‘ㅈ’에서 바뀐 소리인 ‘ㄷ’이 뒤에 이어지는 ‘ㄹ’이나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 [웁]으로

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ㄷ+ㄹ→ㄴ+ㄹ, ㄷ+ㄴ→ㄴ+ㄴ). ③의 ‘꽃만’의 ‘꽃’은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꼇]으로 소리 나고, 이것이 다시 ‘만’의 ‘ㄹ’과 만나 [꼇만]으로 발음된다(ㄷ+ㄹ→ㄴ+ㄹ). 따라서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달님’은 ‘ㄹ+ㄴ→ㄹ+ㄴ’로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어 [달림]으로 발음된다.

② ‘밖에’는 [바깸]로 연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불고기름’은 [불고기름]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봄이’는 [보미]로 연음되므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04 ㄱ은 받침 ‘ㅂ’이 뒤에 이어지는 ‘ㄹ’의 영향으로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교체이므로 ㉠에 해당한다. ㄴ은 받침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탈락이므로 ㉡에 해당한다. ㄷ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소리 난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축약이므로 ㉢에 해당한다. ㄹ은 원래 없던 ‘ㄴ’ 음이 첨가되어 소리 난다. 이것은 음운 변동 유형 중 첨가이므로 ㉣에 해당한다.

05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따르면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한글 자모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 규정에 따라 ‘히읇’은 [히읇]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16항에 따르면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현실 발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히읇이’, ‘히읇을’과 같이 ‘히읇’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히으시], [히으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들꽃’의 받침 ‘ㅈ’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들꼇]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③ ‘풀숲’의 받침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풀뽣]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④ ‘동녘’의 받침 ‘ㅊ’은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동녁]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⑤ ‘바깥’의 받침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바깸]으로 발음한 것은 맞다.

06 ‘국민’을 실제로 발음할 때에는 [궁민](㉠)으로 소리 난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뒤에 오는 ‘ㅁ’(㉡) 소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운은 그것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

07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보면 받침 ‘ㄱ’, ‘ㅌ’, ‘ㅍ’이 각각 [ㄱ, ㄷ, ㅂ]으로 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② 유음화는 비음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③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④ 된소리되기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08 ‘염려’는 ‘ㄹ’이 앞에 오는 비음인 ‘ㄹ’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서 [염녀]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국물[국물]: ㄱ+ㅁ → ㅇ+ㅁ -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닫는[닫는]: ㄷ+ㄴ → ㄴ+ㄴ -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③ 잡는[잡는]: ㅂ+ㄴ → ㅁ+ㄴ -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ㅂ'이 비음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⑤ 종로[종노]: ㅇ+ㄹ → ㅇ+ㄴ - 앞에 오는 비음 'ㅇ'의 영향으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09 ㉠ '실내'는 'ㄹ+ㄴ → ㄹ+ㄹ'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쳐 [실래]로 발음되며, ㉡ '단란'은 'ㄴ+ㄹ → ㄹ+ㄹ'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쳐 [달란]으로 발음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비음 'ㄴ'이 유음인 'ㄹ'을 만나 'ㄹ'로 변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와 ㉡에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③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10 '물난리'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서 [물랄리]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이다.

오답 풀이 ① 강릉[강능]: 앞에 오는 'ㅇ'의 영향으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② 붙는 → [붙는] → [분는]: 받침 'ㅌ'이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바뀐 뒤에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③ 뒷마당 → [뒀마당] → [뒀마당]: 받침 'ㅌ'이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바뀐 뒤에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④ 죽녹원[죽노권]: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11 <보기>에서 '쫓는'의 음운 변동 과정을 보면 먼저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소리 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바뀐 'ㄷ'은 다시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 과정을 보이는 단어는 '맛네'이다. '맛네'는 [만네] → [만네]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ㄷ')이 일어난 다음 비음화('ㄷ' → '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대통령[대통령]: 비음화('ㄹ' → 'ㄴ')

③ 광한루[광할루]: 유음화('ㄴ' → 'ㄹ')

④ 할는 → [할는] → [할른]: 음절의 끝소리 규칙('ㅌ' → 'ㄹ'), 유음화('ㄴ' → 'ㄹ')

⑤ 막론 → [막논] → [망논]: 비음화('ㄹ' → 'ㄴ'), 비음화('ㄱ' → 'ㅇ')

12 <보기>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는 연음이 일어났을 뿐,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밭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바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해돋이'는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해도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술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 'ㅊ'으로 바뀌어 [소치]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3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홀이불]이 되고, 'ㄴ'이 첨가되어 [홀니불]이 되었다가, 비음화를 거쳐 [홀니불]로 발음된다. 이것은 'ㅌ'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인 '이불'이 결합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14 그림을 보면 'ㅈ, ㅊ'과 'ㅣ'는 소리를 낼 때 혀가 닿는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ㅣ'와 결합하는 모든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ㄷ, ㅌ'이 끝소리이고, 이와 결합하는 'ㅣ'가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ㄷ, ㅌ, ㅈ, ㅊ, ㅌ'를 발음할 때 혀가 닿는 위치를 표현한 그림이다.

② 'ㄷ, ㅌ'은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치조음)이고, 'ㅈ, ㅊ'은 혀바닥과 천인장 사이에서 나는 입천장소리(구개음)이다.

③ 'ㄷ, ㅌ'과 'ㅈ, ㅊ' 중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ㅣ'와 더 가까운 것은 'ㅈ, ㅊ'이다.

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를 만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ㅣ'와 비슷한 'ㅈ, ㅊ'으로 바뀌면 더 자연스럽게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15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다. '붙여'는 'ㅌ'이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ㅊ'으로 소리 나므로 [부쳐]로 발음된다.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날 → [난]), 비음화([난] → [난]), 구개음화(날이 → [나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 [난나치]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끼리 묶였다.

오답 풀이 ①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같이'는 [가치]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② '물밭이'는 [물바치]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굴은'은 [구든]으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③ '꿈이'는 [꼬지]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믿어'는 [미더]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⑤ '미닫이'는 [미다지]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뽕뽕이'는 [뽕뿌리]로 발음되어 연음만 된다.

16 '할 적에'는 ㉠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ㅌ'이 오므로 [할적게]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ㄱ'이 온 경우이므로, ㉡에 따라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②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 경우이므로, ㉢에 따라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③ 한자어로, 'ㄹ' 받침 뒤에 'ㄷ'이 온 경우이므로, ㉣에 따라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④ 한자어지만 ㉔에서 제시한 환경(‘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이 아니므로,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17 ㉑과 ㉒은 ‘안다’라는 같은 형태로 표기되었지만 기본형은 다르다. ㉑은 기본형 역시 ‘안다’로 이때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다. 반면에 ㉒은 기본형이 ‘알다’이고, 이때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ㄴ-’)에 해당한다. 따라서 ㉑과 ㉒의 ‘ㄴ’이 모두 용언의 어간 받침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㉑의 기본형은 ‘안다’로, ‘두 팔을 벌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라는 뜻이고, ㉒의 기본형은 ‘알다’로,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이다.

③, ⑤ ㉑은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이어진 경우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여 [안따]로 발음된다. 반면에 ㉒은 기본형이 ‘알다’이고 이때 ‘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ㄴ-’)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지 않아 [안다]로 발음된다. 즉, ㉑과 ㉒은 서로 음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같지만 발음은 다르게 하는 것이다.

18 ‘국뺨’은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ㅂ’이 온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충족하여 [국뺨]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② ‘새것’은 [새것]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새견]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원격(遠隔)’은 한자어로 [원격]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되기의 환경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격]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체증(滯症)’은 한자어로 [체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체증]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부러지다’는 [부러지다]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부러지다]로 발음해야 한다.

19 ‘대관령[대괄령]’에서는 유음이 아닌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만이[마지]’에서는 받침 ‘ㄷ’이 ‘ㄹ’과 만나면서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알마당[암마당]’에서는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뀐 뒤에 이 ‘ㅂ’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숙소[숙쏘]’에서는 ‘ㄱ’ 받침 뒤에 ‘ㅅ’이 와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음운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4개이다.

오답 풀이 ‘제일[제일]’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조은]’은 ‘ㅎ’이 발음이 되지 않는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행복한[행보칸]’은 ‘ㄱ’과 ‘ㅎ’이 만나 ‘ㄱ’으로 발음되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20 <보기>의 ‘백합’은 ‘ㄱ + ㅎ → ㅋ’의 결과로 [배깅]으로 발음되고, ‘만형’은 ‘ㄷ + ㅎ → ㅌ’의 결과로 [마텅]으로 발음된다. 이처럼 ‘ㄱ, ㄷ, ㅂ, ㅈ’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하며, 두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운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음운의 축약이 일어날 경우, 표기와 달리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한 개 줄어든다.

21 ‘깨끗하다’는 [깨끄타다]로 발음된다. ㉔에서 받침 ‘ㅅ’이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음운의 교체)이 일어난다. ㉔에서는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음운의 축약)가 나타난다.

22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활용은 모음 탈락을 보여 주는 예이다. ‘크-+-어 → 커, 크-+-었-+-다 → 컸다’를 보면 어간 말모음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어미는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므로 ㉔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단어의 활용은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에서 일어난다. <보기>의 ‘개(다), 세(다)’는 동사이고 ‘크(다)’는 형용사이다.

② ‘가, 갔다’, ‘서, 섰다’를 보면 활용할 때 각각 어간의 모음 ‘ㅏ’와 ‘ㅑ’가 어미의 첫 모음과 같아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여 하나의 음운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③, ④ 모음 탈락은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한 단어에서 두 개의 모음이나 란히 오는 것을 피하여 한 음운이 탈락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에 해당한다.

23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그런데 ㉔의 ‘다쳐’는 [다치-+-어]에서 ‘ㅣ’와 ‘ㅣ’ 모음이 합쳐져 ‘ㅌ’로 줄어서 소리 나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 것이다. ‘다쳐’는 [다쳐]로 발음되지만 음운이 축약된 형태를 유지하여 ‘다쳐’라고 표기하였으므로,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원래 형태는 ‘나-+-아’로, ‘ㅏ’가 탈락하여 [나]로 발음되며 ‘나’로 표기한다.

② ‘기빠서’의 원래 형태는 ‘기쁘-+-어서’로, ‘ㅡ’가 탈락하여 [기빠서]로 발음되며 ‘기빠서’로 표기한다.

③ ‘타’의 원래 형태는 ‘타-+-아’로, ‘ㅏ’가 탈락하여 [타]로 발음되며 ‘타’로 표기한다.

④ ‘담가’의 원래 형태는 ‘담그-+-아’로, ‘ㅡ’가 탈락하여 [담가]로 발음되며 ‘담가’로 표기한다.

24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반모음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㉔의 ‘그려’는 용언의 어간 ‘그리-’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그려’가 된 것으로, 모음이 축약된 것이다. 참고로 반모음 첨가는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달으시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 뒤에 모음 ‘ㅛ’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다드시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드시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② ‘미시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 뒤에 모음 ‘ㅛ’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미시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시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피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피-’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피어](원칙)나 [피여](허용)로 발음한다.

⑤ ‘사귀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사귀-’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으므로 [사귀어](원칙)와 [사귀여](허용)로 발음한다.

25 반모음 첨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 음절의 끝소리가 모음 ‘ㅛ’나 ‘ㅣ’인 경우이다. ‘개었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개-+-었-+-다’인데,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개-’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앞 음절의 끝

소리가 ‘ㄹ’이므로 [개열따]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연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학교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학교’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하긴 했으나, 반모음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에 해당하여 [학교에]로 발음한다.

② ‘기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가-’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이 첨가된 경우로 [기어](원칙)나 [기여](허용)로 발음한다.

③ ‘여시오’는 [여시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시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④ ‘되어’는 [되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되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6 ‘예뻤다’는 ‘예쁘-+-있-+-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형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가 탈락한 모음 탈락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아드님’은 ‘아들+님’이 결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자음 ‘ㄴ’이 탈락한 것이다.

② ‘봐라’는 ‘보-+-아라’가 결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모음이 축약된 것이다.

④ ‘바쁘-+-아’가 결합하면 ‘바빠’가 되는데, 모음 ‘-’가 탈락한 것이다.

⑤ ‘피었다’는 ‘피-+-있-+-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용언의 어간 ‘피-’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이 첨가되면 [피연따]로 발음할 수도 있다.

27 두음 법칙에서 한자음 ‘랴, 러, 로, 류, 리’나 ‘냐, 녀, 노, 뉴, 니’ 등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야, 여, 요, 유, 이’로 소리 나는 것은 ‘ㄹ’이나 ‘ㄴ’ 소리가 발음되지 않는 음운의 탈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자음 ‘라, 러, 로, 루, 르, 래, 레, 뢰’ 등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 너, 노, 누, 느, 내, 네, 뉘’ 등으로 소리 나는 것은 ‘ㄹ’이 ‘ㄴ’으로 바뀐 것이므로 음운의 교체라고 할 수 있다.

28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년세’가 아닌 ‘연세’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붙임 1] 규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남녀(男女)’, ‘은닉(隱匿)’, ‘당뇨(糖尿)’, ‘만년(晩年)’으로 적는다.

29 ‘앉히다’에서 ‘ㅈ’과 ‘ㅎ’이 결합하여 ‘ㅊ’으로 변하는 거센소리 되기가 일어나 [안치다]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받침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 연음을 해야 하는 환경이므로 ‘발음’은 [바들]로 발음한다.

②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또한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의 ‘ㅈ’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늑지도’는 [늑찌도]로 발음한다.

④ ‘육’의 ‘ㄱ’과 ‘학’의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이 되며, ‘학’의 파열음 ‘ㄱ’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인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비음화를 거처므로 ‘육 학년’은 [유강년]으로 발음한다.

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또한 ‘ㄱ’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의 ‘ㄷ’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읽다’는 [익따]로 발음한다.

30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빛을’과 ‘빛이’는 [비출]과 [비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유음 ‘ㄹ’이 비음 ‘ㄴ,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은 비음화이다.

②,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일곱 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은 구개음화이다.

(2) 우리말 바로 쓰기

본문 확인문제



본문 120~121쪽

- 01 ③ 02 한글, 표기 03 ⑤ 04 ③ 05 띄어쓰기
06 ④ 07 둘V모두가V착한V학생이다. 08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01 받아쓰기를 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어야 하고(ㄴ), 표기와 발음은 별개의 것이므로 어떤 문장에 대한 표기와 발음이 다를 수도 있다(ㄹ).

오답 풀이 ㄱ. 표기와 발음은 별개의 것이므로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말을 바르지 않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ㄷ.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므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로, 크게 6장과 부록(문장 부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03 우리말을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꿈], [하늘]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되’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한글 맞춤법의 제정에서는 맞춤법의 큰 원칙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시하였다.

④ ‘꿈[꿈]’, ‘하늘[하늘]’, ‘바람[바람]’처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들은 소리대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04 제시된 질문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의 이점을 묻고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하면 고정된 표기일 때보다 그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으면 눈에 훨씬 잘 들어온다.
 ②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라는 ‘읽-’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④ ‘읽-’이라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⑤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일’, ‘임’, ‘익’이 ‘읽-’이라는 같은 말임을 알아보기 쉽다.

05 띄어쓰기 규정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큰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㉓), 제5장은 전체가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띄어쓰기는 사람들이 문장이나 글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띄어쓰기가 크게 문제가 않는 경우도 있다(㉕). 또한 중세 국어와 같은 옛날 문헌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㉖), 전문가조차도 종종 잘못 끊어 읽는 경우가 있다.

06 용언(동사, 형용사)의 활용 시에 붙는 어미는 단어의 일부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예를 들어 ‘예쁜 → 예쁘- + -ㄴ’의 ‘-ㄴ’과 같은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규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②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③ 띄어쓰기를 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고, 독해가 훨씬 수월해진다.
 ⑤ 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어문 규범에 따라 어떤 말을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을 의미한다.

07 띄어쓰기 규정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단어별로 띄어 쓰면 ‘둘√모두√가√착한√학생√이다.’이지만,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에 따라 ‘둘√모두가√착한√학생이다.’라고 쓰는 것이 옳바르다.

08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 올바르게 사용하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22~123쪽

- 01 ④ 02 ③ 03 ②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01 ‘가발[가발]’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사람+이 → 사람이[사라미]’는 형태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각각 ㉠과 ㉡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나무[나무]’는 ㉠의 예로 적절하지만, ‘따뜻히’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따뜻-+--이’가 되어 ‘따뜻이’라고 써야 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길이[기리]’는 ㉢의 예로, ‘푸르다[푸르다]’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먹물[멍물]’은 ㉥의 예로 적절하다. ‘오투기’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오투-+--이’가 되고 [오투기]로 발음되지만, ‘오투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⑤ ‘드러나다[드러나다]’는 ㉦의 예로 적절하다. ‘해도지’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해+돌-+--이’가 되고 [해도지]로 발음되지만, ‘해돌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02 한글 맞춤법 제2항과 제41항에 따르면,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이다’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대’는 ‘차나 기계, 악기 따위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03 <보기>의 문장을 ‘오늘 밤 나무 사 온다.’로 띄어 쓰면 ‘오늘 밤에 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 밤에 나는 무를 사 가지고 온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은 ‘오늘 밤 나무 사 온다.’라고 띄어 썼을 경우이다.

- 오답 풀이** ①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마다 하나의 문장을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③ 주어진 대로 띄어쓰기를 했을 때 ‘오늘 밤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④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띄어쓰기를 알맞게 해야 한다.
 ⑤ 띄어쓰기는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04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야단법석’이라고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씩둑’으로 적어야 한다.
 ②, ③, ④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였고,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므로 ‘담뿍’, ‘살짝’, ‘잔뜩’으로 적어야 한다.

05 한글 맞춤법 제19항에서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②의 ‘밝히’는 ‘불빛 따위가 환하게’라는 뜻의 부사로, ‘밝-’이라는 어간에 ‘-히’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미듬’은 ‘민음’의 잘못된 표기이다. ‘민음’은 ‘민-’이라는 어간에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③ ‘다드미’는 ‘다듬이’의 잘못된 표기이다. ‘다듬이’는 ‘다듬-’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④ ‘실업시’는 ‘실업이’의 잘못된 표기이다. ‘실업이’는 ‘실업-’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⑤ ‘짓궂히’는 ‘짓궂이’의 잘못된 표기이다. ‘짓궂이’는 ‘짓궂-’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06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③의 ‘생긔시’는 ‘생긔이’의 잘못된 표기로, ‘생긔이’는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이라는 뜻의 부사 ‘생긔’에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쓸쓸히’, ‘꾸준히’, ‘조용히’가 이에 해당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25항에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깨끗이’가 이에 해당한다.

07 ④의 ‘예삿일’은 ‘한자어(例事) + 고유어(일)’로 된 합성어로 [예산닐]이라 발음된다. 이것은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로 끝날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에 해당하므로 ‘예삿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사이시옷은 합성어 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치어 적는다. ‘해님’은 어근인 ‘해’에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② ‘초점(焦點)’은 [초점]으로 발음되지만 ‘한자어 +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서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은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의 여섯 가지로, 이외에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③ ‘머리글’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지만, [머리글]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⑤ ‘인사말’은 ‘한자어(人事) + 고유어(말)’로 된 합성어이지만, [인사말]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08 ③과 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 중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제시된 단어들 중 ④는 ‘양치(養齒) + 물’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양친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서 ‘양칫물’이라 적어야 한다. 따라서 ③과 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후(後) + 일 → 훗일’은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라서 ⑥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훈닐]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③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내 + 물 → 냇물’은 [넉물]로 발음되어 ③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라서 ⑥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머리 + 방(房) → 머릿방’은 [머리뻥]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고, ‘고유어 +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서 ③, ⑥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⑤ ‘아래 + 마을 → 아랫마을’은 [아래마을]로 발음되어 ③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라서 ⑥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09 ‘만끔’은 의존 명사나 조사로 쓰인다. ③에 쓰인 ‘만끔’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쌈’은 ‘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과 제43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다.

② ‘뽀’는 의존 명사나 조사로 쓰인다. 이 문장에 쓰인 ‘뽀’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이다’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축’은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다.

⑤ ‘에서’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조차’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앞말에 붙여 쓴다.

10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오로써’가 아닌 ‘오로서’이다. ‘오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반장으로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ㄹ게’는 어미 ‘-ㄹ게’의 잘못된 표기이다.

② ‘친구(이)다’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이예요’ 또는 ‘-이예요’의 준말인 ‘-예요’의 형태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③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새우다’가 옳바른 표기이다. ‘세우다’는 동사 ‘서다’에 접사 ‘-우-’가 붙은 사동사이다.

④ 다섯 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안’이 ‘되다’ 앞에 쓰여 그 뜻을 부정하는 부사이므로 ‘안 된다’로 띄어 써야 한다. 합성어 ‘안되다’는 ‘잘되다’에 상대되는 뜻으로 ‘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공부가 안된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여럿이면 잘되는 자식도 있고 안되는 자식도 있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 (예) 안되어도 두 명은 와야지.)의 뜻으로 쓰인다.

11 ④의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④는 문맥상 아픈 것이 금방 나은 것이므로,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인 ‘낫다’의 활용형인 ‘나았어요’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오십시오’가 바른 표기이다.

② ‘만들다’의 어간 ‘만들-’에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만들.’이라고 써야 한다.

④ ‘룰’은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도 올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며, ‘을’로 적는 경우인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룰’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룰’이 바른 표기이다.

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다고 해’의 준말인 ‘-대’를 써야 하므로 ‘땀대.’가 바른 표기이다.

12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01 ⑤ 02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으면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①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③ 11 ① 12 ②

01 [늘꼬], [늘찌], [늘느]에서 각기 다르게 발음되는 밑줄 친 말을 동일하게 ‘늘-’으로 쓰는 것은, ‘늘고, 늘지, 늘는, 늘어, 늘은’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질 형태소인 어간의 본모양이 ‘늘-’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마중[마중]’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되나, ‘딱하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따카다]가 되지만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된다.
② ‘국물[국물]’과 ‘같이[가치]’를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적을 경우에는 ‘궁물’, ‘가치’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국물’과 ‘같이’는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읽다’, ‘읽고’는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어법에 맞도록 그 본모양을 밝히어 적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사라지다[사라지다]’와 ‘쓰러지다[쓰러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에 해당한다.

02 ‘빛, 빛, 빛’은 모두 [빔]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각 단어가 지닌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03 제5항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쭈, 몹씨’는 ‘국수, 몹시’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②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거꾸로’로 적는다. ‘법석’은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석’으로 적는다.
③ ‘깎두기, 색시’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깎두기, 색시’로 적는다.
④ ‘산뜻하다, 엉뚱하다’는 ‘ㄴ,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산뜻하다, 엉뚱하다’로 적는다.
⑤ ‘깨끗하다, 해쓱하다’는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깨끗하다, 해쓱하다’로 적는다.

04 ‘룰’은 [불임]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합격룰’이라 적는 것이 옳바르다.

- 오답 풀이** ①, 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한자음의 본음대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성공울’, ‘경쟁울’은 ‘성공률’, ‘경쟁률’로 적는다.
②, ③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백분룰’, ‘실패룰’은 ‘백분율’, ‘실패율’로 적는다.

05 ‘걸음’은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이라는 뜻으로, ‘걷다’의 어간 ‘걷-’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걷다’는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라는 뜻으로, ‘걸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비료’를 뜻하는 ‘거름(걸- + -음)’과 같은 단어가 ㉡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벌이’는 ‘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벌.’이라는 뜻으로, ‘벌다’의 어간 ‘벌-’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벌다’는 ‘일을 하여 돈 따위를 얻거나 모으다.’라는 뜻으로, ‘벌이’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② ‘알’은 ‘아는 일’이라는 뜻으로, ‘알다’의 어간 ‘알-’에 ‘-ㅁ’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다. ‘알다’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으로, ‘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③ ‘많이’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라는 뜻으로, ‘많다’의 어간 ‘ 많-’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많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는 뜻으로, ‘많이’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④ ‘익히’는 ‘어떤 일을 여러 번 해 보아서 서투르지 않게’라는 뜻으로, ‘익다’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다. ‘익다’는 ‘자주 경험하여 조금도 서투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익히’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06 ‘곰곰이’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 ‘곰곰’에 ‘-이’가 붙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사의 원형을 밝혀 ‘곰곰이’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넉넉히’, ‘딱히’가 이에 해당한다.
③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다. ‘어렴풋이’가 이에 해당한다.
⑤ [불임]에서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갑자기’로 적는다.

07 ‘뒤+풀이’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지만 뒷말의 첫소리에서 된소리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고 ‘뒤풀이’라 적는 것이 옳바르다.

- 오답 풀이** ①, ③ ‘깨+읽’은 [깟닙]으로 발음되고, ‘베개+잇’은 [베깟닙]으로 발음된다. 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깟읽, 베깟잇’으로 적는다.
② ‘아래+이’는 [아래니]로 발음된다. ‘이[齒]’는 합성어에서 ‘니’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아래니’로 적는다.
④ ‘나루+배’는 [나루뻬/나루뻬]로 발음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나루뻬’로 적는다.

08 ①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하는 데’라고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②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열 살이’라고 써야 한다.

③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청군 대 백군으로’라고 써야 한다.

④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또한 제44항에서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칠만 구천팔백이십일 명이’라고 써야 한다.

⑤ ‘듯이’는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잡힐 듯이’라고 써야 한다.

09 ‘보조 용언을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내용이다. 예문의 ‘꺾아(서)드렸다’와 같이 ‘-아/-어’ 뒤에 ‘서’가 붙어있는 형식에서는 뒤의 단어가 보조 용언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꺾아(서)드렸다.’라고 써야 한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 적절한 예로는 ‘불이 꺼져 간다.(원칙) / 불이 꺼져간다.(허용)’를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3항의 내용이다. ‘모금’은 ‘액체나 기체를 입 안에 한 번 머금은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 모금의’이라고 써야 한다.

②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1항의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커녕’과 ‘돌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도’를 그 앞말에 붙여서 ‘밥커녕 죽도’라고 써야 한다.

③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5항의 내용이다.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겸, 내지, 대, 등, 및, 등등, 등속, 등지)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그 밖의 곳들을 출입을 나타내는 말’인 ‘등지’를 앞말과 띄어서 ‘광주 등지를’이라고 써야 한다.

④ 제시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49항의 내용이다. ‘대한 고등학교’는 돌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로 이와 같은 말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 고등학교’라고 써야 한다.

10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③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인 ‘입니다’를 앞말에 붙여 ‘1학년입니다.’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마리가’라고 써야 한다.

②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8항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황 씨는’이라고 써야 한다.

④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고,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겸, 내지, 대, 등, 및, 등등, 등속, 등지)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숭아 등이’라고 써야

한다.

⑤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졸업한 지’라고 써야 한다.

11 ①의 밑줄 친 부분에는 반창고가 상처 난 부위에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의 서술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붙다’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이 문장에서는 ‘붙다’의 사동사인 ‘붙이다’의 과거형으로 알맞게 쓰였다.

오답 풀이 ②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쉬.’의 뜻을 지니는 말은 ‘휴게’가 아닌 ‘휴게(休憩)’이다.

③ ‘문안하다’는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다.’라는 뜻인데, 문맥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로 흠잡을 데 없다.’라는 뜻의 ‘무난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예스럽다’는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이고 사잇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사이사위를 받쳐 적지 않고 표기해야 한다.

⑤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뜻하며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이는 말은 ‘너머’이다. ‘넘어’는 동사 ‘넘다’에 어미 ‘어’가 붙은 형태이다. 즉 ‘넘어’는 ‘고개를 넘어 간다.’처럼 동작을 나타내지만 ‘너머’는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

12 ‘엮히고설키다’는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다.’ 또는 ‘관계, 일, 감정 따위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되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다. 여기에서 ‘엮히고’는 ‘이리저리 관련이 되게 하다.’를 뜻하는 ‘엮다’에 ‘-히-’가 붙어서 된 ‘엮히다’가 활용한 말이므로 어법에 맞게 쓰는 원칙에 따라 ‘엮히고’로 쓰고 있다. 이것을 소리대로 ‘얼키고’로 적으면 ‘엮다’의 원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오답 풀이 ①, ③ ‘엮히고’는 ‘엮다’의 어간 ‘엮-’에 피동 접사 ‘-히-’가 붙은 것이다. 이것은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히어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며, ‘엮히고’와 ‘엮다’의 의미상 연관성을 드러내는 표기이기도 하다.

④, ⑤ ‘설키다’는 ‘섞다’라는 우리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3)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27~131쪽

- | | | | | |
|---------------|------|------|--|--------------|
| 01 ③ | 02 ⑤ | 03 ③ | 04 글을 쓸 때에 자기 생각이나느
김,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 | 05 ⑤ |
| 06 ② | 07 ⑤ | 08 ③ | 09 ③ | 10 표절, 범죄 행위 |
| 11 ①, ⑤ | 12 ③ | 13 ⑤ | 14 ① | 15 ③ |
| 16 쓰기 윤리, 책임감 | | | | |

01 (가)~(나)는 이 글의 처음 부분으로 앞으로 설명할 대상인 쓰기 윤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전하고 있다. 쓰기 윤리는 글쓴이가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장단점을 구분할 수 없고, (가)~(나)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쓰기 윤리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낳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고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으므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02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어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는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

②, ③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다.

03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 올린 글은 매체의 특성상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올리는 글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글이 올라오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터넷 매체에서 올바르게 글을 쓰는 방법이다. 배타적인 태도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④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쓸 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거나 다른 곳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올리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기는 하지만 거짓 정보를 올리면 독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보를 많이 올리기보다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04 쓰기 윤리에는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면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라)에 제시된 개인적 쓰기 윤리의 개념을 보면 글쓴이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05 개인적 쓰기 윤리가 중요시되는 글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이나,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은 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조사하거나 연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글로, 글쓴이의 경험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써야 하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④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한 글의 종류로는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글로,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글들은 읽는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논설문과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담아야 하는 글을 쓸 때에도 개인적인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06 (라)의 사례 속 학생은 영화를 보고 나서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평가를 보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영화의 감상평을 쓰고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을 진실하게 쓰지 않아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의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함부로 인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함부로 인용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 측면에서의 평가 내용에 해당한다.

③ 작품을 홍보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 쓰기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④ 자신의 생각과 전문가의 견해가 다른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따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화의 감상평만 남겼을 뿐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07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글이나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것이므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료를 윤리적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시각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규범이다.

③, ④ 사회적 쓰기 윤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08 (바)의 사례 속 학생들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했으나, 주제와 관련 없는 자료를 대량으로 발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⑤ (바)의 사례 속 여학생은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이름만 바꾸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글을 사용하였다.

①, ④ (바)의 사례 속 남학생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09 (사)는 (바)의 사례 속 학생들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했음을 밝히며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를 학습했다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런데 ③과 같이 생각하면 또 다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오답 풀이 ① (바)의 사례 속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쉽게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를 학습한 뒤에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임을 알게 될 것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 평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②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쓰는 일은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지양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⑤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하여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민 것은 표절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10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또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11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그 글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인터넷 매체는 글쓰이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성에서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③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올리지 않았을 때 독자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지만, 독자의 불만 표출을 우려해서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개인 주변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개인 간의 대화, 편지, 전화 등이다.

12 인터넷상에 올릴 글의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알기 위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④ 인터넷상에 올릴 글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자료의 내용을 왜곡, 과장, 축소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이 쓰는 글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볼 수 있으므로 쓰기 윤리에 맞게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⑤ 인터넷상에 올릴 글의 내용은 오류가 없이 정확해야 하므로, 흥미를 위해 오류가 있는 내용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13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특정 독자가 아닌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내용의 공정성과 관련이 없다.
 ② 내용의 공정성이 아닌 진위 여부와 관련이 있다.
 ④ 연령뿐만 아니라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14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오답 풀이 ②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③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④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삼가고,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의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자신이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16 이 글의 글쓴이는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책임감 있게 글을 쓴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32~135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① 07 ④
 08 ㉔: 사회적 쓰기 윤리 09 ⑤ 10 ③ 11 ①
 12 <보기>는 ‘ㄱ, ㄴ’과 ‘ㄷ, ㄹ’로 나눌 수 있다. ‘ㄱ, ㄴ’은 인터넷상에 글쓰기를 하여 얻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고 ‘ㄷ, 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다. 13 ⑤ 14 ②

01 이 글은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예를 언급하고 있을 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쓰기 윤리는 ‘글쓰기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인터넷 매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인터넷상의 정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 그 정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다.
 ②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을 통해 생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매체는 익명성이 있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다.
 ④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다.

03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는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 성격을 지니는지,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04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원저자의 허락을 얻고, 허락을 받았다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다.

- 오답 풀이** ①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밀바탕이 되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쓸 때에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③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뜻한다.
 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서 글을 써야 한다.

05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사진작가의 사진을 원저자가 모르게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 오답 풀이** ①, ③ 여행 후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므로 자신의 감상을 진솔하게 써야 한다. 또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써서는 안 된다.
 ② 인터넷상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언어 예절을 지켜 써야 한다.
 ④ 읽는 사람을 고려하여 자신이 경험한 일들 중 특정 주제로 글을 쓰거나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다.

06 <보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쓰지 않아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사례이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쓴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② 글쓴이가 음식 맛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솔직하게 쓰지 않은 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
 ③ 글쓴이가 블로그에 게시한 잘못된 정보를 읽은 사람은 해당 음식점이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④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도 글의 조회 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상 글쓰기의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음식점에 대해 글쓴이가 블로그에 올린 평가는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밀바탕이 되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사례이다.

07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하는 행위는,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8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하여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일종의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09 자료를 수집할 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자의 호기심을 끌 만한 자료만을 선정하다 보면 내용의 왜곡, 과장, 축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오류 없이 정확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③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사실을 그대로 담고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글쓴이의 의도를 위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다루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글은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으므로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④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쓰면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10 ‘파란하늘’은 ‘맛집도사’가 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맛집도사’가 쓴 글을 그대로 올리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맛집도사’가 게시한 정보를 허락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맛집도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꾸며 내고 있으며, ‘모험가’의 말에 따르면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즐거우리’는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맛집도사’가 올린 내용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④ ‘모험가’는 자신의 사진을 ‘맛집도사’가 허락 없이 도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남의 저작물을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 표시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소나무’는 ○○ 분식 사장으로, ‘맛집도사’가 게시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퍼져 요즘 손님이 준 것 같다고 하였다.

11 ㉠은 게시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했으며, ‘사기꾼’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충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⑤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했을 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④ 예상 독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글을 쓰라는 충고는 적절하지 않다.

12 인터넷상의 글쓰기는 개인에게 긍정적인지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은 것(㉠)이나,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었던 사람과 비슷한 관심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친구가 된 것(㉡)은 인터넷상의 글쓰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화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낀 것(㉢)이나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경험한 것(㉣)은 인터넷상의 글쓰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13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독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에 믿을 만한 내용만을 제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④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다.

14 국어 문제집은 특정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보기>처럼 국어 문제집을 스캔하여 학교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동의를 얻거나 하는 등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인터넷 매체에 글 쓸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③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것이다.
 ④ 인터넷 매체에 글 쓸 때의 언어 표현과 관련한 것이다.

대단원 평가

본문 136~139쪽

01 ④ **02** ③ **03** ② **04**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원형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④ **10** ① **11** ⑤ **12** ④ **13** ⑤ **1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 책임감 ㉡: 저작권(지식재산권)

01 ‘웃’을 발음하면 받침의 ‘ㅈ’ 소리가 ‘ㄷ’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겹받침 ‘ㄲ, ㄴ, ㄷ, ㄹ, ㅁ, ㅂ, ㅇ’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발음한다는 겹받침 발음에 대한 설명이다.

②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③ ‘ㄱ, ㄷ, ㅂ’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⑤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ㄷ,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02 ‘냇익히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따라 받침의 ‘ㅈ’이 ‘ㄷ’으로 바뀌어 [냇익히다]가 된다. 이때 ‘냇익히다’는 ‘냇+익히다’로 구성된 합성어인데,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익’이므로 ‘ㄷ’ 음을 첨가(첨가)하여 [냇닉히다]가 된다. 또한 비음 ‘ㄴ’의 영향으로 ‘ㄷ’이 ‘ㄴ’으로 바뀌어 [냇닉히다]가 되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나고,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냇니키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적용되어 발음된 것이다.

03 ㉠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교체에 해당한다. 즉, ‘ㄹ’과 ‘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인 ‘ㄹ’이 생기는 첨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ㄴ’이 ‘ㄹ’으로 교체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는 ‘ㅂ’과 ‘ㅎ’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음운인 ‘ㅍ’으로 바뀐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③ ㉢는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이 된소리인 ‘ㅁ’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④ ㉣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 탈락(탈락)을 보여 준다.

⑤ ㉤는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ㄴ’과 ‘ㅈ’이 만나 ‘ㄷ’이 탈락하여 발음되지 않는 모음 탈락(탈락)을 보여 준다.

04 [‘운’], [‘운만’], [‘운노리’]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웃’, ‘웃만’, ‘웃놀이’로 적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중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내용과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중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나’는 ‘나- + -아’가 결합하여 ‘ㅏ’가 탈락한 형태로 모음 탈락, 즉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음운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국물’은 [궁물]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비음화(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③ ‘난로’는 [날로]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유음화(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④ ‘같이’는 [가치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구개음화(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⑤ ‘갈등(葛藤)’은 [갈똥]으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된소리되기(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06 ‘활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겹받침 ‘ㅌ’이 ‘ㄹ’으로 바뀌고, ‘ㄹ’의 영향으로 비음 ‘ㄴ’이 ‘ㄹ’로 바뀌어 [할른]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뒤에 오는 ‘ㄴ’이 아닌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할는] → [할른]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쌀눈’은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쌀룬]으로 발음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쫓는’이 [쫓는]이 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 [쫓는]이 된 것은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으로 파열음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④ 표준 발음법 19항의 [붙임]을 보면, 받침 ‘ㄱ,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는데, 그 [ㄴ] 때문에 ‘ㄱ, ㅂ’은 다시 [ㅇ, ㅁ]으로 역행 동화되어 발음된다고 하였다. ‘협력’을 보면 받침 ‘ㅂ’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되는데, 그 [ㄴ] 때문에 ‘ㅂ’은 다시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차례의 비음화가 일어났고, 두 개의 음운이 바뀌어 소리 난다.

⑤ 위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은 크게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쌀눈, 활눈’과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담력,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07 ‘섬뜩하다’는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섬뜨카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달하다’는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다티다]로 발음되고, 이것이 다시 ‘ㅌ’이 모음 ‘ㅣ’ 앞에서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다치다]로 발음된다.

② ‘셋노랴다’는 ‘셋노 → [샌노] → [샌노]’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고, ‘랴다[라타]’에서 ‘ㅎ’과 ‘ㄷ’이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샌노라타]로 발음된다.

③ ‘섬섬하다’는 ‘ㅂ’ 받침 뒤에 ‘ㅅ’이 이어지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섬싸파다]로 발음된다.

⑤ ‘흐릿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ㅅ’이 ‘ㄷ’으로 바뀌고, 이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흐리타다]로 발음된다.

08 음운의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으로, ‘거센소리되기’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끝으로’는 받침 ‘ㅌ’이 연음되어 [끄트로]로 발음되는데, 연음되는 것은 음운의 축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좋다’는 ‘ㅎ + ㄷ → ㅌ’의 결과로 [조타]로 발음된다.

② ‘축하’는 ‘ㄱ + ㅎ → ㅋ’의 결과로 [추카]로 발음된다.

③ ‘좁혀’는 ‘ㅂ + ㅎ → ㅍ’의 결과로 [조퍼]로 발음된다.

④ ‘입학식’은 ‘ㅂ + ㅎ → ㅍ’의 결과로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이팍씩]으로 발음된다.

09 ‘신녀성’은 ‘신(新) + 여성(女性)’으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신여성’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한자어 가운데 ‘리(理)’나 ‘리(里)’와 같은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리’로 적어야 한다.

②, ③ 외래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라디오’, ‘뉴스’로 적어야 한다.

⑤ 고유어 중 몇몇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녀석’으로 적어야 한다.

10 ‘정확히’는 ‘-하다’가 붙는 어근 ‘정확-’에 ‘-히’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에 해당한다. ‘히죽이’는 부사 ‘히죽’에 ‘-이’가 붙은 부사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느긋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 ‘느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고, ‘슬며시’는 그 자체가 부사이다.

③ ‘버젓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 ‘버젓-’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이고, ‘도저히’는 그 자체가 부사이다.

④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은 부사이고,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은 부사이다.

⑤ ‘반드시’는 그 자체가 부사이다. ‘오뎅이’는 부사 ‘오뎅’에 ‘-이’가 붙은 부사이기도 하며, ‘밀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뎅오뎅 일어서는 어린이들의 장난감’이라는 뜻의 명사이기도 하다.

11 ‘이 + 몸’, ‘뒤 + 일’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올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이 + 몸 → 잇몸[인몸]’은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단어이고, ‘뒤 + 일 → 뒤틀[된닐]’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단어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무 + 가지’, ‘바다 + 가’는 모두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올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나무까지] / [나물까지], [바다까] / [바닷까]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② ‘비 + 물’, ‘아래 + 마을’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올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빈물], [아래마을]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③ ‘깨 + 잎’, ‘나무 + 잎’은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올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깬잎], [나무닙]으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④ ‘제사(祭祀) + 날’, ‘퇴(退) + 마루’는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며 앞말이 올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제산날], [툼마루]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12 ‘울 듯하다’는 ‘오다’라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 ‘듯하다’가 붙은 형태이므로 띄어 씀을 원칙(‘울 듯하다’)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울듯하다’)도 허용한다. 하지만 ‘울 듯도 하다’는 중간에 조사 ‘도’가 있으므로 ‘울듯도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을 반드시 띄어 써야만 한다.

오답 풀이 ① ‘읽어 가다’의 ‘가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② ‘자고 싶다’의 ‘싶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③ ‘해 주다’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⑤ ‘이겨 내다’의 ‘내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3 한글 맞춤법 제48항에서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충무공’은 하나의 호이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이라 띄어 쓰는 것이 옳바르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뿐’을 앞말에 붙여 ‘너뿐이다’로 적는다.

②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 ‘대로’를 앞말에 띄어 ‘아는 대로’로 적는다.

③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인 ‘그루’를 앞말에 띄어 ‘두 그루를’로 적는다.

④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 ‘등’을 앞말에 띄어 ‘연필 등’으로 적는다.

14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를 적용해 보면 ‘천(수사)√리(의존 명사)√길도(명사+조사)√한(관형사)√걸음부터(명사+조사)’로 띄어 써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적용한 띄어쓰기 규정을 2개 이상 서술하였다.	상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적용한 띄어쓰기 규정을 1개만 서술하였다.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썼으나, 적용한 띄어쓰기 규정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5 ‘만큼’은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의존 명사는 앞말에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의 ‘만큼’은 문장에서 체언 뒤에서 조사로 쓰인 것이므로 앞말에 붙여 ‘너만큼은’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문장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 ‘1’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이 문장에서 ‘만큼’은 조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⑤ 이 문장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 ‘2’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쓴다.

16 ‘홀어저’는 용언의 어간 ‘홀-’에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홀터저’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어법에 맞도록 ‘홀어저’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웃을’은 명사 ‘웃’과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웃을’로 써야 한다.

② ‘얼음’은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운 때문에 고체 상태로 굳어 지다.’라는 뜻의 용언 어간 ‘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이라는 뜻의 명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얼음’이라고 써야 한다.

③ ‘열었을 때’에서 ‘열었을’은 동사이고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의미하는 명사로 각각 단어이다. 문장에서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므로 ‘열었을 때’라고 띄어 써야 한다.

⑤ ‘우리집’과 같은 한 단어는 없다. 대명사 ‘우리’와 명사 ‘집’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우리 집’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7 ‘율/률(率)’을 표기할 때 모음 다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이 옳므로 ‘지지율’이라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이 문장은 수정과 위에 잣을 뜨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띄우서’가 적절하다.

② ‘결단(決斷)’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의미하고 ‘결판’은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결단’이 적절하다.

③ ‘기어’를 발음할 때 ‘ㅣ’ 모음이 첨가되어 [기어(원칙) / 기여(허용)]와 같이 발음할 수 있지만, ‘ㅣ’ 모음 첨가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기어’로 표기해야 한다.

④ ‘드러나다’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난다.’를 의미한다.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뜻인 ‘들다’와는 의미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드러나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보기〉의 학생은 독도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인터넷의 자료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짜깁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자기 것인 양 속이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흠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며, 표절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이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독도에 대한 자료들을 짜깁기하려는 것이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③ 독도에 대해 알리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여 짜깁기해서 올리려는 것이다.

④ 학생이 독도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학생이 짜깁기하려는 내용이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내용 인지는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9 인터넷상에 올리는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글의 길이에 따라 사용하기에 적절한 언어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⑤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비속어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차별적인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글을 읽는 사람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 그 파급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저작권(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1)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42~145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④ 10 ④ 11 ④ 12 ⑤ 13 ① 14 서준은
할머니가 사용한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자 제주도 방언을 미리 알아보고 익혀 할머니와의 대화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15 ③

01 ‘나’는 경수의 물음에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에둘러 말하면
경수가 자신의 말뜻을 알아듣고 다른 옷을 고를 줄 알았다고 하였
다. 에둘러 말하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돌
려대는 말하기로, 간접적인 말하기 방식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경수가 자신이 고른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본 것에
대해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에둘러 대답하였다.

② ‘나’는 솔직하게 말해 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탓하는 경수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③ ‘친구의 기분을 배려해서 말한 것도 모르고 경수가 내 탓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는 경수의 물음에 대해 경수의 기
분을 배려해서 대답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경수가 고른 옷의 디자인이나 색이 경수에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
하였다.

02 ‘나’는 경수가 입은 옷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의 기분을
배려하여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경
수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옷을 샀다. 경수는 이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주지 그랬어. 나라면 사지 말라고 말했겠다.”
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사서 기분이 상했음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나’는 자신의 배려를 몰라준 경수
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을 빚는 이유는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경수가 ‘나’의 의견을 참고하여 옷을 산 행동을 통해 경수가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나’가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말한 것은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아 애매
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 표현이다.

③ 경수가 선택한 옷이 경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경수의 공
통된 생각이므로 서로의 옷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각자의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를
보여 이것이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직접적인 갈등을 빚는 원인은 이러한 개인적 성향의 차이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03 ③에서는 우회적 말하기가 아닌 직설적 말하기가 쓰이고 있

다. 또한 청유형 문장으로 요청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서 발화 형
식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고 있다.

04 ㉠는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표준
어를 쓰고 있고, ㉡는 집 안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대화를
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므로 지역 방언을 쓰고 있다.

05 ㉠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상황이
며, ㉡는 집에서 가족과 지역 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다. 같
은 인물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비공식적이며 사
적인 자리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담
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
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준어는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② 지역 방언은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용하면 친근감이나 동
질감, 연대감 등을 형성할 수 있다.

③ ㉠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그 지역 방언을 사
용하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
의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느
낄 수 있다.

④ ㉠과 같이 가족이나 고향 친구들과 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방언 대신
표준어를 사용한다면 지역 방언을 사용할 때보다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멀
게 느낄 것이다.

06 지역 방언은 지역 고유의 향토적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적합하
다. 그러므로 지역 방언이 쓰인 소설을 표준어로 바꾸면 원래의 작
품에 담긴 고유의 향토적 정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와 같은 문학 작품의 성격은 공식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에 표준어를 쓴다 해도 공식성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③ 이 글을 표준어로 바꾸면 방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지역적 특색이나 향
토적 정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④ 이 글을 표준어로 바꾸면 이 글에 사용된 지역 방언의 사용자들이 느끼
는 친근감이 줄어들 것이다.

⑤ 이 글을 표준어로 바꾸면 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7 여자는 ‘아위다’의 경상도 방언인 ‘애비다’를 사용하여 “애비
가네에.”라고 말하였으나 남자는 경상도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여
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모의 변화나
근황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지 않는 화제를 꺼냈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여자는 남자가 아위어 보인다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가)네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 여자는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여자가 상대방이 남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그러’는 하계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 또는 합쇼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쓰는 것으로 노년 세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
현이기는 하나,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
사이다. 따라서 ‘그러’가 노년 세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사투리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가친(家親)’은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며, ‘춘부장(春府丈)’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노년 세대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③ ‘-나’, ‘-게’ 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화자가 나이가 든 손아랫사람이나 같은 연배의 친숙한 사이에 쓰는 종결 어미로 노년 세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격식체 종결 어미이다.

④, ⑤ 청소년 세대는 ‘대박’과 같이 종결 어미 없이 끝나는 말이나, ‘더럽’이나, ‘고답이’처럼 은어나 줄임말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답이’는 ‘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는 것처럼 답답하게 구는 사람’을 줄인 형태로 줄임말이자 은어이고, ‘더럽’은 ‘더 러브(The love)’를 빠르게 발음한 형태로 은어에 해당한다.

09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 뒤에 짧게 덧붙이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의문문을 말한다. 이 대화에서 부가 의문문을 사용한 사람은 여자로, ‘그럴 수 있죠.’라는 평서문 뒤에 붙여 남자에게 자신의 뜻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 그래요?’가 부가 의문문에 해당한다. 남자의 말에 나타나는 의문문 ‘시장하실 텐데 뭘 좀 드시겠습니까?’는 부가 의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드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많았습니다.’ 등에서 ‘-ㅂ니까’, ‘-ㅂ니다’라는 격식체 종결 어미(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여자는 ‘안녕하세요.’, ‘해요.’, ‘고프네요.’, ‘할게요.’, ‘아뇨.’, ‘있죠.’, ‘안 그래요?’ 등에서 ‘-요’라는 비격식체 종결 어미(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남자는 주로 평서문을 사용하고, 여자는 ‘아, 네, 아뇨, 뭐’와 같은 감탄문이나 감탄사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③ 남자는 주로 완성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여자는 ‘아뇨, 뭐…….’에서 문장을 완성하지 않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남자는 ‘급한 일 아니면 끊어.’라고 하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명령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10 혜준의 말에 앞서 연우가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생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성별이 달라서 남녀의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②, ③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남자와 여자는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반영되면서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알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해야 한다.

11 전문 용어는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 용어는 의미가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어 그에 대응하는 일반 어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 용어를 무조건 일반 어휘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전문 용어는 해당 집단 밖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인과 대화할 때는 전문 용어를 일상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② 전문 용어를 해당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용하면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동일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③, ⑤ 해당 분야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그 분야에서 쓰는 개념이나 대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2 (나)의 전공의는 환자 보호자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해당 집단 구성원들과 대화할 때처럼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전문 용어를 ‘부종’이라고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전공의는 환자 보호자가 자신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③ 전공의는 의사라는 특정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환자 보호자는 상대방이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어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13 서준은 할머니가 사용한 제주도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는 서준이 사용한 청소년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와 서준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와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에서 할머니는 ‘무승 거 허엄나?’, ‘그게 뭐우파?’, ‘맛조수다게.’와 같이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제주도 방언에 익숙하지 않은 서준은 할머니의 질문에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께 제주도 말을 배워 할머니와의 대화에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높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었다.

15 개인적 성향이나 지역, 세대 등과 같은 집단의 특성에 따른 듣기·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람마다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과의 동일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화제를 선택하여 대화한다 해도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④ 대화 참여자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면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대화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여 적절한 듣기·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지역, 성별, 직업 등에 따른 언어 차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세대의 말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다.

(2)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47~151쪽

- 01 ⑤ 02 ② 03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9 ② 10 ⑤ 11 실현, 차분 12 ② 13 ② 14 ③ 15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 ⑤ 17 ① 18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19 ⑤

01 대화할 때는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들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며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대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원리이다.

④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면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적절한 말하기로 할 수 없다.

02 “편안히 지내셨어요?”는 문병하는 상황에서 아픈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인사말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좀 어떠십니까?”,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문병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말이다.

03 대화할 때 말하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말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04 ‘안녕(安寧)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병을 간 상황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몸이 아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므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인사말이 아니다.

05 ㉠의 남학생이 말한 “달아.”의 형식은 명령문에 해당하고, 기능 역시 명령에 해당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과 ㉡의 남학생 모두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말하기 목적이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② ㉢에서 남학생은 부탁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에 비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⑤ ㉣의 남학생이 말한 “달아 줄래?”는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에 해당한다.

06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령하듯이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여학생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은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남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의 남학생은 상대방에게 명령형의 어조가 아니라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요청의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의 남학생이 한 말은 공손성이 강한 발화이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먼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미안하지만 좀 존 달아 줄래?”라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8 부탁하는 말을 할 때나 건의하는 말을 할 때는 부탁이나 건의를 받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09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며 되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ㄴ.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각인되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ㄹ. 건의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으며 대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돌려 말하면 건의를 받는 상대방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의 여학생과 ㉡의 남학생은 모두 도서관이 별관에 있어 불편하다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의 남학생이 문제 상황을 단순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의 여학생은 문제 상황을 말한 뒤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에 비해 현재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높다.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내놓는 건의하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② ㉠의 여학생은 도서관이 별관이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며 도서관을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없애자는 제안도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이에 비해 ㉡의 남학생은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의 여학생은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반면 ㉣의 남학생은 먼저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 ㉢에 비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남학생은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의 남학생은 먼저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방법은 건의하는 상황에서 건의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바람직한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12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반어적 표현이다.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직설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바**의 남학생이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어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③, ④, ⑤ **마**의 남학생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 성의 없이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해 **바**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와, 재미있겠다.”라고 하며 공감을 먼저 표시한 후,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고 거절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말에 가는 건 어때?”라고 제안을 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거절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는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이다.

13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만을 성의 없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하여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의를 갖추어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마**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직설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

③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를 한 것은 맞지만, 거절하는 입장이므로 무언가를 얻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④ **마**의 남학생은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⑤ **마**의 남학생이 감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14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많은 제안과 부탁을 받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제안과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므로, 거절하는 말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을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절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완곡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15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때 거절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대답이 성의 없게 느껴질 수 있으며, 부탁이나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6 **사**의 남학생은 약속에 늦어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않으므로써 앞으로 더 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의 남학생은 사과하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듯이 말하고 있으므로 정중하고 공손한 말하기와는 거리가 멀다.

② **사**의 남학생은 “늦어서 미안.”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사**의 남학생은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④ **사**의 남학생은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 어렵다.

17 **아**의 남학생이 “정말 미안해, 길이 막히는 바람에 늦었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④ 자신이 늦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이지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강조하거나 늦게 온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③ **아**의 남학생의 말은 공손한 발화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아**의 남학생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52~153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언어 예절 09 ③ 10 ③

01 엄마의 말을 끊으며 서준이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라는 말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린 것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 표현이다.

03 ㉠에서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엄마가 서준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엄마가 서준에게 부탁하는 내용, 즉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② 엄마가 지금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③ 자신이 부탁하고자 하는 바를 “안 될까?”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04 ㉡은 직설적인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말하고 있지 않다.
 ②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명령하는 말이므로 동의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명령문을 사용하여 명령의 내용을 전하고 있으므로 발화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05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나이,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과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나**에서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을 뿐 부적절한 존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는 청자인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생일 축하해요.”는 “생신 축하드려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수명과 관련된 표현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수고’는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의 뜻이다. ‘수고하세요.’라고 하면 ‘남아서 더 고생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므로 어른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청자와의 관계, 청자의 나이,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6 **가**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과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이때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말하는 것은 사과를 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07 **나**의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내놓는 건의하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이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할 때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말을 하였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을 하였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09 **나**의 상황에서는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하는데, ‘봉사 활동 약속’이 더 중요함을 내세워 말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때 거절의 이유는 ‘봉사 활동 약속’이 할아버지의 제안보다 앞선 것임을 제시해야 하며,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같이 부탁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처지를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④ **나**와 같이 거절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먼저 공감함을 표현한 후 자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⑤ **가**와 **나** 모두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말하기를 해야 한다.

10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어 효과적이기는 하나, 모든 상황에서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부탁하는 상황이나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건의하는 상황이나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54~157쪽

-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남학생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여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여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다. **06** 건의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③ **13** ② **14** ② **15** ③

01 이 글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그림 자료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 방법을 대조하여 보여 주고 있지만,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④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여 상황에 따른 말하기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먼저 부탁과 건의의 개념을 밝힌 뒤 그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⑤ 부탁과 건의를 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말하기 방법을 그렇지 않은 말하기 방법을 사용한 사례와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02 대화의 기본 원리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최대한 간략한 말로 표현해야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③, ④ (가)에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대화 내용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말하기로 볼 수 없으므로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3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문명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04 (나)는 부탁하는 말하기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왜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ㄱ),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말하면(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 오답 풀이** **ㄷ**, **ㄹ**. 여러 가지 부탁을 한꺼번에 나열하거나 명령형 문장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05 **나**에서 여학생은 문을 닫아 달라는 남학생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 남학생은 부탁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 미안함을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이다.

06 <보기>는 학급 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 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이다.

07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건의하는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 방법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먼저 인사말을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건의하는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이다.

② ㉡는 문제 상황, 즉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으므로 건의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④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⑤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처럼 제시한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까지 언급하면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08 ㉡의 남학생은 먼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자기 처지를 설명한 뒤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있다. 반면 ㉢의 남학생은 “문 좀 닫아.”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부탁하는 상황의 말하기이다.

② ㉠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은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안하지만 ~ (해) 줄래?”라고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③ ㉠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안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부탁을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상대방에게 문을 닫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은 “문 좀 닫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은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완곡하게 말하고 있다.

09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로,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야 한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도록 말을 해야 하지 상대방의 기분이 풀리도록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도록 말해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 줄 수 있다.

③ 사과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받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화자의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10 대화 내용 자체가 타당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언어 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11 ㉡의 남학생은 거절의 의사를 발표 준비를 다 못했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의 남학생은 사과의 말을 우회적으로 전하지 않고 “정말 미안해.”라고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와 ㉢의 남학생이 한 말은 공손한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며, 언어 예절에 어긋나

지 않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맞게 말한 것으로 이러한 말하기 태도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2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를 성의 없이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다.

오답 풀이 ① ㉡의 남학생은 이유 없이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②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다.

④ ㉡의 남학생은 “시간 없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종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⑤ 제안을 할 때에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데, 거절할 때 어떤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가령,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거절 의사를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면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절 의사를 성의 없이 말하면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제안을 한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보기>에서 손주는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이번 주말에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가기로 했다고 하며 거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완곡하면서도 예절을 갖추어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③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우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공감의 표현을 하고 있다.

④ 이번 주말에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가기로 했다고 말하며 거절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대신 이번 방학 때 함께 가시는 것은 어떠세요?”라고 하며 자신의 거절로 인해 기분이 상할 수 있는 할아버지를 배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4 (가)는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 (나)는 거절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보여 준다. (가)에서는 ㉡의 남학생이 바람직한 말하기를 보여 주며, (나)에서는 ㉢의 남학생이 바람직한 말하기를 보여 준다. (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후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의 남학생에게 필요한 태도이지만, (가)의 상황에서는 공감을 표시할 요소가 없으므로 ㉢의 남학생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의 남학생은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말하고 있다. ㉢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③ ㉡의 남학생은 “미안하지만 ~ (해) 줄래?”, ㉢의 남학생은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고 말하며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⑤ ㉡의 남학생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자기 처지를 설명하며 문을 닫아 달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 남학생도 “근데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며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5 ㉡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부탁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저녁 먹기 전에 얼른 다녀와.”라고 하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설적인 명령조로 말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남학생과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남학생과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④ 가의 남학생의 말에는 상대방과의 일치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제시된 대화의 엄마와 서준은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결국 서준이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엄마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한 것은 아니다.

⑤ 제시된 대화의 엄마는 “응? 엄마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 줄래?”라고 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가의 남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59~162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학급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06 ③ 07 ⑤ 08 ② 09 ② 10 ⑤ 11 ① 12 ① 13 (1)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2) 불벌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 ① 15 ① 16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 광화문입니다, 불리우는데요 → 불리는데요 17 ② 18 ③ 19 ④

01 가와 다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청자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버지께서’의 ‘께서’와 ‘읽으신다’의 ‘-(으)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② ‘-니다’라는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③ 특수 어휘 ‘뵤다’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⑤ 가는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 표현이고, 다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인 상대 높임 표현이며, 다는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객체 높임 표현이다.

02 ‘잡수시다’는 먹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다.

②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다.

③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말이다.

⑤ 객체인 ‘분’을 높이는 말이다.

03 ‘김 과장, 이리 와서 앉아요.’는 해요체 종결 어미가 쓰인 발화이다. 하요체가 쓰였다면 ‘김 과장, 이리 와서 앉으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앉으십시오’는 ‘앉으-+--시-+--ㅂ시오’의 형태로, ‘-ㅂ시오’는 합쇼(하십시오체)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③ ‘앉게’는 ‘앉-+--게’의 형태로, 종결 어미 ‘-게’는 하계할 자리에 쓰여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무엇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④ ‘앉아라’는 ‘앉-+--아라’의 형태로, ‘-아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⑤ ‘앉아’는 ‘앉-+--아’의 형태로, ‘-아’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04 간접 높임은 주어와 관련된 대상인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통해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③ ‘엄마, 불만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에서 ‘불만’은 주어인 ‘엄마’와 관련된 대상으로, 이를 높여 ‘있으시면’이라 한 것은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인 것으로 적절한 높임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 아닌 옷의 사이즈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높임 표현이 아니다.

② 사람이 아닌 사물인 음료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높임 표현이 아니다.

④ ‘말씀’은 ‘시장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계시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를 의미하는 ‘있다’의 높임말이기 때문에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주어를 간접 높이는 경우에는 ‘있으시다’라고 해야 한다.

⑤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학원에 빨리 가야 하는 주체인 유민이를 높여 ‘가시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높임 표현이 아니다.

05 가와 같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여 말하고, 다와 같이 학급 회의라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친구 사이여도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야 하므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것이다.

06 ㄷ은 청자인 ‘엄마’를 ‘-어요’라는 해요체를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법이 쓰인 것이며, 자기를 부른 주체인 ‘엄마’를 ‘-시-’라는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도 사용되었다. ㄹ은 ‘할아버지’라는 행위를 받는 대상을 ‘께’와 ‘드리다’라는 높임말을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이 쓰인 것이며, 청자인 ‘정희’를 ‘-라’라는 해라체를 통해 낮추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법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ㄷ과 ㄹ 모두 상대 높임법이 쓰인 것은 맞지만 객체 높임법은 ㄹ에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ㄱ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께서’라는 조사와 ‘편찮으시다’라는 높임말을 통해 직접 높이고 있다. ㄴ은 주체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눈’을 ‘밝으시다’라고 높여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주체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

④ ㄷ은 청자인 ‘엄마’를 ‘-어요’라는 해요체를 통해 높이고 있다.

⑤ ㄹ에서 ‘정희’는 할아버지께 떡을 갖다 드리는 행위의 주체이고, ‘할아버지’는 정희가 떡을 갖다 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부사어에 해당하므로 문장의 객체로서 높임을 받고 있다.

07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닌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은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이러한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을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제시된 문장에는 ‘어제, 지금’과 같은 부사어와 ‘-았-, -는’과 같은 어미가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②, ③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며, ‘-는’은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이들은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이다.

④ ‘어제, 지금, 내일’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08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사건시)이 말하는 시점(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은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놓이는 것은 미래 시제이다. ㉠의 ‘괴로워했다’는 ‘괴롭-+-어+하-+-었-+-다’로 분석되는데, ‘-었-’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과거 시제이다. ㉡의 ‘걸어가야겠다’는 ‘걸-+-어+가-+-야+하-+-겠-+-다’로 분석되는데, ‘-겠-’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미래 시제이다. ㉢의 ‘스치운다(스친다)’는 ‘스치-+-ㄴ-+-다’로 분석되는데, ‘-ㄴ-’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시제이다. ㉠은 과거 시제에 해당하므로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 것이고, ㉡은 미래 시제에 해당하므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며, ㉢은 현재 시제에 해당하므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09 ‘간밤의 비로 지금도 강물이 많이 불었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강물이 많이 불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었다’의 ‘-었-’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이 문장들에 쓰인 ‘-았-/은’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로, ㉠과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문장은 농사를 앞으로 잘 짓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지었다’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이므로 ㉠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10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한 것이다.

②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③ 혼자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을 묻는 것이다.

④ 자신이 말해도 되느냐고 상대의 의중을 완곡하게 묻는 것이다.

1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 ‘발생하여’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주차되어’는 ‘-되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③ ‘잡히지’는 ‘-히-’라는 피동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④ ‘그을렸습니다’는 ‘-리-’라는 피동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⑤ ‘추정되고’는 ‘-되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12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기자가 개인적·주관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 즉 방송 보도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② 능동 표현을 쓸 경우의 효과에 해당된다.

③, ④, ⑤ 능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의 효과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13 (1)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는 피동 표현인 ‘잡히지(잡-+-히-+-지)’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가 된다.

(2) ‘불별터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는 피동 표현 ‘추정되고(추정+ -되-+-고)’가 사용되었다.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불별터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가 된다.

14 ‘덮다’는 피동형으로 만들 때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므로 ‘덮혔다’가 아니라 ‘덮였다’라고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잡다’의 피동사는 피동 접사 ‘-히-’가 결합된 ‘잡히다’이다.

③ ‘물다’의 피동사는 피동 접사 ‘-리-’가 결합된 ‘물리다’이다.

④ ‘사육하다’의 피동형은 ‘사육’에 ‘-되다’가 결합된 ‘사육되다’이다.

⑤ ‘밝히다’의 피동형은 ‘밝히-’에 ‘-어지다’가 결합된 ‘밝혀지다’이다.

15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담화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

16 ‘광화문이 되겠습니다.’는 광화문을 소개하면서 불필요하게 ‘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광화문입니다.’로 고쳐야 하며, ‘불리우는데요’에는 ‘-리-’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데 ‘-우-’('뜯기우다', '빨리우다' 등처럼 피동이나 사동의 뜻을 강조하는 접사)를 불필요하게 덧붙이고 있으므로 ‘불리는데요’로 고쳐야 한다.

17 ㉠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 ‘-되다’와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 표현이고, ㉡와 ㉢은 피동 접사 ‘-이-’와 ‘-어지다’가 중복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 ㉡, ㉢을 묶은 ②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열어’는 능동 표현이다.

㉤ ‘보인다’는 ‘보다’에 피동 접사 ‘-이-’가 붙은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쓰였다.

18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큰따옴표는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뀌며 종결 어미도 문장의 종류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도 바뀐다. ③ ‘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라는’은 ‘는’이 되고 인용절의 종결 어미가 바뀌어 ‘그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인용절 ‘내가 먼저 연락할게.’는 평서문으로 종결 어미 ‘-게’를 ‘-다’로, 인칭 대명사 ‘내’를 ‘자기’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② 인용절 ‘같이 공부할래?’는 청유의 의미이므로 종결 어미 ‘-래’를 ‘-자’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④ 인용절 ‘거기 앉으세요.’는 명령의 의미이므로 종결 어미 ‘-요’를 ‘-라’로, 지시 대명사 ‘거기’를 ‘여기’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⑤ 인용절 ‘저도 청소를 해야 하나까?’는 의문의 의미이므로 종결 어미 ‘-까’를 ‘-냐’로, 인칭 대명사 ‘내’를 ‘자기’로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 표현이 된다.

19 ㉠과 ㉡를 비교해 보면, ‘너’라는 대명사가 ‘나’로, ‘예뻐’라는 문장 종결 어미 결합형이 ‘예쁘다(고)’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 01 ① 02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03 ①
04 ② 05 ② 06 ③ 07 사람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②
17 ④ 18 ①

01 (가)의 왼쪽 그림은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상황, 즉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은 가족과 대화를 하는 상황, 즉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황이 공식적이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황이 비공식적이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소설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나고 토속적 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 친근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③ (나)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반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④ (다)에서 남자는 여자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의 의미를 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가)~(다)를 통해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02 공식적인 상황이나 다른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친척들이나 고향 친구와 대화할 때,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연극, 문학 작품의 대사를 처리할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상황이나 상대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서술하였으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관계를 서로 보충해 주는 관계 등으로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3 〈보기 1〉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고, 〈보기 2〉는 이를 강원도 방언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원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기 2〉는 강원도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보다 잘 느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두 작품 모두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용하여 다시 제시하는 수미 상관의 구성을 취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시를 바꾸어 써서 새롭게 얻은 효과로 볼 수 없다.

③ 〈보기 1〉에서는 ‘-오리다.’를, 〈보기 2〉에서는 ‘-기래요.’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얻은 효과로 볼 수 없다.

④ 두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두 작품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김소월,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감상: 이 시는 이별의 정한을 토속적 시어와 민요적 가락을 사용하여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전통적인 여인을 화자로 내세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와 관련된 정서를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을 떠나보내지만 임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헌신적인 사랑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된 화자의 분신이다.

04 〈보기〉는 사회 방언에 대한 설명이다. ‘정구지’는 ‘부추’의 방언(경상, 전북, 충청)이고, ‘무싱거팡’은 ‘무엇입니까?’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따라서 ②에는 〈보기〉의 방언이 사용되지 않았고, 지역 방언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에이에이피’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직업과 관련된 사회 방언이다.

③, ④ ‘춘부장, 가친’과 같은 말은 노년 세대가, ‘대박, 더럽, 고답이’와 같은 말은 청소년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말로 세대에 따른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⑤ ‘누님’, ‘시집’, ‘장가’와 같은 말로 보아, [A]는 남자가 한 말이고, [B]는 여자가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다른데 이 또한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05 노년 세대에서는 격식체를 주로 사용하고, 한자어와 예스러운 표현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 세대가 꼭 지역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②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발표나 강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같은 지역 사람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④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을 해당 직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⑤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은 성(性)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생활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06 ‘나’가 경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에 대해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애둘러 표현한 것을 경수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07 (가)는 신조어가 생겨나 세대 간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대화 참여자들이 각각 제주도 방언과 청소년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나)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를 모두 서술하였다.	상
(가)와 (나)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만을 서술하였다.	중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녀야 하는 태도만을 서술하였다.	하

08 거절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의 남학생과 같이 상대방의 제안에 ‘와, 재미있겠다.’ 등의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행동이 위선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글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의 남학생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거절 의사만을 밝히는 것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②, ③, ④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상황이므로 거절 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따라서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09 ㉠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한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⑤는 ‘오랜만에 음악회라니 참 즐겁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고, ‘하지만 내일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말은 어떨까?’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공감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④ 새로운 대안 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10 ‘내 실수로 물을 엔질렀네. 미안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있으나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약속도 나타나지 않는다.

11 부모상을 당한 회사 동료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고 상주를 위문하는 문상(問喪) 상황에 맞는 인사말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웃어른에게 ‘절 받으세요.’라는 명령형의 인사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른의 생신이므로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말해야 한다.

④ 문병이라는 상황에 적합한 인사말이 아니다.

⑤ 어른에게는 애를 쓰다는 의미의 ‘수고하세요.’ 대신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에서는 자기의 처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하고 있고, ㉡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다시 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과 ㉡은 모두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를 지킨 것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어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지 않고 있다.

㉡ 부탁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령하듯이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13 ‘드리럼’은 객체를 높이는 ‘드리다’와 ‘상대방(청자)’을 낮추는 해라체의 ‘-럼’이 결합된 말로,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께’는 부사어에 해당하며 ‘할머니’가 곧 객체이다.

② 어머니가 승찬에게 하는 말이다.

③ ‘가져다’는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도 아니고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인 말도 아니다.

⑤ ‘께’와 ‘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4 ‘주무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무시다’는 ‘주무다’라는 말에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각각 주어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에 ‘-시-’를 붙여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을 사용한 말이다.

④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직접 높이고 있다.

15 ②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와 조사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너’를 높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사물인 ‘구두’를 잘못 높인 말이므로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③ ‘-되다’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하여 이중 피동인 경우이다. 자기 생각, 판단 등을 말할 때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나 ‘생각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믿겨지지’는 ‘믿-+-기-+-어지’가 결합된 것으로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겹친 이중 피동어이므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데려다’를 높임의 특수 어휘인 ‘모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6 제시된 문장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교환해 주지 않는 업체 측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표현이다.

17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 ㉠의 ‘지금’, ‘읽는(-는)’, ㉡의 ‘현재’, ‘한다(-ㄴ-)’로 볼 때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과 ㉡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 - ㉢의 ‘떠날(-ㄴ-), ‘곧’, ‘따라갈게(-ㄴ-계)’, ㉣의 ‘내일’, ‘내리겠습니다(-겠-)’로 볼 때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 ㉥ - ㉥의 ‘어제’, ‘뒀었다(-았-), ㉦의 ‘아까’, ‘먹은(-은), ‘맛있었어(-었-)’로 볼 때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18 ㉠은 경비원의 말을, ㉡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한 표현이다.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③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붙여 사용하고, 간접 인용 표현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경우 문장의 종결 어미도 바뀐다.

⑤ ㉠과 ㉡은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한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70~172쪽

- 01 ④ 02 ㄱ, ㄷ 03 ⑤ 04 ④ 05 ⑤ 06 표제
07 ⑤ 08 ④ 09 ④ 1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11 표현 방법

01 텔레비전 매체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 매체보다 많은 정보를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매체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어서 녹화를 하지 않는 한 정보의 보존이 어렵다.

② 텔레비전 매체는 주로 음성 언어, 영상, 자막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③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므로 개인이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없다.

⑤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인쇄 매체이다.

02 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의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축제장을 찾은 것(ㄱ)과 보령시가 로토루아 시에 머드 원액, 머드 체험 시설, 머드로 만든 제품 등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ㄷ)이다.

오답 풀이 나. 보령 시장은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뉴질랜드에 수출하여 축제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ㄷ. 기사의 내용이나 자료 사진을 통해 볼 때 보령 머드 축제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보령 머드 축제에 관한 사실 정보와 기자의 긍정적 관점이 담긴 의견이 혼합되어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앞서 보령시가 뉴질랜드와 수출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보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③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보령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기자가 끝부분에서 다시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4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을 단순화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인쇄 매체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인쇄 매체를 사용하면 동일한 내용을 많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② 인쇄 매체는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한다.

③, ⑤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며 사진, 그래프, 그림 등의 보조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05 보령 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머드 축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독자에게 머드 축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표제는 '축제 한류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부제는 '스페인 이어 뉴질랜드에 수출, 외국인 관광객 약 44퍼센트 늘어나', 전문은 '국내 대표 축제인 ~ 26일 밝혔다.', 본문은 전문 이후 모든 내용이 해당한다.

② '43만 9,000여 명', '30만 4,000여 명', '44퍼센트' 등 올해 머드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구체적 통계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전문과 본문에서 보령시가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 수출 협약을 맺었음을 전하고 있다.

④ 보령 머드 축제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

06 나 의 기사문은 '표제 - 부제 - 전문 - 본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글쓴이의 관점은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하여 '축제 한류'를 이끈다며 긍정적으로 제시한 표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07 제시된 사진은 보령 머드 축제의 사진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즐거운 얼굴로 축제를 즐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사진을 통해 보령 머드 축제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머드 축제가 진흥을 이용한다는 것은 굳이 사진 자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며, 글의 주제와 관련성도 떨어진다.

②, ③ 보령 머드 축제의 사진이므로 로토루아 시에서의 축제나 외국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④ 보령 머드 축제에 외국인이 많이 찾았다고 하였을 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08 다 는 인쇄 광고로서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모두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인쇄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포스터와 같은 인쇄 광고이므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기에 적합하며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렵다.

③ 인쇄 매체이므로 정보의 보존성이 뛰어나다.

⑤ 영상과 자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매체이다.

09 다 에서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을 맨 앞에 그리고 그 옆에 외국인을 그려 넣은 것은 전통놀이 체험이 행사의 핵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문자 언어를 통해 머드 축제의 날짜 및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② 다 는 인쇄 광고로 머드 축제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다. 따라서 주최측은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활용하여 행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10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쇄 광고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이나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한 것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홍보 대상으로 삼아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는 광고의 정의와 목적, 광고를 볼 때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이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광고에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면 광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73~175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보령 머드 축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07** ⑤ **08** ⑤ **09** ② **10** ③

01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고,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공정하고 (나)가 공정하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령시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 간의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달하는 기사문이고,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문이므로 (가)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를 제재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축제 한류’라는 말을 통해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에서는 공연과 머드를 활용한 체험 행사가 재미있지만 대기 시간이 아쉬움을 보여 준다. 표제와 부제를 통해 본문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는 긍정적인 데 비해 (나)는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반면, (가)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았고, (나)에서는 머드 체험장의 시설물과 먹을거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02 [C]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다고 한 진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정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수출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② [B]에서는 뉴질랜드 대사가 직접 축제장을 찾고 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④ [D]에서는 보령시가 집계한 보령 머드 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E]에서는 보령 시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이 담긴 의견이 아닌 사실 정보로 볼 수 있다.

03 (가)는 보령시에서 집계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기사문의 구성 방식인 ‘표제-부제-전문-본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③ 축제의 관계자인 보령 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축제의 전망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은 신문 기사로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개인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보령 머드 축제의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04 2문단의 “뉴질랜드로의 두 번째 머드 수출을 위해 보령시는 지난달 보령 시장 등이 로토루아 시를 방문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 협약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에서 맺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은 것은 협약을 맺은 이후에 보령 시장과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국내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해외에 전파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해마다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로토루아 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머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05 (나)는 인터넷 기사로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뿐 아니라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ㄴ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머드 체험 구역의 시설물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에 이르러, 입장료 대비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ㄷ은 “음식 선택의 폭이 좁으므로 먹을거리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실을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ㄱ.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머드 광장에만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머드 광장의 시설물 고장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ㄴ. (나)는 올해 열린 보령 머드 축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에 연속으로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06 (나)를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면, (나)는 ‘축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외국인 홍보 단원이 머드 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전달하고 이어서 대기 시간, 먹을거리, 교통수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선점도 언급하고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07 (가)는 인쇄 광고로 이미지, 배경, 광고 문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나)는 텔레비전 뉴스로 음성 언어와 자막, 영상 등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나)는 (가)와 다르게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매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문자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지만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포스터는 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영상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데, 내용으로 보아 사실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인쇄 매체인 (가)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가), (나) 모두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

08 보령 시장의 인터뷰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뉴질랜드에 수출된다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을 뿐,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축제장을 찾아 즐겼다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뉴스 진행자가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다고 한 것과, 기자가 끝부분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한 데서 긍정적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④ 기자의 말을 통해 보령시가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와 관련한 수출 협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09 보령 시장의 인터뷰 내용은 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뉴질랜드에 수출하여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기자가 보령 머드 축제의 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현장감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기자가 앞서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원액 수출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협약 증서를 자료 화면으로 보여 주면 기자의 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④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자막과 함께 보여 주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띠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축제의 즐거움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10 뒷부분에서 축제에 가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한산 대첩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통영 한산 대첩 축제를 홍보하는 의도로 쓴 글로, 통영 한산 대첩 축제의 기간, 장소,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잘 드러나 있다.

② 글의 첫부분에 '죽고자 하면 살 것ियो,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인용해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축제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④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독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축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제시하면 축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⑤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가지 않는다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조?'는 지나친 비약으로 편견에 치우친 표현이다. 따라서 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마지막 짚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77~187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 **07** ④ **08** ③ **09** ② **10** 강 노인의 땅에 쌍둥이 빌딩을 짓고, 거기에 초초화판 위락 시설이 들어서면 동네가 환해질 것이다.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③ **17** ①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④ **23** 땅을 판 돈으로 해결해야 할 것 **24** ⑤ **25** ① **26** ⑤ **27** ② **28** ② **29** 팔육인가 팔팔인가, 도로 주변 미화 사업 **30** 강 노인의 머느리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동네 지주인 강 노인이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1** ② **32** ⑤ **33** 도시화 열풍(개발 열풍) **34** ② **35** ③ **36** ③ **37** ④ **38** 미련, 애정

01 '원미동 아이들은 집 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분석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서술의 초점이 한 인물에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 지물포 주 씨 등 여러 명의 원미동 주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은 1인칭 시점이다.

④ 인물의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공간적 배경인 원미동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신비로운 분위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검댕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얼굴을 묘사한 것은 불장난을 한 아이들의 얼굴이 그을음 때문에 검정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부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그을음'을 '나방 떼'에 비유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③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달아나 버린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주고 있다.

03 (라)에서 강 노인 말고는 강남 부동산이 원미동 23통에 가장 오래 터를 잡고 있는 가게라고 하였으므로, 원미동 23통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강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이라고 부르기도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와 아직도 팔지 않은 땅이 삼백 평 남짓하다는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강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말고 웅문이를 부르면 그의 이층집에 있던 막내아들 웅문이가 금세 튀어나오곤 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④ '혈값의 원미동 땅들이 ~ 눈부실 정도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4 "고흥댁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아들 웅문이를 어찌나 간간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강 노인의 성격이 다정다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 ‘고흥댁 말에 의하면 ~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 거간꾼이 돼 버렸다는 박 씨였다.’ 등에서 작품 속 인물인 고흥댁의 말을 전해 듣는 형태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이익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와 같이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06 박 씨가 한때 서울 강남땅을 떡 주무르듯 했다는 사실과, 혈값인 원미동 땅들을 황금값으로 올리는 데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한 것을 통해, 그가 원미동을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큰 이익을 챙겼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모는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강 노인은 비싼 땅에다가 푸성귀 따위를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땅값이 오르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 줄 자식은 없어서’를 통해, 강 노인의 자식들이 강 노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해도 강 노인은 올해 봄에도 어김없이 밭농사를 짓고자 한다.

③ 강 노인이 동네가 개발될 것이라는 박 씨의 말을 믿지 못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강 노인이 농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농사를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강 노인은 땅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땅을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밭농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08 강 노인이 말하는 ‘서울 것들’이란 농사를 짓는 그의 밭에 연탄재를 함부로 내다 버린 동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땅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연탄재를 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땅이 없는 가난한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② 땅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것일 뿐 농사일을 천박하게 여기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연탄재를 버린 사실만으로 푸성귀를 흉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농사보다 도시 발전에만 관심을 갖는지는 이 부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09 강 노인은 박 씨의 얼굴을 보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 이 이유는 ㉠의 뒤에 제시되어 있다. 즉 강 노인은 땅을 팔 생각이 없는 데 박 씨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땅을 팔아 보라고 회유를 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④ 강 노인이 박 씨의 외모를 질투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③ 강 노인이 한사코 농사를 짓겠다고 한 데서 그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땅을 팔 생각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박 씨가 강 노인의 차림새를 보고 그를 무시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0 ㉠ 뒤에 이어지는 ‘강 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 동네가 삼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를 통해 박 씨가 늘어놓는 온갖 ‘감언이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친의 명물로 만들고, 초호화판 위락 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환해질 것이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11 고흥댁은 자기네는 셋방 소개로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강 노인의 땅을 팔아 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한동네 사는 정’ 때문에 하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 부부가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강 노인을 끈질기게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의 이익을 위해 땅을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강 노인의 땅에 대한 소개로나 그 외 이익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이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회유하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울 것들’이라 비난하고 원미동 사람들을 모두 서울 꼬나몰이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③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셨을 때 투박 팔아 치우시요.”라는 고흥댁의 말을 통해 그는 강 노인이 땅값을 더 받으려고 땅을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건물 웅도부터가 강 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12 박 씨는 팔팔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 집 매매가 끊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땅을 산다는 임자가 나셨을 때 팔아야 한다고 강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앞으로 북의 위협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 아단인디…….”라는 고흥댁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영감님, 유 사장이 ~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라는 박 씨의 말과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요!”라는 고흥댁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3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팔팔 올림픽 전에 ~ 매기가 툭 끊겼다 이 말입니다.” 등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며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강 노인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이 과거에 행한 잘못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쟁점에서 벗어난 화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④ ‘여름마다 똥 냄새 풍겨 주는’을 주위 사람들의 불만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강 노인이 가진 땅에 대하여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다며 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14 (자)에서 강 노인은 용문이에게 밭을 지키게 하다가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밭을 지켰다고 했다. 용문이를 믿지 못해서 강 노인이 나선 것인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청소차가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서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버리는 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의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에 대한 분풀이로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내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서울 꼬나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 둔 밀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에서 알 수 있다.

⑤ '중략 부분 줄거리' 중 "강 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자)는 겨울이면 강 노인의 밭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결과와,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는 전지적 위치의 서술자로, 앞부분과 달라지지 않았다. ② 서술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할 뿐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④ 대화와 행동 위주의 극적 제시가 아니라 서술자의 분석을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리 소설적 기법이나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16 '서울 것들'이 강 노인 밭에 내다 버린 연탄재로 인해 강 노인과 '서울 것들', 곧 동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을 소외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연탄을 때서 난방을 하였으므로 연탄재가 꼭 고달픈 삶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강 노인의 발농사를 망치는 것이므로 강 노인의 농사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⑤ 연탄재를 매개로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이 소통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탄재로 인해 동네 사람들과 강 노인의 갈등이 유발된다.

17 '내력'은 '지금까지 지내는 경로나 경력'을 의미한다. '내림'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특성'을 뜻하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실정'은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라는 뜻으로, '실제의 상황'을 뜻하는 '실황'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허사'는 '보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이라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 또는 그런 수고'를 뜻하는 '헛수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생돈'은 '쓸데없는 곳에 공연히 쓰는 돈'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을 지닌 '날돈'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속셈'은 '마음속으로 하는 공리나 계획'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을 지닌 '속공리'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8 미용실 여주인은 정미 엄마와 무궁화 연립 사람들을 언급하며 강 노인에게 반사회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반사회에서 정미 엄마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까지 물려와 한바탕 쏟아 놓고 갔다는 내용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 밭의 인분과 물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6반 반장인 미용실 여주인은 이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강 노인에게 반사회에 참석하기를 권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미용실 여주인은 강 노인에게 우호적이므로 그가 발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 반사회 참석을 권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강 노인과 임 씨 사이에 앙금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미용실 여주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③ 5반장인 형제 슈퍼 김 씨보다 우리 정육점의 임 씨가 똥 냄새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였을 뿐 김 씨가 강 노인의 발농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무궁화 연립은 5반에 속하므로 6반 반사회에서 직접 강 노인에게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19 강 노인의 발농사를 '노는 땅에 푸성귀를 갈아먹는 심심풀이 농사'라고 한 것은 임 씨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낸 진정서에 대한 시청의 답변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이태 전 강 노인이 임 씨에게 쇠백정이라고 한 일로 임 씨가 아직도 강 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②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 임 씨가 올해 또한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 틀림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임 씨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 노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 씨 스스로 강 노인에게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임 씨는 강 노인에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똥 냄새 문제를 들어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시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 노인의 발농사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20 제시된 부분에서는 동네 사람들, 그중에서도 집주인들과 강 노인의 갈등, 강 노인의 아내와 강 노인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주된 갈등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21 (타)의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 노인 밭이 저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에서 집주인들이 강 노인의 발농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인분 냄새, 동네 경관 훼손 등은 집값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므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집주인들이 강 노인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살기를 바라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22 ㉠에서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라는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있다. ㉠의 뒤에 이어지는 자식들의 부정적 행태를 고려할 때 항상 선부른 행동으로 폐돈을 날리는 자식들을 다시금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의 아내는 땅을 지키고자 하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자식들을 돕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내에게 강 노인이 화가 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펄펄의 물을 뽑아 올리는 일이 아내의 말에 응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 보기는 어렵다.

③ 강 노인이 자식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돈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땅을 판 돈이 모두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이다.

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선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를 통해 강 노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은 자식들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땅덩이로 막아져야’ 함을 고려할 때, 강 노인은 결국 자식들이 벌여 놓은 일을 자신의 땅을 팔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손주인 경국이 말에 의하면 큰며느리는 돈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상회에 참석하였다. 그것이 강 노인을 걱정해서 한 행동인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반상회에)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다.”에서 강 노인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반상회에 가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②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에서 동네 사람들이 반상회에서 강 노인의 땅 문제를 성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경국이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 큰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에 참석한 모양이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을 통해 알 수 있다.

25 ㉠은 강 노인이 고추 모종이 자라는 자신의 밭에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내던진 것을 보고 놀라서 말문이 막힌 상황이므로,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함.’을 뜻하는 ‘망연자실’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반신반의(半信半疑)는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을 의미한다.

③ 함구무언(緘口無言)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④ 자업자득(自業自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을 의미한다.

⑤ 비분강개(悲憤慷慨)는 ‘슬프고 분하여 울분이 북받침.’을 의미한다.

26 ㉡는 김 씨가 건넌 인사말로, 김 씨는 아내에게 들은 말을 전하며, 이미 팔기로 한 땅에 공들여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를 전할 뿐 강 노인이 정말 땅을 팔기로 했는지 그 진위를 확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연탄재 폭격을 당한 모종들이 짓뭇개지고 쓰러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연탄재는 모종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② 고추 모종을 심어 놓은 밭에 연탄재를 뿌린 동네 사람들을 향해 강 노인이 밝은 말로, 생명을 해치려 한 그들의 행위를 짐승의 처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동네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강 노인은 모종을 심어 놓은 밭에 연탄재를 뿌린 것을 보고, 서울 것들이라 이러한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는 서울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울 것들은 땅의 가치를 모른다는 강 노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연탄재를 뒤집어 쓴 고추 모종을 보며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 허둥대고 있는 강 노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고추 모종에 대한 강 노인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27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해?”,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는’에서 강 노인은 자신이 땅을 내놓았다는 소문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김 씨는 팔기로 한 땅을 가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 강 노인이 땅을 내놓은 처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땅에 은행이나 병원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박 씨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이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

④ ‘그냥 해 본 소리겠지요.’ 등을 고려할 때 강 노인의 며느리가 강 노인을 걱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강 노인의 며느리는 반상회에 가서 시아버지인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마누라’는 이것을 ‘그냥 해 본 소리’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도 합의가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8 앞의 내용에서 강 노인의 아들들이 직공들 월급도 밀리고 처가에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반상회에서의 일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땅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강 노인의 아내는 ‘또 한 차례 오금을 박’듯이 땅을 팔자고 종용한다.

③ 강 노인이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자 동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분풀이로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내다 버렸다.

④ 반상회에 참석한 큰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으로 이야기한 후, 이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

⑤ 반상회에서 큰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은혜 엄마는 강 노인을 찾아와 큰며느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줄 것을 하소연하였다. 강 노인이 땅을 팔았더니 계약금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다.

29 이 글은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팔육인가 팔팔인가’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이르는 말이고,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은 앞의 국제 대회를 앞두고 정책적으로 실시했던 국가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30 ‘이 동네 지주의 큰며느리라 해서’를 통해 동네 사람들은 큰며느리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강 노인이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31 강 노인은 땅을 팔아 큰돈이 들어왔지만 쉽게 생긴 돈인 만큼 씹씹이도 허망했던 경험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땅 조각이라도 붙들어 그곳에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재미를 맛보고 싶은 마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강 노인이 땅을 큰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를 통해 강 노인이 자신의 땅을 생활의 터전이자 씨 뿌리고 수확하는 재미를 맛보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등에서 강 노인의 땅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다.

④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 강 노인이 땅을 필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강 노인은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에 땅을 파는 문제로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이라는 뜻의 ‘전전반측’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고립무원(孤立無援)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한다.

② 전전긍긍(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의미한다.

③ 수원수구(誰怨誰咎)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암중모색(暗中摸索)은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을 의미한다.

33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등을 통해 '서울 바람'은 동네에 불어닥친 도시화 열풍 또는 개발 열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4 '절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택의 말은 뒤에 나오는 '강 노인의 땅을 밟고 빌려준 돈이니까'를 고려할 때 김영진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돈을 빌려주어도 떼일 염려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여 생돈을 떼이게 생긴 은혜 엄마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③ 은행 대출 기간이 차서 은행으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왔음을 언급함으로써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떼뺏기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강 노인의 관점에서 강 노인 아내의 행동이 서술되고 있다.

⑤ 강 노인과 다툼 후 눈물을 흘리다가 아들 방으로 가 버리는 강 노인의 아내의 행위를 제시하여 강 노인에 대한 섭섭함과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35 이 글에서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외면한 채 땅을 개발의 대상 또는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동네 사람들 및 강 노인의 가족들과 땅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 내고자 하는 강 노인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산업화·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터전인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을 압박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웃과의 교류가 사라지는 세태를 비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발농사를 막으려는 것은 전통적인 먹을거리를 외면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밭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④ 강 노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부장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⑤ 강 노인의 자식들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땅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세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6 '빛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변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패썹하기 짝이 없었지만'을 통해 용규 내외가 진 빛을 강 노인이 땅을 판 돈으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7 ㉠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쬘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땅을 팔기로 결심한 강 노인의 허탈한 심정과 대비되는 모습을 제시하여 강 노인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채소에 물을 주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으므로 행복한 결말이나 주제 의식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⑤ 강 노인의 허탈한 심정을 부각하므로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물 간의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38 강 노인은 부동산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고는 밭에서 나는 것들에게 목이나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에 물을 가지러 간다. 이를 통해 강 노인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땅에 아직 미련이 남았고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88쪽

01 ⑤ 02 ⑤ 03 ② 04 문득 05 ③

01 화자가 시의 표면에 '나'로 등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을 뿐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출근길에 경험한 내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② 화자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서술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에서 깃털 색깔에 관계없이 잘 어울리는 새와 자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차별적 시각을 가진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④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에서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02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을 통해 화자가 '저이들'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에는 화자나 '저이들'의 삶이 힘들다거나 고달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고달픈 삶'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시안 젊은 남녀'를 말하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저이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② '저이들이 무엇하려고'는 아시안 남녀가 국철을 탄 이유에 대한 화자의 천박한 호기심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화자가 그들을 쳐다보았음에도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떠들 뿐 화자에게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④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는 것은 편견 없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03 이 시의 화자는 국철에서 아시안 남녀를 발견하고 이들을 천박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호기심과 달리 평범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저이들’과 ‘나’ 모두 국철 안에서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의 화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을 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04 화자가 아시안 남녀를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그들의 평범한 모습을 보고 문득 자신의 천박한 호기심을 깨닫게 된다. ‘문득 ~ 돌렸다’는 부분부터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므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5 ‘자기 계발’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살리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므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본문 189~192쪽

01 ② **02** ③ **03** 연탄재, 팔팔 올림픽 **04** ③ **05** ②
06 현실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07** ④ **08** 강 노인네 땅이 팔려 거기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야 동네 신수가 흰해져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09** ⑤ **10** ⑤ **11** ① **12** ⑤ **13** ①
14 ⑤

01 부동산의 박 씨가 강 노인에게 집요하게 땅을 팔 것을 회유하는 것이나 강 노인의 땅을 사들인 후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부친의 명물로 만들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것 등을 볼 때 이 작품이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강 노인이 박 씨에 대해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를 이 글에서 찾기 어렵다. 강 노인이 박 씨와 마주치기를 꺼려 하는 것은 그의 외양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만날 때마다 땅을 팔라고 회유를 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고흥택은 박 씨의 동업자로, 박 씨를 거들며 함께 강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②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솥제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데에서 회유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 내고 겨우 맨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⑤ 박 씨는 땅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종용하거나 ‘임자가 나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중개인임을 알 수 있다.

03 (가)에서 ‘연탄재’는 80년대 난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연탄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나)에서 ‘팔팔 올림픽’은 198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서울 올림픽을 이르는 것으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이다.

04 (나)는 강 노인과 박씨 부부와의 대화 장면이다. 땅 문제로 박씨 부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강 노인의 처지가 드러나고, 그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서 강 노인의 강직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씨와 고흥택이 번갈아 강 노인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그리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고조되는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주로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장황한 해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과거의 사례를 잠시 제시할 뿐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⑤ ‘팔팔 올림픽’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지만 당대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5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 씨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를 통해 볼 때 임 씨가 집주인들을 대표하여 강 노인과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때론 벌 궁리에 때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간경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 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지물포 주 씨와 사진관 엄 씨도 코앞에 발을 두고 있는 처지이지만 강 노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고 ‘셋방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 그렁고 청소원 김 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알은체를 해왔’다는 것에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강 노인이 농사를 짓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아,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려.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 놓은 일인데 넘 보듯 하지 말고…….”라는 강 노인의 아내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06 이 글과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동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한 채 자본을 중시하는 현실적,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강 노인의 아내와 자식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고 있으므로 전통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 (라)에서 강 노인은 모종이 심겨진 밭에 연탄재를 버린 사람들을 비난하며 모종을 살리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 이와 같이 강 노인은 도시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땅을 지켜내고자 하므로 땅을 삶의 터전이자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08 집주인들은 강 노인의 밭이 동네의 격을 떨어뜨리고 집값 상승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집주인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 노인의 땅이 개발되어 동네 신수가 흰해져야 땅값이 오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9 (다)에서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라고 말하는 아내 쪽을 보지도 않고 물을 뿜아 올린다.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돈 문제를 자신이 또 해결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㉞는 (다)에서 강 노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다.

② ㉞는 '작공들 월급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에서 알 수 있다.

③ ㉞는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라. ~ 녀 보듯 하지 말고.'에서 알 수 있다.

④ ㉞는 '제 형이 보낸답디다. 처가 돈이라든 꾸어 오라고.'에서 알 수 있다.

10 강 노인은 땅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땅을 팔지 않기를 원하고 자식들은 강 노인이 땅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강 노인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11 ㉠은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자는 아내의 말에 지금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대부분의 땅을 팔았다고 하며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말이다. 강 노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땅을 팔아 지금까지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해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또다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다는 뜻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거절의 뜻을 밝힐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③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 있게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은 강 노인이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강 노인은 자신에게 삶의 보람과 위안을 느끼게 하는 공간인 땅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팔기로 결심한다. 이를 통해 강 노인은 땅을 팔지 말지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땅을 팔지의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고 자식들에 대한 감정은 지엽적인 문제이므로 자식들에 대한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땅을 팔면 그 돈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므로 땅을 팔아 생기게 될 돈의 사용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예전에 땅을 팔아 버린 것에 대해 강 노인은 '다 부질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보기〉는 이 글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A]에서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했음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밭에 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작가는 땅을 삶의 근원으로 보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개발 행위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한 것은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들 때문이므로 강 노인의 땅에 대한 인식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땅을 개발하더라도 최소한의 농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입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땅의 개인적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독자는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 이때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인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주제적으로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작품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작품을 생산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③, ④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삶의 방식 및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작가의 생각에 공감 또는 비판하도록 한다.

(3) 책으로 세상 읽기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94~196쪽

01 ③ 02 ④ 03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 매체 ㉡: 재구성

01 '최악의 저출산 해결책은 공동 육아'와 같은 이 글의 제목과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등을 참고할 때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공동 육아 시설의 부족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④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함께 문제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저출산이 낳는 결과이다.

02 글쓴이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행복을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을 뿐,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고취의 일환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새로운 육아 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홍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육아 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 인식 고취의 일환으로 국내 적정 인구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03 이 글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쓴 칼럼으로,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04 이 글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들의 대안을 모으는 것은 자신의 생각 형성하기가 끝난 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해 보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③, ④ 자신이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05 제시된 생각그물을 통해 볼 때 ‘환경’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생각을 펼쳐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환경 낙후 문제’는 환경 오염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시된 생각그물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삶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기 오염’을 통해 떠올릴 만한 문제로 적절하다.

②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통해 떠올린 문제로 적절하다.

④ ‘화학제품’인 ‘농약’을 통해 떠올릴 문제로 적절하다.

⑤ ‘화학제품’을 통해 떠올릴 내용으로 적절하다.

06 <보기>의 독서 일지를 보면 학생이 읽은 책이 화학제품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살충제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인류의 생존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라는 화학제품 이외의 문제를 떠올린 것은 이 책의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독서 일지의 ‘인상 깊은 내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⑤ 벌레를 잡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가 사람과 동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 내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독서 일지의 ‘책에 선정한 이유’ 중 ‘화학제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07 읽기는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책을 읽고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이 확장될 수 있으며(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을 대안을 찾아보면서(②) 자신이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⑤). 그러나 책을 읽고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후에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은 후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08 ㉠ 뒤에 이어지는 살충제가 인류를 포함한 자연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새로 알게 된 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살충제’가 사람과 동물의 몸에 축적되어 질병을 일으키고 먹이사슬로 다른 개체들에게도 전달된다는 내용을 통해,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생활 속의 실천 방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살충제가 자연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 ‘마스크 착용’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는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살충제의 해악을 알아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살충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전체에 대한 내용이며 생활 속의 실천 방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친환경 살충제 개발은 생활 속의 실천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9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을 만드는 것이므로 읽은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책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참신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책 소개 등)을 광고로 신는 것이 적절하다.

10 사회적 문제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완성한 신문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책 내용이나 책에서 다른 사회적 문제가 신문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지 평가하는 것은 평가 기준과 거리가 멀다.

11 신문을 만들 때는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신문을 만드는 것이므로 책을 읽고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지면에 배치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본문 197~201쪽

01 ④ **02** ② **03**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04** ② **05** ⑤ **06** ② **07** ① **08** ① **09**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 **10** ① **11** ① **12** ⑤ **13** ③ **14** ⑤ **15** ⑤ **16** 저출산이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시켜 노동력이 약화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01 (나)는 신문 기사로서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가)는 텔레비전 뉴스로서 음성 언어, 자막, 영상 등을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므로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같은 텔레비전 방송은 전파를 이용하므로 인쇄 매체인 신문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녹화를 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내용이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다.

③ (나)와 같은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므로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⑤ (가)의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나)의 신문 기사는 인쇄된 내용을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뉴스나 신문 기사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방송 매체나 인쇄 매체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

02 (가)와 (나) 모두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와 관련하여 수출 협약을 맺었음을 알리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축제를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다.

③ (가)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소개하고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진다.

④ (나)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⑤ (나)는 보령 머드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03 (가)의 기자의 첫 번째 말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을 제시하고, 이어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직접 보여 주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 주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상
뉴질랜드 대사가 인터뷰하는 장면 외의 다른 내용을 서술하였다.	하

04 (나)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05 이 글의 서술자는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 냄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 노인 발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등과 같이 집주인들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들이 강 노인의 발농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밭에서 나는 똥 냄새뿐만이 아니라 강 노인의 발로 인해 자신들의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때돈 벌 궁리에 때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는 강 노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독자가 강 노인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오답 풀이 ①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② 주로 강 노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로 강 노인과 집주인들 간의 갈등이나 강 노인과 강 노인의 아내와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강 노인이 처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이 처한 상황도 그리 긴박하지는 않다.

06 진만이 아버지가 강 노인에게 공손하게 알은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그가 집주인들이 강 노인을 무례하게 대한다고 여기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 이래 ~ 영락없이 마꾸라지였다.’에서 용문이가 농사일에 흥미를 잃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의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와 (다)에서 “똥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과 그 다음 대사인 “그 전에 제 가격 받고…….”를 통해 강 노인의 아내가 똥을 팔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때돈 벌 궁리에 때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지물포 주 씨의 가게가 강 노인의 발 가까이에서 똥 냄새가 심할 텐데도 각듯이 강 노인에게 어른 대접을 갖추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07 ㉠ 앞의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선부른 행동’을 고려할 때, 강 노인은 결국 자식들이 벌여 놓은 일을 자신의 땅을 팔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을 통해서는 강 노인이 땅을 팔더라도 자식들의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③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를 통해 강 노인이 결국 땅을 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이 글을 통해 자식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⑤ 강 노인의 아내가 자식들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 강 노인이 자식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8 ‘셋방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에서 진만이 아버지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서울로 모여드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주택난이 심각해진다고 하였는데, 작품의 배경인 원미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신도시이다. 따라서 그가 셋방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주택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 등에서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웃과의 갈등도 불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에서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바탕에는 땅을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 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인분 뿌리며 푸성귀를 갈아먹는대서야’에서 강 노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에서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적 삶의 방식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 노인이 집주인들의 향의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삶의 방식이 외면당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⑤ 강 노인의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고통을 겪을 텐데도 강 노인에게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는 지물포 주 씨와 사친관 엄 씨의 모습을 통해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도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9 이 글에서는 남은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강 노인의 입장과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그 이자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강 노인 아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땅을 팔아 자식들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 함.’ 또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이라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0 이 글에서 강 노인이 고흥댁에게 땅을 팔아 빚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답 풀이 ② (가)의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다)의 '철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강 노인 아내의 말인 "그 못난 놈이 ~ 경교장이 날아왔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의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 씨'에서 김 씨가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가 버려진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에서 강 노인은 땅을 생명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답 풀이 ② 강 노인이 땅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③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을 통해 강 노인이 밭에서 자라는 고추 모종들을 먹을거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강 노인에게 밭농사는 정서적 위안을 주는 행위이며 그가 고추 모종을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이 밭에 고추 모종을 기르는 행위를 단지 생계를 잇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강 노인이 지역 공동체인 동네 사람들의 회유에도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땅을 지역 공동체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여 개인이 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제시된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 글의 앞부분에서 강 노인이 원미동에서 지주로 불린다고 하였고, (다)에서도 강 노인의 땅을 믿고 용규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점에서 강 노인이 많은 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고 땅을 팔기를 원한 것이지 그를 시기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답 풀이 ① 강 노인은 땅을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땅에다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땅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강 노인에게 공감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강 노인 자식들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강 노인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강 노인이 고집을 부리며 땅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③ 도시화되고 있는 마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강 노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동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한 채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능하다.

13 김 씨가 강 노인에게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넘길 거라면서……."라고 말한 것은, 강 노인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 노인이 팔기로 했다는 말을 가꾸는 모습이 의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 같이 서술한 이유는 연탄재가 나뉘구는 밭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수습을 하고 있는 강 노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이다.

○답 풀이 ① 동네 사람들이 고추 모종이 자라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을 보고 강 노인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등과 같이 분노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강 노인이 연탄재에 손상을 입은 고추 모종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용규 내외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이 여덟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원미동의 지주였던 강 노인이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땅을 다 날렸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14 이 글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기 위해 쓴 칼럼으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통계 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제시하며 사회적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저출산 현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15 이 글의 글쓴이가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를 야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저출산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답 풀이 ①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의 감소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16 2문단의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직접 연결되며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해 노동력의 약화를 불러온다.'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노동력 약화', '국가 경쟁력 약화'를 모두 제시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노동력 약화', '국가 경쟁력 약화' 중 두세 가지만 제시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하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본문 확인 문제



본문 205~212쪽

- 01 ③ 02 과도한 당의 섭취 03 ① 04 ⑤ 05 ②
06 교차 조사 07 ⑤ 08 ① 09 ① 10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로 쓰인다. 뇌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11 ④ 12 ⑤ 13 ④ 14 ④ 15 비만 관련 질환 감소 16 ② 17 ① 18 ④ 19 ② 20 ⑤
21 ⑤ 22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23 ⑤ 24 ③ 25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26 ④
27 ⑤ 28 ① 29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30 ①

01 이 토론은 교차 조사식 토론으로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진행하는데,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면서 찬성-반대 측의 논증과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토론의 중심 화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 올리기’이다.
② 배심원이 토론 중에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하지는 않는다.
④ 토론의 참여자는 정해진 토론의 규칙에 따라 토론을 해야 한다.
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 토론의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2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03 찬성 1은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됨을 논증하기 위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공한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⑤ 상대측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04 찬성 1이 주스 한 잔으로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주스를 통해 하루 당 권장량에 맞춰 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반대 2도 찬성 1이 제시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비만이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③ 반대 2는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식품 의약국’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첨가 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05 찬성 1은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때 당을 섭취하는 주요 식품이 가공 음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반대 2는 미국 식품 의약국의 설탕 안전성 연구 결과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당의 섭취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도한 당 섭취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 ③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지는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④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찬성 1의 주장 이기는 하나, 주요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⑤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정한 당 섭취 권장량의 과학적 근거 유무는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06 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을 하면 상대측 토론자가 입론을 마친 토론자에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를 교차 조사라고 한다.

07 찬성 1은 ㉠에서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가공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질문의 방식을 통해 돌려 말하였다.
② 권유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았다.

08 이 토론의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논리적 사실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③ 국민 건강 보험에 있어서의 의료 혜택, 사회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④ 학생 식당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무질서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⑤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감소, 수업 방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9 반대 1은 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과도한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반대 1은 탄수화물이 인체의 성장과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당 역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당뇨병에는 유전이나 흡연 등 다른 요인도 작용하며 그 원인이 당에만 있지 않음을 근거로 상대측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우리 몸과 뇌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고당류 음료를 사 마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고당류 음료를 즐기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면서 그 가능성이 희박함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10 반대 1은 입론에서 탄수화물이 인체에 꼭 필요한 삼대 영양소 중 하나로, 당 역시 탄수화물이며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뇌의 주 에너지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11 반대 1은 찬성 1이 내세운 의견에 대해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다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측 의견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㉞은 찬성 1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⑤ 상대측이 제시한 이론이나 자료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12 찬성 2는 입론을 통해 당의 섭취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근거로 들며 경제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비만이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병원 조△△ 교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④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찬성 2에게 입론할 것을, 반대 1에게 교차 조사를 하라고 발언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ㄷ), 찬성 2의 입론이 끝나고 그 입론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ㄹ).

오답 풀이 ㄱ. 사회자가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는 것은 보통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ㄴ. 사회자는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ㄹ. (바)와 (사)에서 토론자가 토론 예절에 어긋나게 행동한 부분은 없었다.

14 찬성 2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억제되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에 관한 그래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15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억제하면 비만이 줄어 비만 관련 질환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16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설탕 세'라는 같은 제도를 제시하며 찬성 측은 이 제도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이 제도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측은 반대 측의 교차 조사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3퍼센트, 6퍼센트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교차 조사를 통해 설탕 세를 제시하면서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하여 확인 및 검증한 뒤 반박하고 있다.

④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프랑스와 멕시코의 설탕 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두고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7 반대 1은 교차 조사에서 프랑스와 멕시코의 설탕 세 도입 정책이 일시적으로밖에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줄이지 못한 사례를 들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이다.
③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이다.
④ 설탕 세로 얻은 수입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⑤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는 설탕 세가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18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를 제시할 뿐,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당이 들어간 상품의 가격 상승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비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비만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유럽 의회 보고서 및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의 음주·흡연·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를 다룬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먼저 언급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비만이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반대 측은 비만보다는 음주와 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반대 측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⑤ 찬성 측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20 반대 2가 상대측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지만, 상대 측이 내세운 대안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설탕 세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②, ④ 찬성 2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설탕 세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쓴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반대 측의 발언을 요약·정리하여 토론 참여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1 <보기>는 설탕 세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2의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어 문맥상 ㉠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22 ㉠의 그래프는 음주·흡연·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음주와 흡연이 비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대 측은 사회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이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비만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23 반대 1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당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은 당뿐만이 아니라 소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 기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금도 건강을 위협하지만 설탕보다 규제가 미비하다고 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식습관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삼겹살을 들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4 찬성 1은 비만의 원인을 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당 소비량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반대 측의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찬성 1이 내세운 반박의 근거도 아닐뿐더러 근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25 돼지고기 삼겹살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는 것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과도한 당의 섭취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6 ㉠은 당을 줄이는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소비자를 속이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는 식품 회사들의 행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편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설탕을 사용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설탕이 아닌 ‘액상 과당’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② ‘독점’은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함’을 의미하므로 ㉠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③ ‘무례’는 ‘예의가 없음, 예의를 지키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⑤ ‘경영난’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운영해 나가는 데에 생기는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27 토론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론이 하는 역할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다른 토론 참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의 성격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② 반론은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③ 토론의 시작 단계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다.

④ 교차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상대측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박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28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줄이자는 찬성 측의 문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반대 측은 올바른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식품에 경고 문구를 넣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여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반대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9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내용으로 볼 때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쟁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우리의 식습관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이다.

오답 풀이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줄어든 것이라는 내용은 찬성 측의 근거로 적절하다.

③ 국내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과도한 당 섭취 때문이라는 내용은 찬성 측에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④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설탕 세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은 찬성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⑤ 당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이 줄어들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은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213~214쪽

01 ③ 02 ③ 03 ① 04 그것은, 때문입니다 05 ③ 06 ③
07 반대 2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1 찬성 1은 입론에서 국내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공 음료에 든 당 함유량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신이 실제로 실험한 바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논제와 그 선정 배경을 제시하며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찬성 1의 입론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반대 측에게 교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며 토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④ 찬성 1은 입론에서 국내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공 음료에 든 당 함유량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반대 2는 교차 조사에서 찬성 1의 주장을 검증하면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2 찬성 1은 많은 사람들이 가공 음료를 통해 과도한 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른 채 가공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것을 비만율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당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첫산균 요구르트 150밀리리터에 3그램짜리 각설탕 일곱 개가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03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이다. 이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③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의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④ ‘당 줄이기’ 운동 동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이 토론의 논제와 거리가 멀다.
 ⑤ 과도한 당 섭취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를 입증하는 것이 이 토론의 논제는 아니다.

04 찬성 1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기>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05 소비자가 당 섭취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1이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 그래프와 함께 제시한 근거이다.
 ② 찬성 1은 식품 회사들이 ‘무설탕’이라 홍보하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소비자들은 가공 음료에 하루 권장량 이상의 당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가공 음료를 마시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6 ㉠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관한 쟁점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⑤ 쟁점과 주장이 모두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은 적절하나 주장이 찬성 측의 내용이다.

07 <보기>는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는 뉴스 기사의 제목이다. 따라서 반대 2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그것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드러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216~219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모호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로 바꿔서 제시해야 한다. **11** ③ **12** ⑤ **13** ③

01 이 글은 신문 기사로, 실제 있었던 일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의 뒷부분에 인터뷰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심폐 소생술로 승격을 살린 사건 당사자(운전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 오답 풀이** ① 신문 기사로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글이다.
 ② 신문 기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원칙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표제와 부제를 통해 서술될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사건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고 글을 통해 사건을 접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02 발문에서 설득하는 글을 쓴다고 하였는데 ‘심폐 소생술의 방법’이라는 주제는 심폐 소생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설명하는 글에 어울린다.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와 같은 주제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이 글의 내용은 심폐 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을 알리고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독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심폐 소생술에 관한 글은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지역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지역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신문에 실는 것을 예상하고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독자로 적절하다. 심폐 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심폐 소생술을 배우도록 설득할 수 있다.

03 휴대 전화로 인한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지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득하는 글의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공해, 보육 시설 부족, 공공장소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흡연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득하는 글의 화제가 될 수 있다.

04 설득하는 글을 쓰려는 것이므로 글의 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학교생활 문제에 대해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하므로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화제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화제로 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하므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자'를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④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글을 쓸 것이므로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외모에 관심은 많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예상 독자를 우리 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쇄 매체인 학교 신문을 전달 매체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05 <자료 3>은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뉴스이다. 동영상 관리의 필요성이 중심 내용이므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에 관한 글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임을 전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② <자료 2>는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관련됨을 보여 준다. 일반인인 우리가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줄 알아야 함을 설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④ 글에 도표와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⑤ <자료 3>에 제시된 동영상과 같은 자료는 신문 매체에 글을 실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신문에는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06 수집한 근거 자료는 글을 실을 매체에 적합하면 된다.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자료일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수집한 근거 자료는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집한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④ 수집한 근거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글의 통일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⑤ 수집한 근거 자료는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선별해야 한다.

07 ㉔은 설득하는 글의 결론이므로 본론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요약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㉔에서 비만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자'라고 하는 주제에도 걸맞지 않고, 본론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요약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에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서론에는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개요로 볼 때 청소년 비만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면서 청소년들의 비만율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초·중·고교 학생 비만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본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개요로 볼 때 본론에서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㉔에서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을 제시하려 하므로 하위 항목으로 과도한 열량 섭취, 부족한 신체 활동 등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또 ㉔에서는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 하므로 식습관 개선, 신체 활동량 증가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심정지에 따른 결과가 초기 대응 시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는 도표를 통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②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이 아닌 친구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다.

④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의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심폐 소생술을 통해 가족을 살린 긍정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9 심폐 소생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글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나타나 있다.

③ 4문단에 나타나 있다.

④ 4문단과 5문단에 나타나 있다.

⑤ 6문단에 나타나 있다.

10 ㉔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매우 낮은 수준'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비율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11 이 글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질병 관리 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친구의 말을 근거로 활용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표제와 끝부분에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설득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주장을 하면서 질병 관리 본부의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심폐 소생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으므로 심폐 소생술의 필요성, 방법, 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⑤ 신문은 인쇄 매체로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표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 것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심폐 소생술 관련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많이 제시할 필요는 없다. 심폐 소생술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주제에 맞아야 하고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므로 꼭 필요한 자료만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위급 상황 시 심폐 소생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것을 설득하는 글로서 '서론-본론-결론'에 맞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심정지에 따른 결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의 비율, 심폐 소생술의 비율이 낮은 이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심폐 소생술을 하는 사진이나 관련 그림을 보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13 글쓴이가 <보기 1>과 같이 초고를 작성한 후 글을 점검해 보고 <보기 2>의 내용을 추가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고의 서론에서 청소년 비만이 심각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만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 2>는 고등학생인 이모 군의 생활 습관을 보여 주는 글로, 이를 <보기 1>의 앞부분에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가 서론에 오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초고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통계 수치의 출처를 밝혀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② 인쇄 매체임을 고려하여 한눈에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면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 등을 추가하면 된다.

④ 초고에서도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청소년 비만의 원인을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단원 평가

본문 220~223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토론 순서에 따라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한다.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정리한다. **06** ③
07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량은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멕시코에서 세금을 부과해도 그 다음 해부터는 탄산음료의 판매량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④ **13** ① **14** ② **15** ④

01 이 글은 토론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형식의 말하기이다.

오답 풀이 ①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토론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하기이지, 이해를 돕기 위한 말하기는 아니다.

③ 토론은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자기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토론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람들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02 토론의 논제란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토론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으므로,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이다(ㄱ). 또한 이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ㄴ).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유기 동물의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토론의 논제와 같이 정책 논제라고 할 수 있다(ㄴ).

03 반대 1은 찬성 1의 반론에 대하여 비만의 원인이 당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이 이전에 범했던 오류(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입론에서 반대 1은 '고당류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당은 우리 몸과 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임을 근거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교차 조사에서 찬성 1은 당이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통해 반대 1의 입론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찬성 1의 질문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반대 1이 주장한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되고 남은 당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04 <자료 2>에서 청소년들이 즉석식품을 통해 과도한 지방 및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소비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당의 과도한 섭취가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져 비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성 1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은 당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비만의 원인이 당에 있다는 찬성 1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자료 1>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의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당의 순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자료 2>에서 청소년들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청소년이 필요에 의해 고당류 음료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자료 2>는 부족한 신체 활동이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성분이든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반대 1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에서 사회자는 '다음은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에서 볼 수 있듯이 토론 순서에 따라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 주장하고 있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이 글에 나타나는 사회자의 역할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이 글에 나타나는 사회자의 역할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하

06 토론에서 청중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따져 보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제시한 근거가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⑥ 주장과 근거가 설득력 있게 구성되었는지 논증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청중이 취해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② 토론 참여자가 논제와 쟁점을 올바르게 분석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청중이 취해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④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 논리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청중이 취해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07 찬성 2는 프랑스와 멕시코가 설탕 세를 도입하고 첫째에 탄산 음료 판매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대 1은 첫째 이후에는 판매량이 다시 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근거를 내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량은 줄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반대 1의 주장을 바르게 제시하였고, 프랑스,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반대 1의 주장을 바르게 제시하였고, 프랑스,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반대 1의 주장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고, 프랑스, 멕시코의 사례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하

08 반대 1이 ‘설탕 세’ 도입에 실패한 미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제시하자 찬성 2는 ‘설탕 세’ 정책을 도입해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한 프랑스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네, 맞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상대측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② 상대측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측이 지정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④ 상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9 <보기>의 두 자료는 유기 동물이 늘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안락사는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므로 <보기>를 근거로 삼아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은 ‘안락사가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논제에 대해 반대 측 입장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유기 동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는 자료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관련이 없다.
 ②, ③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관련 있는 <보기>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④ <보기>는 유기 동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는 자료로 안락사가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0 글쓰기의 각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쓰기 맥락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이 글은 서론 부분에서 질문과 우리 주변의 사례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을 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 주제, 매체 등을 분석한다. 이 글은 (마)에서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 익히자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②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개요 등을 작성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선정한다. (다)와 (라)가 본론에 해당되는데, 심폐 소생술의 교육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⑤ 자기 점검을 통해 글을 평가해 보고 고쳐 쓰는 단계이다. (다)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에 관한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매우 낮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보기> 자료는 심정지에 따른 결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여 주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응급 처치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도표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추가한다면 독자에게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이 글은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설득을 하는 글이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상 독자로 적절하다. 따라서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의사나 소방대원은 이미 심폐 소생술을 배운 사람들이므로 예상 독자로 적절하지 않다.

13 (가)는 당의 과다 섭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 (나)는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낮은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회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인쇄 매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나)이고, (가)는 토론 내용을 담은 것이다.
 ③ (가)는 마지막 문장 ‘몇몇 국가의 ~’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나)는 2문단 ‘이러한 걱정을 ~ 배우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둘 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돼지 삼겹살의 사례를, (나)에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친구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세계 보건 기구의 조사 결과를, (나)에서는 질병 관리 본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4 ㉠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과 소비가 반비례 관계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불황에도 명품 브랜드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사례는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찬성 측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치킨 가격이 올라 치킨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이므로 찬성 측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④ 가격과 소비의 반비례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준다는 사실을 말해 주므로 ㉠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⑤ 가격이 오를 경우 음료를 사 먹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설문 조사 결과는 ㉠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15 교사의 조언에 따라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을 배웠을 때의 기대 효과가 담겨 있어야 하고, 비유가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이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약’이라는 비유적 표현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준다.’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② 심폐 소생술을 배웠을 때의 기대 효과가 담겨 있지 않다.
 ③ 비유와 기대 효과가 모두 담겨 있지 않다.
 ⑤ 기대 효과는 담겨 있으나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

(1) 청산별곡

본문 확인 문제



본문 228~229쪽

- 01 ⑤ 02 ① 03 ① 04 새 05 ② 06 ④ 07 ③
08 (1) ㉠ (2) ㉡ (3) ㉢ (4) ㉣ 09 ② 10 ③ 11 ③
12 ②

01 이 시가에서는 설의법, 대구법, 감정 이입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본래 나타내려는 뜻과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는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8연의 ‘내 었디 후리잇고’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체념적인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③ 4연에서 ‘낮’과 ‘밤’이라는 상황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고 있다.

④ 2연에서 ‘새’보다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점을 드러내어 화자의 비애와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02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에서 살고 싶어 한다. ‘바를’도 ‘청산’과 같이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이다.

오답 풀이 ② 청산이나 바다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③ 화자에게는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을 의미한다.

④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속세를 멀리 피해 다닐 수 있는 소재이다.

⑤ ‘장대’라는 뜻으로, 기적 같은 삶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소재이다.

03 이 시가의 화자는 현실의 고통과 비애에서 벗어나 이상향인 청산이나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공감할 것이다.

04 2연에서 화자는 ‘새’에 자신의 고독하고 슬픈 감정을 이입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드러내고 있다.

05 이 시가의 화자를 고려 후기 무신들의 횡포로 인해 좌절된 양심적 지식인으로 볼 때, 3연의 ‘가던 새’는 그동안 화자와 뜻을 함께하던 ‘벗’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화자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벗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름’은 가난한 현실에 대한 슬픔이나 고뇌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5연에서 ‘돌’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보기〉를 적용하면 무신들의 횡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5연은 무신들의 횡포에 대한 체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8연에서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술을 마시며 양심에 따른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뇌에 가득 찬 현실을 술을 마시며 잊으려 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이 시가는 무신 정권의 횡포로 속세를 떠나 사는 좌절된 지식인의 염세적 태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 화자가 실연한 여인일 경우 ‘잉 무든 장글’은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날이 무딘 병기’는 화자를 좌절된 지식인으로 볼 때 적절한 해석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 ‘잉 무든 장글’은 화자가 농토를 잃어 사용하던 쟁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이끼 묻은 쟁기’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 ‘가던 새’는 ‘갈던 사례’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갈던 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고통과 비애를 읊은 노래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화자가 실연한 여인일 경우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7 이 시가의 5연과 6연을 서로 바꾸면 1~4연은 ‘청산 노래’, 5~8연은 ‘바다 노래’로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우러라 우러라 새여’와 대칭을 이루는 시구는 ‘어디라 더디던 돌코’가 된다.

08 이 시가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그중 5연의 ‘돌’은 화자의 가혹한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 화자의 삶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를 의미하고, 4연의 ‘밤’은 화자의 절망적 고독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6연의 ‘바를’은 1연의 ‘청산’과 같이 화자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즉 이상향을 의미한다. 8연의 ‘강수’는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해 주는 매개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9 ①은 일정한 시구를 반복하면서 변이를 주는 형태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에서도 ‘잠아’가 반복되다가 변이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주세붕, 「오륜가」

주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교훈 강조

감상: 이 작품은 모두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삼강오륜의 유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표현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시조이다.

② 작자 미상, 「잠노래」

주제: 밤새워 바느질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

감상: 늦은 밤까지 잠을 참으며 일해야 하는 옛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민요이다.

③ 이광명, 「북찬가」

주제: 유배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모의 정

감상: 유배에 대한 억울함과 귀양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난 유배가사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염려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 잘 나타나 있다.

④ 정극인, 「상춘곡」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江湖歌道)와 안빈낙도(安貧樂道)

감상: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와 풍류를 노래한 서정 가사이다.

⑤ 작자 미상, 「베를 노래」

주제: 베 짜는 여인의 흥과 멋

감상: 베를 짤 때 고달픔과 지루함을 덜기 위해 부르던 노동요로, 힘든 베 짜기 상황에서도 가족애와 낭만적 여유를 잃지 않는 옛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0 ㉠은 이 시가의 후렴구이다. 이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거나 구조적 통일성에 기여하지만, 내용이나 주제와는 별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각 연마다 반복되어 운율감을 더욱 강화하고 흥을 돋운다.

② 매 연의 뒤에 배치되어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④ 후렴구를 통해 각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이 시가의 후렴구에는 주로 '르, 오' 음이 많이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11 화자는 ㉡에서 아무도 없는 밤의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의 '밤'도 화자가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의 처지에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과 <보기> 모두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작자 미상, 「귀소리 저 귀소리」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

감상: 이 시조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운 심정을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감성 이입, 반어법 등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12 ㉢을 <보기>와 같이 해석한다면 사슴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켜는 것과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230쪽

01 ③ 02 후렴구가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이 시가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오게 하였다. 03 ③ 04 ④

01 1연은 깊은 산골인 정선에서의 삶의 힘들음을 토로하고 있고, 2연은 봄의 풍경을 보며 느끼는 애상감과 쓸쓸함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3연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가는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02 이 시가는 민요로서 오랜 세월 구전되어 불리며 왔다. 각 연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이어 부르기 쉽고 노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나 창작할 수 있었다. 또한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이 시가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03 이 시에서는 '살아라'라는 명령형 어미로 산이 화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산이 화자에게 '~ 살아라'라고 말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가 반복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 ~며 살아라 한다', '~처럼 살아라 한다'가 반복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들썰레처럼', '쑥대발처럼', '그믐달처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씨나 뿌리며'와 '밭이나 갈며'는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들썰레처럼'과 '쑥대발처럼'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그믐달처럼'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표상한다.

소단원 평가

본문 231~232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⑤ 05 ② 06 5연의 '마자서 우니노라.'와 8연의 '내 엇디 후리고.'를 통해 삶의 운명이나 현실의 고뇌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⑤ 08 ⑤

01 (나)는 1연에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이, 2연에 자연에 동화된 삶이, 3연에 자연과 일치되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 있으므로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는 각 연의 내용이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속세와 자연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는 '산이 ~ 살아라'라고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말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라고 화자가 뱃사공에게 말을 건네며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다)는 고전 가요로서 여러 연으로 이어져 구성된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는 현대 시로서 연을 구분하고 있다.

⑤ (가)와 (다)는 후렴구를 사용하여, (나)는 '산이 날 에워싸고'와 '살아라 한다'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밭'은 화자가 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세계에서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속세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나 성찰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산’이나 ‘바룰’은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지향하고자 하는 인식처에 해당한다.

② (가)에서 ‘물 아래’는 ‘청산’이나 ‘바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③ (가)에서 ‘예정지’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으로서 화자가 속세를 멀리 피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④ (나)에서 ‘산’은 순수한 자연,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03 (다)는 ‘정선’이나 ‘아우라지’와 같은 실제 지명이 언급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나 향토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가)에서는 특별한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③ (가)는 고려 가요, (다)는 민요로, 모두 민중들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하였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도 당시 민중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과 의식, 삶의 애환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④ (가)와 (다) 모두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문헌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⑤ (가)와 (다) 모두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로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04 ‘조롱곳’은 ‘조롱박꽃’을 뜻하는 것으로, (가)에서는 ‘누룩’을 비유하는 대상이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또 어디 호리라.’는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에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표현으로 대상의 부재에 대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는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로 현재 임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②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두견새’는 한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소재로 애상감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③ ‘바룰’과 ‘무릉도원’은 모두 이상향의 세계로 화자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이다.

④ ‘강수’는 현실의 고뇌를 잊기 위한 매개체이고, ‘벧사공’은 사랑하는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를 임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존재이다.

05 (가)의 화자는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서 자연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이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시골에 살아가 집 마련한 행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살던 집이 철거되어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은 이 시가가 창작되었던 시기의 유랑민의 모습과 흡사하며, 살던 집이 철거되어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③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시가의 예상 화자로 거론되는 실연한 여인과 흡사하며,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④ 온종일 공부만 하며 고된 현실을 살고 있는 학생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⑤ 열심히 노력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은 현실의 고통에 좌절하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06 5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어쩔 수 없는 운명적 삶을 의미하는 시어인 ‘돌’에 ‘마져서 우니노라.’라고 하며 삶의 운명에 대해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연에서도 화자는 현실의 고뇌를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07 ‘아우라지 벧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는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가 임을 만나러 가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나머지 시구들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의 공간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08 ㉢은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이입하는 대상이므로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화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하는데 가던 새가 그 물 아래를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므로 ㉢은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상실감 등을 떠올리게 뿐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거나 동일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② 화자는 괴로운 현실로 인해 ㉢에서는 고독함을, ㉢에서는 슬픔이나 상실감, 좌절감, 속세에 대한 미련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과 ㉢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③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소재는 ㉢이 아니라 ㉢이다. ㉢은 시적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경우 사례, 즉 밭으로,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볼 경우 화자를 버리고 떠난 임으로,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경우 화자와 뜻을 같이하던 벗으로 해석된다.

④ 화자는 ‘넌라와 시름 한 나도’라고 하며 ㉢과 비교하여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은 화자가 가지는 유랑민으로서의 슬픔이나 실연의 상실감, 지식인으로서의 좌절감 등과 관련 있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시조 세 편

본문 확인문제



본문 236쪽

- 01** ③ **02** ① **03** ④ **04** 대나무의 절개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05** ④ **06** 초장의 ‘밤’은 임이 부재하여 쓸쓸하고 긴 밤이고, 종장의 ‘밤’은 임과 함께하는 짧고 아쉬운 밤이다. **07** ① **08** ② **09** 대상을 희화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01 (가)~(다) 모두 후렴구를 취하고 있지 않다. 후렴구는 시가 양식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주로 각 연의 끝부분)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를 뜻하는데, 한국 문학에서는 고려 가요와 민요 등에서 후렴구가 발달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각 장이 4음보로 구성되어 전개된다. 반면 (다)는 중장이 길어져 4음조의 정형성이 파괴되었다.

②, ④ (가)와 (나)는 평시조로, '초장-중장-종장'의 3장 6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는 사설시조로, 이 3장 구성에서 중장이 길어진 변형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⑤ (가)~(다)는 시조로,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향유된 문학 양식이다. 조선 후기에 서민 의식의 성장과 산문 정신으로 평시조가 산문화된 경향을 보였는데, (다)와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02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의미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수사법인데, (가)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프를소냐'와 같이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④ 하얀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⑤ 한겨울에 내리는 '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런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받는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다.

03 '프를소냐'는 결코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조선의 신흥 세력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눈'은 고려 유신들을 억압하는 조선의 신흥 세력을 나타낸다.

②, ③ '디'는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유신들을 상징한다. 이것이 '휘어진' 것은 고려 유신들의 억압적 상황을 나타낸다.

⑤ '세한 고절'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화자의 굳은 절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04 (가)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종장의 한겨울의 추위도 이겨 내는 높은 절개를 가진 존재는 너(대나무)뿐이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나)는 부재한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의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다. 또한 입과 재회할 시간에 대한 화자의 기대도 담겨 있으므로, 입이 부재한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태도나 감정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시간(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남녀 사이의 애정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서리서리'와 '구뽀구뽀'와 같이 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입이 부재한 시간으로 보고, 입과 함께하는 시간을 '춘풍'이라고 하여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겨울의 '동지'와 따뜻한 봄날의 '춘풍'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입과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늘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6 초장의 '밤'은 입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밤이다. 동짓날의 밤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나긴 밤이지만 입의 부재로 더욱 길게만 느껴지는 밤이다. 그러나 종장에서 '밤'은 입과 함께하는 밤이므로 짧고 아쉽게만 느껴지는 밤이다. 그래서 화자는 동짓날에 잘라 둔 밤을 입과 함께한 밤에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07 (다)는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건넌산의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 아래로 자빠진 후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통해 부패한 양반의 횡포와 허장성세(虛張聲勢)를 풍자하고 있다.

08 (다)는 약자인 파리 앞에서는 강하면서 강자인 백송골 앞에서는 약한 두꺼비의 행태를 통해 당대 세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종장에서는 화자를 바꾸어 두꺼비의 독백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종장에서의 화자는 두꺼비이므로 두꺼비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합리화하는 모습을 통해 풍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두꺼비는 파리에겐 강하고 백송골에게는 약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④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자화자찬(自畫自讚)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파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터비'는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자이고,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위에 있는 외세 또는 중앙 관리로 볼 수 있다.

09 (다)는 파리를 물고 허세를 부리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237쪽

01 ⑤ **02** ④ **03** ㉠: 떨어질 잎 ㉡: 이른 바람

01 (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겪은 화자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나무와 낙엽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자연의 영원함이나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화자는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며 극복하고자 한다.

② '이른 바람'은 누이의 이른 죽음을,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한 가지'는 한 부모를 비유하는 시어들이다.

③, ④ '한 가지'를 부모에, '떨어질 잎'을 누이에 비유하여 가지에 붙어 있는 잎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연도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의 정서도 드러내고 있다.

02 (나)의 종장의 3음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평시조의 특징이지만, (가)와 같은 10구체 향가에서 낙구의 감탄사는 음보 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10구체 향가에서 시상을 전환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기능을 하는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의 첫음보의 기능과 유사하여 그 형식적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에 지어진 평시조 중 종장의 첫 머리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10구체 향가를 시조의 형식적 근원으로 보고 있다.

03 (가)에서 화자는 죽은 누이를 가지에서 '떨어질 잎'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고,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잎을 떨어뜨릴 '이른 바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01 ③ 02 ⑤ 03 화자는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한 허리'라고 표현하여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04 ① 05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유지하는 평시조이며, (다)는 엄격한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나 중장이 길어진 형태의 사설시조이다. 06 ② 07 ④ 08 ②

01 (가)에서는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내리는 '눈'을 통해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잘라 사랑하는 임이 오는 날 밤에 이어 붙이겠다고 하며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의 정서를 끌어내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다)에 모두 반복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는 한겨울에도 푸르른 대나무에서 인간의 절개를, (다)는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인간의 죽음을 이끌어 내어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담긴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것은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02 '가는 곳'은 죽음 뒤의 세계를 의미한다. 승려였던 작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죽은 뒤에는 가는 곳을 모른다고 하여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낙구에서 미타찰에서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되도록 멀리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눈'은 '디'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는 대상으로, 조선 초의 신흥 세력을 가리키므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디'는 화자가 지향하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③ '세한 고절'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를 뜻하는 말로, 이는 대나무의 속성과 관련되어 대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이른 바람'과 '떨어질'은 죽음을, '잎'은 누이를 의미하므로 누이의 이른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시어이다.

03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한 허리를 베어 낸다고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임이 온 날 밤에 이불 아래에 넣고 편다고 하여 시간을 시각화한 발상이 독특하고 신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04 ㉠은 누이가 죽은 일에 무상감을 느끼다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개인적 슬픔을 극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5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평시조의 형식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다)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져 형식이 파격적이다. 시조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형식이 파괴되고 형식이 자유로운 사설시조가 등장한 것이다.

06 (가)는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단호하고 의지적인 어조가 어울린다. (나)는 동짓달 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임과의 재회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나직하고 간절한 어조가 어울린다.

07 '백송골'은 '두터비'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로서 '두터비'보다 더 권력이 높고 힘이 있는 존재인 중앙 관리 혹은 외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파리'를 물고 달아나는 데서 민중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파리'는 '두터비'에게 물려 괴롭힘을 당하는 데서 힘없는 피지배 계층인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백송골'의 등장에 놀라 자빠지는 '두터비'의 행동을 통해 해학성을 엿볼 수 있다.

⑤ 종장은 화자를 바꾸어 '두터비'의 독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다. '두터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화자찬(自畫自讚)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두터비'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08 (다)는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두엄 아래로 자빠진 후에 자기 합리화하는 행동을 통해 당시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즉, 두꺼비의 행동을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여 풍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의 외모가 아닌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③ 백송골 앞에서 비굴해지는 '두터비'에 대한 화자의 동정과 연민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두터비'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터비'와 관련된 설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흥계월전

본문 확인 문제



본문 241~249쪽

-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②
08 ① 09 ② 10 ① 11 (1) ○ (2) × (3) × 12 ⑤
13 계월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황성을 치고 천자에게 항서를 받는다. 14 ⑤ 15 ③ 16 ② 17 ⑤ 18 ③ 19 ②
20 ① 21 ⑤ 22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23 ①
24 ② 25 ③ 26 ⑤

01 계월이 여자임이 발각된 이후에도 천자는 계월의 벼슬을 거두지 않았으며 천자의 명에 따라 보국과 혼인한 후에도 계월은 벼슬을 놓지 않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명나라 때임을 알 수 있다.

② 계월이 보국의 애첩인 영춘을 죽인 일로 갈등이 고조되나, 근본적으로는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보국과 계월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앞부분 줄거리에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고귀한 혈통-비정상적 출생-비범한 능력-어릴 적 위기-조력자의 도움-성장 후의 위기'까지가 제시되어 있다.

④ 앞부분 줄거리에 계월이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 전쟁에 나가서 영웅적 활약을 보여 준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02 여공은 계월의 행동을 비난하는 보국의 말을 듣고, 보국을 만류하며 보국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계월은 다섯 살 때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②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뒤 보국과 함께 곽 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과거에 급제한다.
 ④ 계월은 전쟁에 다녀온 후 병이 깊어지는데, 천자가 보낸 어의의 진맥으로 인해 여자임이 탄로 나지만 천자는 이를 용서한다.
 ⑤ 계월은 보국과 혼인한 뒤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보국의 첩 영춘을 군법을 적용하여 죽인다.

03 앞부분 줄거리에서 계월이 다섯 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서 부모와 헤어져 강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구출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여공이다.

04 이 글에서 계월은 보국과 혼인하고 보국이 사랑하는 첩인 영춘의 행동을 문제 삼아 영춘을 죽인다. 이로 인해 보국은 계월에게 불만을 갖고, 둘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는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 때문이다.

05 [A]는 보국이 계월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여공이 보국을 만류하는 부분이다. 여공은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계월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므로 계월에게 해가 될 후일을 도모할 것을 추측하기는 어려우며, 이 글에도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계월을 '기개가 당당하니 죽히 너를 부릴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라고 말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한다면 네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보국은 계월이 자신의 애첩인 영춘을 죽인 일로 분개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과 같이 말한다. 남자가 계집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07 계월은 천자의 부름에 크게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계월은 보국과 혼인한 후 규중에서 장기와 바둑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③ 천자는 오랜만에 만나게 된 계월을 보고 반가워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④ 계월은 천자의 성을 갓졌다며 출전을 결심하였다.
 ⑤ 천자는 계월에게 황성을 침범하려는 오와 초 두 나라의 반란을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다.

08 당시에는 규중에 있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천자는 계월이 보국의 아내로서 가정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계월을 전쟁터로 보내는 일을 주저한 것이다.

09 ㉠은 보국이 계월의 부하가 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심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울며 겨자 먹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공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④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같이 오래 지내면 자연히 견문이 생긴다는 말이다.
 ⑤ 자기 흉이 더 크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라는 말이다.

10 계월은 출전하기로 결정한 뒤 보국을 중군장으로 임명해 부하로 삼는다. 이와 같이 남성을 여성의 부하로 설정한 것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 11** (1) 장수와 군졸들은 계월의 추상같은 호령에 겁을 내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2) 중군장은 천자의 명령이 아니라 원수인 계월의 명령에 따라 적진에 나가 싸워 공을 세웠다.
 (3) 적장 윤경은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어 보국과 싸웠으나 보국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12 보국은 싸움터에 나가 용맹을 떨치며 적장을 물리치는 등 큰 활약을 한다. 하지만 적장 구덕지 등 상대편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은 갑자기 수많은 적병에 의해 포위를 당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한탄하는 상황이다.

13 (바)에서 오와 초의 양 왕이 계월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자, 맹길은 계월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황성을 친 후 천자에게 항서를 받으면 된다는 계교를 말하고 있다.

14 전기성은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괴이한 내용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 글에서도 계월이 한칼로 군사들을 소멸하고, 천기를 살피 천자의 위기를 알아내며, 하루 만에 황성에 도착한다는 내용 등이 전기적 특성에 해당한다.

15 ㉠은 보국이 계월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보국이 영춘의 일로 계월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었는데, 계월이 막상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자 그동안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16 ㉠은 맹길의 계교에 따라 계월 몰래 오왕과 초왕이 맹길을 앞세워 천자가 있는 황성을 침략한 상황이다. 따라서 계월이 이를 미리 알았으나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⑤ ㉠은 오와 초의 양 왕이 계월을 두려워하자 계월을 피하자는 맹길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 ③ ㉠은 천자가 피난 가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과 관련 있다.
 ④ ㉠으로 인해 계월의 승전에 안심하던 천자가 매우 놀라게 된다.

17 ㉠은 천자가 적군을 피해 도망가다가 뒤로는 맹길에게 쫓기고 앞으로는 큰 강에 가로막히게 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의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가 군사(軍師)로 초빙한 데서 유래한 말로, ‘인재를 찾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의미하므로 ㉠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② ‘진퇴양난(進退兩難)’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③ ‘풍전등화(風前燈火)’는 바람 앞의 등불이란 뜻으로, 사물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누란지위(巢卵之危)’는 알을 썬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8 오왕과 초왕은 계월을 피해 몰래 황성을 침략한다. 그러나 계월은 하늘의 천기를 살펴보다가 별의 모습을 통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홀로 황성으로 향한다.

19 ‘뚝밖에도 도적이 들어와 ~ 나는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난했’다는 여공의 말에서 도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해 수챗구멍에 숨었음을 알 수 있다.

20 ㉠은 앞뒤 사건과 연관 지어 볼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황성에 들어닥친 적들로 인해 위협에 처한 천자의 상황과 하늘의 천기를 살펴보고 천자의 위기를 짐작하게 되는 계월의 상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앞 사건은 맹길이 계월 모르게 황성을 쳐 천자를 사로잡는 내용이고, ㉡ 이후의 내용은 계월이 천기를 살피다가 천자의 위태함을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을 앞 사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서술자는 일관되게 작품 밖에서 전지적으로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심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주인공인 계월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계월의 대범한 성격이나 영웅적 면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21 이 글에는 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유교적 충의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월이 신분 상승의 의지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계월은 이부 시랑 홍무의 자녀로 태어나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나라에서도 대원수의 계급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글은 계월의 일생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데, 계월의 일생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비범한 능력을 지니는 등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② 계월이 나라와 천자를 위기에서 구해 내는 데서 영웅의 위기 극복과 승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④ 전장에서 적들을 한칼에 무찌르고, 하룻밤 사이에 먼 거리인 황성에 도착하며, 천기를 살펴 천자의 위험을 알게 되는 등 계월의 행동에서 전기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22 순식간에 다른 장소에 다다른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을 잘 보여 준다.

23 ㉠은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 항복을 강요받는 천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제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모양을 이르는 말’인 ‘망연자실(茫然自失)’이 이 상황에 가장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② ‘와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삶에 몸을 낮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④ ‘진퇴유곡(進退維谷)’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천자와 신하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맹길의 급습에 너무 놀라서 한 행동일 뿐 적들에게 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한 반응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24 이 글을 보면 계월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길이 탔던 말은 계월이 탔다고 했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손가락을 깨물어 항서를 쓰려던 천자를 계월이 비범한 능력으로 구해 내었다.

③ 뒷부분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월은 살아남은 적들을 낚아잡아 결박해 앞세우고 황성을 향해 승자의 위세를 떨치며 갔다.

⑤ 계월은 천자에게 여공으로부터 천자의 행방을 들었음을 말하며 천자를 구하러 오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며 전달하고 있다.

25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계월은 영웅적 활약으로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내고, 높은 지위에 오른 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므로 결말은 ‘위기의 극복과 행복한 결말’이 가장 적절하다.

26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보국이 계월의 능력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남을 인정함으로써 둘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250쪽

01 ④ 02 수동적 03 ④

01 사 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이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 씨는 부부의 도를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으나, 계월이 부부 사이의 의리를 중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사 씨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 옹호하는 인물이고,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다.

③ 계월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의 능력일 뿐이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⑤ 사 씨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힘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02 사 씨는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계월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주체적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3 계월이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하여 대사마 대장군의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국과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가정에서 벗어나 전장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당대의 사회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교적 윤리관이 지배했던 남성 중심 사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뒷부분 줄거리에서 공을 세운 이후에 보국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계월의 영웅적 활약을 '한바탕 꿈을 꾸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위기에서 나라와 천자를 구하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와 가정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바탕 꿈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보국이 계월을 무시할 때 계월은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⑤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볼 때 계월은 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지만,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보국을 꾸짖고 조롱하는 것으로 볼 때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251~253쪽

01 ① **02** ⑤ **03**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보고 여성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보기>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04 ① **05** ④ **06** 집단 간의 갈등인 외적의 침입은 계월의 뛰어난 무예로 극복하였고, 계월과 보국의 갈등은 보국이 계월의 우월한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극복하게 된다. **07** ④ **08** ② **09** ② **10** ①

01 보국과 여공의 대화, 천자와 계월의 대화, 보국에 대한 계월의 발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고전 소설의 경우 서술자가 개입하여 장면을 평가하는 편지 작적 논평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글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다>에서 전쟁 상황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계월의 일생이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지만, 그가 천상에서 적당한 인물은 아니다.

02 <나>에서 계월은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천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출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월은 천자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출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보국은 계월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하고는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국이 여자라는 이유로 평소 계월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② <가>에서 보국의 아버지인 여공은 계월에 대하여 기개가 당당하니 족히 보국을 부릴 만한 사람이라고 하며 계월의 능력이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다.

③ <나>에서 계월은 천자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월이 여성임을 안 후에도 천자는 계월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계월은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라고 하며 보국을 조롱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보국의 태도를 평소 못마땅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3 <보기>의 사 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로, 여성을 남성을 섬기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글의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인물로, 여성이지만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04 <가>에는 계월이 영춘을 죽인 일로 보국이 불만을 품자 아버지 여공이 보국에게 생각을 고쳐먹을 것을 설득하는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05 보국을 구하는 계월의 모습은 남편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성 영웅이 남성인 부하를 구하는 모습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이 천자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유교적 이념인 충군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여성이 주인공이며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층이었던 사대부가 여성이나 평민의 취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남성인 보국을 부리는 여성 계월의 모습은 이전의 영웅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조선 후기 여성 의식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국은 부인인 계월이 영춘을 죽인 것에 분개하고 있다. 처첩 제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았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하던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06 이 글에서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과 계월과 보국과의 갈등인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국난이 일어나 계월이 전쟁에 출정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뛰어난 무예와 영웅적 활약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보국이 자기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계월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월이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우월함을 보국이 인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07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 '성장 후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계월의 일생은 잦은 국난과 여자임이 탄로 나는 사건, 보국과의 갈등 등을 들 수 있으나 제시된 글에서는 잦은 국난과 보국과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단계에 해당하는 계월의 일생은 (바)의 뒷부분 줄거리에 나타나 있는데 보국이 계월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보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게 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여러 차례 구함으로써 높은 작위를 받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08 (나)에서 천자는 맹길 등 적군을 피해 도망하다가 앞에는 큰 강, 뒤에는 적병이 있어 도망갈 길이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인 사면초가(四面楚歌)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유유자적(悠悠自適)'은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을 뜻한다.

③ '수주대토(守株待兔)'는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④ '적수공권(赤手空拳)'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뜻한다.

⑤ '감탄고토(甘呑苦吐)'는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림을 뜻한다.

09 [A]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 어떻게 자기를 구하러 올 수 있었는지를 묻는 천자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계월이 천자를 구하러 오기까지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전기성은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비현실적인 요소를 뜻한다. 이 글에서 계월이 불길한 느낌에 마음이 어지러워 천기를 살피는 장면이나 하룻밤 사이에 먼 거리인 황성에 다다른 사건, 순식간에 한수 북쪽으로 이동하는 사건 등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대단원 평가

본문 254~257쪽

01 ⑤ 02 ② 03 ④ 04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05 ⑤ 06 ④ 07 ⑤ 08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된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② 14 ① 15 여성의 비범한 능력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보여 주었다. 16 ④

01 (가)는 8연에서 '내 었디 흐리잇고.'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분장체, 분연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는 3장 6구의 전형적인 시조 형식에서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③ (가)에는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배치되어 있으나, (나)는 후렴구가 없는 단형 시조이다.

④ (나)에서는 '두터비, 파리,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지배 계층의 수탈을 비판하고 있지만, (가)에는 우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내우외환의 어려운 현실에서 느끼는 진솔하고 솔직한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삶의 비애와 고독,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지향 등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03 '돌'에 '마자서 우니노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고난에 의한 삶의 비애를 나타낸 것이다. 화자가 떠도는 일에 지쳤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고 니려 우니노라.'는 화자가 현재 겪는 슬픔과 시름을 가리키는 말로, 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삶의 비애와 고뇌를 나타낸다. ② '가던 새'는 '갈던 발이랑'이란 뜻으로, 예전에 경작하며 살던 화자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장글'은 쟁기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⑤ '난리'는 화자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바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04 ㉠은 화자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향을 나타낸다. <보기>의 ㉡도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고 오기를 바라는 화합과 평화의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의미는 맞게 제시하였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내용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보기 작품 이해하기 박두진, 「해」

주제: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망

감상: 역사적 격변기인 광복 직후의 상황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밝음과 어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립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05 '에헐질 번 하괘라'는 '두터비'가 '백송골' 때문에 놀라 자빠진 일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이지, 반성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힘없는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② '파리'는 '두터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로서 약한 민중을 나타낸다.

③ '백송골'은 '두터비'를 섬뜩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두터비'보다 더 힘이 강한 중앙 관리나 외세를 나타낸다.

④ '두터비'가 두엄 아래 자빠진 것은 '두터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대상을 희화화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06 (가)에서는 ‘눈’, (나)에서는 ‘동지스들’ 등을 활용하여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고려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② (나)는 현재 함께하지 못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③ (가)에는 대나무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가)는 ‘눈’과 ‘디’, (나)는 초장의 ‘임이 부재한 밤’과 종장의 ‘임과 함께 하는 밤’의 대립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7 ‘너뿐인가’는 화자의 절개와 지조에 대한 다짐과 의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화자의 반성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눈 마즈’는 대나무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② ‘디’는 화자가 추구하는 올바른 태도와 관련 있는 소재이다.
 ③ ‘늠라셔’는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굽었다고 하는 존재이다.
 ④ ‘프를소냐’는 눈 속에서도 푸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절개와 지조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다.

08 초장의 ‘밤’은 입과 떨어져 있는 때로, 너무 길기 때문에 화자가 배어 내고 싶은 시간이다. 종장의 ‘밤’은 입과 함께 지낼 때로, 짧고 아쉬운 시간이다. 이렇게 화자는 관념적인 속성의 밤을 배어 내고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 대상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 대상에 대한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미흡하게 제시하였고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9 이 글에서는 전지적 작가가 등장해 인물과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여공과 천자, 신하들은 계월이 여성이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② 여공과 보국의 대화에서 여공은 근거를 들어 보국을 설득하고, 천자와 신하의 대화에서 신하는 계월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천자를 설득한다.
 ③ ‘경’, ‘신첩’ 등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계월이 천자 앞에 엎드려 예를 다하는 것에서 신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때’를 통해 천자와 신하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과 계월이 집에 홀로 있는 상황이 병치되어 있다.

10 (다)에서 계월은 규중에서 홀로 있다가 사관이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하는 것을 듣고 여자 옷에서 조복으로 갈아입고 임금에게 간다. 따라서 조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변모함을 나타낸다.

11 [A]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천자가 계월을 불러 대처하고 싶으나 계월이 혼인 후 규중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저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들어 결정을 주저하고 있음이 적절하다.

12 신하들은 나라에 중대한 위기가 오자 계월을 전장에 보내야만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계월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나랏일에 기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여공은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계월의 능력이 뛰어남을 인정하고 보국을 설득하고 있다.
 ② 애첩인 영춘을 죽인 계월의 행동에 대하여 여공은 보국에게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국은 계집에게 팔시를 당하는 것이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보국이 기존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④ 계월은 규중에 홀로 있으면서 소일거리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한 남성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천자의 뜻에 따라 전장에 나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계월의 말에서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충군의 유교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13 계월은 천기를 살펴보고 천자의 위기를 예감한다. 그리고 홀로 황성으로 향하고 중군장으로 하여금 진지를 지키도록 명령한다. 따라서 중군장과 함께 황성으로 향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여공은 천자가 천태령으로 갔는데 그 뒤를 도적이 따라가 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계월에게 전해 주고 있다.
 ③ 천자는 계월에 의해 구출된 후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느냐며 고마워한다.
 ④ 계월은 여공의 말을 듣고 천자를 구출하기 위해 천태령을 넘는다.
 ⑤ 천자와 신하들은 적병에게 사로잡혀 넋을 잃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14 (가)에서 계월이 중군장에게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도다.’라고 말하는 데서 계월이 황성으로 오게 되는 계기를 알 수 있다.

15 이 글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고, 남편을 부하로 두는 등 여성의 주체적인 면모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여성 주인공의 활약상이 갖는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여성 주인공이 활약한 점만을 서술하였다.	중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에만 주목하여 여성 주인공의 활약의 의미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6 전쟁에 나가 나라를 구하는 여성 영웅의 등장과 활약은 여성 독자들을 고려한 것이지, 실제 여성들도 전쟁에 빈번하게 참여했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계월이 천자를 구출하고자 애쓰는 장면에서 임금에 대한 충군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여성 영웅으로서 계월이 남성인 적군의 장군을 물리치는 모습은 당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었을 것이다.
 ③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소설의 독자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당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보국과 같은 남존여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 계월이 남성인 보국보다 뛰어나다는 설정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본문 확인 문제



본문 260~265쪽

- 01 ① 02 ① 03 중세 국어, 차이점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09 ① 10 ② 11 이, ㅣ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④ 20 세종 학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1 ③ 22 ⑤ 23 ④ 24 ⑤

01 이 글은 국어의 변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강연문이다. (다)에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라고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국어사에서 각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02 (다)의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서문’이라고도 합니다.’를 통해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가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정신이 담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나, 훈민정음과 한자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훈민정음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언어 현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언어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다)에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는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04 우리말이 한자와 달라 서로 통하기 힘들다는 내용(나·랏:말 썸·미 中 國·귀·에 달·아 文 明 字·쥬·와·로 서 르 스 못·디아·니 홀·썸)이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을 한자와 함께 쓰기 힘들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새·로·스·물여·둑字·쥬·롤링·고·노·니’를 통해 세종 대왕이 28자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런전·추·로어·린뽀·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 무·츄:내제·쁘·들시·러퍼·디:몬홍·노·미하·니·라’를 통해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랐음을 알 수 있다.

④ ‘사롬:파·다:히·며:수·비니·거·날·로·뿌·매便便安한·키후·고·저’를 통해 훈민정음이 익히기 쉽고 쓰기에 편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⑤ ‘·내·이·롤爲·왕·후·야:어엿·비너·거’를 통해 세종 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5 중세 국어에서는 ‘·쁘·들’, ‘·뿌·메’와 같이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오답 풀이 ① 가로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하였다.

② 띄어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③ 중세 국어에는 ‘ㅇ(옛이음), ㅎ(여린히음), ㅃ(순경음 비음),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하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06 중세 국어에는 ‘ㅇ(옛이음), ㅎ(여린히음), ㅃ(순경음 비음), ·(아래아), ㅅ(반치음)’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했는데, 이 중 ‘ㅅ’은 ‘어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07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방점은 소리의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다.

08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의 ‘·쁘·들’은 중세 국어의 모습으로,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반면 현대 국어의 모습인 ‘뜻을’은 이러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09 중세 국어의 ‘에’는 현대 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다른 것과의 비교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둥귀에달아’가 ‘중국어 달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을 비교할 때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10 중세 국어에서는 모든 음운 환경에서가 아니라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는 ‘자를’과 같이 양성 모음 다음에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현대 국어의 ‘가’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쓰이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가’가 쓰이지 않는 대신 ‘·홍·배(바 + ㅣ)’와 같이 ‘ㅣ’가 쓰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는 중세 국어에서 ‘ㅣ’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ㅣ’가 쓰인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가 쓰였다. ‘이’는 끝음절 받침이 있는 환경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쓰임이 동일하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말썸·미’(말썸 + 이)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가, ‘·홍·배(할 바 + ㅣ)’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ㅣ’가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는 ‘:말썸이’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가, ‘하는 바가’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가’가 쓰였다. 이를 통해 앞의 단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 주격 조사가 달리 쓰이는 것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같다고 할 수 있다.

11 ‘百·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는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는 의미로, ‘百·빅姓·성·이’에서 ‘이’, ‘·홍·배(바 + ㅣ)’에서 ‘ㅣ’라는 주격 조사가 쓰였다.

12 ‘전·츠’는 음성 모음인 ‘ㅏ’와 양성 모음인 ‘ㅓ’가 결합된 단어가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달·아’는 양성 모음인 ‘ㅓ’가 연속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② ‘서르’는 음성 모음인 ‘ㅓ’와 음성 모음인 ‘ㅡ’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③ ‘ㅓ·들’은 음성 모음인 ‘ㅡ’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⑤ ‘중·물’은 양성 모음인 ‘ㅓ’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13 <보기>의 ‘:말씀, 니르다’는 모두 의미는 그대로인데 형태가 변화된 단어이다. ‘하·니·라’는 ‘맏다’는 의미로 형태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화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서르’는 ‘서로’, ② ‘퍼·디’는 ‘퍼지’, ③ ‘ㅓ·스·물’은 ‘스물’, ④ ‘ㅓ·들’은 ‘뜻을’로 바뀌었다. 이 단어들은 <보기>와 같이 의미는 그대로이나 형태가 변화한 예이다.

14 ‘ㅓ·뻬·메’는 ‘쓰메, 사용함’이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가 변한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태와 의미가 모두 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ㅓ·츄·내’는 현대 국어에서 ‘마침내’라고 쓰이므로 형태가 변한 것이다.

② ‘니·겨’는 현대 국어에서 ‘익혀’로 쓰이므로 형태가 변한 것이다.

③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④ ‘노·미’는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하였다.

15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 중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사회성이란 언어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을 말한다.

③ 언어의 분절성이란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특징을 말한다.

④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에서 의미와 소리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말한다.

⑤ 언어의 창조성이란 한정된 말소리로 무수히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단어의 나열을 통해 아주 많은 문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말한다.

16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로 ‘이/ㅣ’가 쓰였으므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조사의 사용이 확인되지만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주격 조사 ‘가’는 없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보다 조사를 더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는 ‘퍼·디:물홀’처럼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② 중세 국어에는 ‘ㅓ, ㅓ, ㅓ, ㅓ, ㅓ’ 등의 글자가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수가 현대 국어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를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한자와 통하지 않아 백성들이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가)~(다)는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8 제시된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및 세종 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세종 학당의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에 세종 학당 수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 학당의 수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② 세종 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③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데, 그 지원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된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1 이 강연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와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를 제시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청자를 대상으로 국어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② 강연자는 청자의 수준에 맞게 ‘ 좋겠어요 ’ 등과 같은 구어체를 사용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와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통해 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2 [A]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표현해도 되는 것을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하다.

③ 우리말로 표현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외국어나 외래어를 지나치게 사용한 예이다.

23 담화의 맥락을 살펴볼 때, ‘짐ㄱㄱ’은 ‘지금 나가.’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24 가상 공간에서는 대화 상대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의사소통 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상 공간 이든 일상생활 공간이든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최근에는 가상 공간에서처럼 규범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을 일상생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④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 각해 보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언어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적절하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266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1 ‘나라히’는 ‘나라가’라는 뜻으로 ‘나라ㅎ + 이’로 이루어진 것 을 보면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미’는 ‘봄에’라는 뜻으로 ‘봄 + 인’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후니, ㄱ롬, 보미’에서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 (아래 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썸’에서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았’은 ‘안의’라는 뜻으로, ‘ㅅ’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⑤ ‘보미’는 ‘봄 + 인’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 ‘ㅁ’을 뒤 음절 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피’는 ‘산’으로, ‘ㄱ롬’은 ‘강’으로, ‘жат’은 ‘성’으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한자어가 널리 쓰이면서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03 <보기>는 ‘노키즈존’이라는 외국어를 ‘어린이 제한 (공간)’이 라는 우리말로 순화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잔반 → 음식 찌꺼기’, ‘레시피 → 조리법’, ‘카운터 → 계산대’, ‘테이크아웃 → 포장 판매/포장 구매’로 순화되었다. 그러나 ‘커피’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외래어이다.

04 신조어, 줄임말, 통신 언어의 과도한 사용 등 우리말을 무분 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 단어가 사장되거나 의사소통의 단

절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우리말의 가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답 풀이 ㉠ 문자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줄임말을 사용할 때 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 개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을 활용할 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267~269쪽

01 ④ 02 ④ 03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04 ⑤ 05 ①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⑤ 11 ④

01 중세 국어에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현대 국 어에서는 된소리로 바뀌었다. 또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을 보 면 ‘썸’과 같이 어두에 같은 두 자음이 함께 쓰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의 된소리를 표기 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는 가로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 와 달리 세로쓰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내용을 통해 ‘세종어제훈민정음’이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는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어 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는 ‘ㅂ, ·, ㅅ’과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 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를 통해 세종 대왕이 중국과 우리말 의 언어 차이를 인식하여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한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자 창제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⑤ ‘나·랏·말싸·미중동國·꺄·예달·아文문字·쥑·와·로 서르스몯·디 아·니홀·썸’을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에 차이가 있음 을 인식하고,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 끼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홀·배이·셔·도무·츰·내제 ·쁘·들시·러퍼·디·물홀·노·미하·니·라·내·이·룰爲·윙·ㅎ·야·어 옛·비너·겨’를 통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을 불쌍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③ ‘·내·이·룰爲·윙·ㅎ·야·어옛·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 ·쥑·룰밍·ㄱ노·니·사롬·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뿌·매便便 安한·키희·고·저홀싸루·미니·라’를 통해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기 쉬운 문자를 만들 필요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03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 신,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나·랏·말싸·미중동國·꺄·예 달·아文문字·쥑·와·로서르스몯·디 아·니홀·썸’가 자주 정신 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중국과 다른 우리말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 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04 ‘말쑥·미’는 ‘말쑥+이’, ‘이·셔·도’는 ‘잇어+도’, ‘·쁘·들’은 ‘쁘+을’, ‘·노·미’는 ‘눔+이’, ‘·뿌·메’는 ‘뿌+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한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와 결합된 것은 ‘이·셔·도(잇-(어간)+-어도(어미))’뿐이다. 나머지는 조사와 결합되어 있다.

② 모두 방점이 사용되었는데, 방점은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③ 어두 자음군은 ‘·쁘·들’과 ‘·뿌·메’에만 사용되었다.

④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은 자모는 ‘·(아래아)’로, 이것이 쓰인 것은 ‘말쑥·미’뿐이다.

05 (나)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와 ‘ㅣ’만 쓰였으며,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주격 조사 ‘가’는 없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쁘·들’, ‘·중·룰’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③ ‘中東國·국·에달’(中東국과 달라)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에’가 현대 국어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비교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서르’가 현대 국어에서 ‘서로’로 쓰이는 것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에서 ‘어·린’이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6 중세 국어에서 ‘:어엿·비’는 ‘불쌍히’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 ‘예쁘게’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어·린’은 ‘어리석은’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에 속한다.

② ‘무·춤:내’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형태만 ‘마침내’로 변한 형태의 변화에 속한다.

③ 중세 국어의 ‘·눔’은 ‘보통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에 속한다.

⑤ 중세 국어의 ‘·스·물’에서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스물’로 변화하였다. 이는 형태의 변화에 속한다.

07 중세 국어에서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나이에 비해 조속하다.’의 ‘에’ 또한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비교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주위에 물이 얼었다.’의 ‘에’는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② ‘옷에 먼지가 묻었다.’의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④ ‘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의 ‘에’는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⑤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의 ‘에’는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08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ㅎ·고·저’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간 ‘ㅎ-’에 ‘-고저’라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된 경우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쁘·들’은 음성 모음을 가진 체언 ‘쁘’에 음성 모음의 조사 ‘을’이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② ‘세·워’는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세우-’에 ‘-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③ ‘文문字·중·와’는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문중’에 ‘와’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⑤ ‘中東·國·국·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체언 ‘동국’에 ‘에’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09 (가)를 보면,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를 보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다)를 보면, 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그래프와 (나)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화자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특성 중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것이다.

오답 풀이 언어의 특성 중 ①은 언어의 기호성, ②는 언어의 자의성, ③은 언어의 사회성, ④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11 가상 공간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문자로 직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지나치게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세대와는 세대 간의 벽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를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외국어 대신 순화어를 사용하거나 외래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상 공간에서 지나친 줄임말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는 것은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상 공간에서 맞춤법을 지키지 않거나 띄어쓰기를 무시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271~273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김 선생이 한 말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06 ⑤ 07 ④ 08 ② 09 (가): 경청하기 (나):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듣기 10 ③ 11 ③ 12 ⑤

01 ‘말을 말할 것이’, ‘말 말을까 하노라’와 같이 ‘말’과 ‘말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읊는 데 재미를 주는 언어유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조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관조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②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당대 사회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3장 6구 45자 내외의 전형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평시조이다.

02 이 시조의 화자는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03 이 시조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한다.’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남이 가로채어 한다.’라는 의미로 이 시조의 주제와는 상관없다.

- 오답 풀이**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③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뜻으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 다툼까지 가게 되므로 꼭 필요한 말만 신중히 하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04 김 선생은 친구의 인색함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방식이다(ㄷ). 이와 같은 돌려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ㄹ). 그러나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ㄴ).

- 오답 풀이** ㄱ. 김 선생의 말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방식이다.
 ㄴ.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주장을 드러내기에는 적당한 말하기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05 김 선생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의도로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닭을 잡아 대접한 것으로 볼 때, 주인이 크게 웃은 것은 자신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김 선생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06 김 선생이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한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안주로 친구의 닭을 잡아 내오라는 의미이므로 친구의 형편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②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말보다 친구의 닭이 안주로 더 좋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③ 표면적이지만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닭을 빌려 달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④ 김 선생은 배가 고픈 상황이지 친구의 인색한 대접에 섭섭함을 느낀 상황이다. 따라서 배가 고픈기 때문에 다른 안주라도 먹고 싶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07 출연자는 진행자의 ‘혁명적 존재’라는 말에 ‘모르겠어요.’라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진행자는 출연자를 높여서 소개하며 한 평론가의 말을 활용하여 칭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⑤ 출연자는 ‘혁명적 존재였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라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08 ㉠에서 출연자는 자신을 칭찬하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겸손하게 말하기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표현을 삼가야 하므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시된 대화에서는 토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말제주를 칭찬하는 수진의 말에 정연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모르겠어.’라고 하였지만 ‘나도 이어 받은 것 같아.’라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다.
 ㉢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그러게 말이야.’라고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09 (가)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응답패설, 도리에 안 맞는 말 등은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가려들어야 하는 경우를 보여 준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듣기를 강조하고 있다.

10 진목이 ㉠과 같이 말한 것은 상대방의 권유에 부담을 느끼고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은 지난달과 비교하여 연주 실력이 나아졌다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다.
 ㉡ ㉡는 상대방의 칭찬을 거부하는 심리가 담겨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다.
 ㉣ ㉣은 잘난 척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화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상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 ㉤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낮추어 비난하는 것이다.

11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 (나)와 같은 방식의 말하기는 면접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면접 담화 상황에서 (가)와 같이 겸손하게 표현하다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④,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12 ㉞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만 하고 있을 뿐,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는 대화 상대방과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성적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친구의 고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음을 과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신의 말만 하는 등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대단원 평가

본문 274~277쪽

01 ① 02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뽀글, 뽀글이 09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와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장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문제를 틀린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 말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 15 ②

01 이 글은 국어의 변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의 음운과 어휘를 예로 들어 분석하면서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이 글은 다수의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연문으로, 구어체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④ 중세 국어의 특징을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⑤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는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밝힌 글이다.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가 지니는 의의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다.	상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가 지니는 의의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하

03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한글 창제 정신이 드러난다. 먼저 ㉠ '나·랏·말싸·미 ~ 아·니홀·씨'에는 자주 정신이, ㉢ '이런전·츠·로 ~ 땡·노·니'에는 애민 정신이, ㉣ '사름·마·다 ~ 썸·미니·라'에는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4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ㅣ'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홀·배'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홀·배(바+ㅣ)'에서 보듯이 주격 조사 'ㅣ'가 '바'와 결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中' '國' '국' '에'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중국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과'가 쓰임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서르'는 현대 국어와 의미는 같은데 '서로'로 형태가 변한 경우이다.

④ 중세 국어의 '·장·물'은 양성 모음 다음에 양성 모음 조사가 결합되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 와서 모음 조화가 약해져 '자물'과 같이 양성 모음 'ㅈ' 다음에 음성 모음 'ㅡ'가 결합되고 있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뿌·메'와 같이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썸'으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05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가로쓰기를 한 것은 현대 국어이다. 중세 국어는 위에서 아래로 표기하는 세로쓰기를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내용을 통해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보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6 <보기>에는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씨'는 같은 두 자음이 온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뿔·씨'의 '씨'에서 된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③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아래아)'를 사용하였다.

⑤ '기픈'은 '깊+은'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은 이어 적기를 하여 '기픈'으로 표기하였다.

07 <보기>의 ㄱ은 의미의 축소가 이루어진 단어이고, ㄴ은 의미의 이동이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와 관련된 단어를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서 각각 찾으면 '·놈'과 '·어엿·비'이다.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미가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수·빔’은 중세 국어에서 ‘쉽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변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④ ‘말썸·미’의 ‘말썸’은 중세 국어에서 ‘말’의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말’의 높임말이 되었다. 따라서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쁘·들’의 ‘·쁘’는 ‘뜻’이라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현대 국어에서 형태만 변화된 단어이다.

⑤ ‘전·초·로’의 ‘전·초’는 중세 국어에서 ‘까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변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08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여 ‘·쁘·들’, ‘·노·미’가 된 것이므로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에서의 모습은 ‘뜯을’([㉠]), ‘눔이’([㉡])일 것이다.

09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가)의 1문단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와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하였다.	상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서술하였다.	하

10 통신 언어나 줄임말의 경우는 기존의 언어를 변형하거나 줄여서 쓴 것이므로 기존 단어로 바꾸어 쓰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의 사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신조어, 줄임말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단어가 사장되거나 의사소통의 단절과 혼란을 불러와 우리말의 가치 왜곡과 의사소통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③ 가상 공간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면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줄임말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언어가 등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④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줄임말과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11 ㉠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경우이고, ㉡는 가상 공간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저 UCC는 이 영화와 싱크로율이 100%이다.’는 불필요하게 외래어와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고 ‘UCC’는 ‘손

수 제작물’로 바르게 고쳐 썼으나 ‘싱크로율’은 ‘완성도’나 ‘정확도’를 나타내는 말로, ‘표절’과는 거리가 있다. ‘싱크로율’은 ‘일치율’이라는 순화된 말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트렌드 세터들이 즐겨 찾는 럭셔리 아이템입니다.’는 지나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우리말을 사용하여 ‘유행 선도자들이 즐겨 찾는 고급 상품입니다.’로 바르게 고쳐 썼다.

③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해 주세요.’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우리말을 사용하여 ‘커피 한 잔 포장 구매합니다.’로 바르게 고쳐 썼다.

④ ‘끼끼빠빠.’는 기존의 말을 규범에 맞지 않게 줄여 쓴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원래 형태대로 ‘끼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로 바르게 고쳐 썼다.

⑤ ‘저 사람 고답이야.’는 ‘고답이(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는 것처럼 답답하게 구는 사람)’라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이를 순화하여 ‘저 사람 꽤 막힌 사람이야.’로 바르게 고쳐 썼다.

12 이 시조는 내가 남의 말을 하면 남도 나의 말을 하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신중하게 말하는 우리나라의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

13 ㉠에는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답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김 선생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친구의 잘못을 친구가 알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②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친구가 알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③ 친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친구가 가난한 생활을 이유로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것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친구의 가난한 생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므로 친구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14 여학생은 문제를 틀려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돌려 말하며 위로해 주는 말하기 태도가 필요하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돌려 말하기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적용해야 함을 서술하였다.	상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돌려 말하기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과 연관 지어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술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기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만 서술하였다.	하

15 뉴스 진행자는 평론가의 말을 인용하여 출연자가 혁명적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다(㉠). 또한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의 말에 ‘과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뉴스 진행자는 출연자에게 구체적 수치를 들어가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호응하기는 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돌려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

시험 직전, 최종 실전 평가



1.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본문 280~283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⑤
07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면
을 그렸기 때문에 08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가): ㄷ (나): ㄱ

01 (가)의 학생의 글은 자신의 꿈인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로봇 공학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1문단은 소개할 내용 안내, 2문단은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의 구성 요소, 로봇 공학을 이루는 세부 공학 분야, 3문단은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4문단은 로봇 공학의 전망과 자신의 꿈에 대한 응원 당부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로봇 공학자에 대한 소개’라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내는 로봇 공학자’가 제목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내용에 해당할 뿐이다.
③ 로봇 제작을 담당하는 분야와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3문단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⑤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2문단의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02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되,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수집한 자료 중 활용할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 공정한 자료, 믿을 만한 자료, 전달하려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 예상 독자의 요구나 기대 및 관심이나 배경지식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가)의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선지와 (가)의 글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서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가)의 글은 로봇 공학과 로봇 공학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로봇 공학을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정보와 그 대학에서 배우는 주요 학습 내용은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는 (가)의 주제와도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로봇 공학의 전망을 다룬 동영상에 참고하여 4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에 대한 책을 참고하여 2문단의 앞부분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로봇 공학에 필요한 지식을 설명한 백과사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2문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소개한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3문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03 (가)의 글쓴이는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학생이다. 로봇 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를 발표한 논문은 어렵고 전문적이어서 글

쓴이의 수준에 적절한 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가 독서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로봇 공학 분야와 관련된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로봇 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은 추천자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므로 읽어 볼 만하다.
④ 로봇 공학 분야의 세부 업무를 소개한 책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로봇 공학 분야의 각종 정보를 담은 잡지는 해당 분야의 최신 소식과 화제의 인물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4 어떤 글을 읽은 독자가 글에 대한 반응을 댓글로 쓸 때에는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밝힐 수 있다. (나)에서 독자가 쓴 댓글이 글쓴이에 대한 요청, 격려, 권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글쓴이의 반응을 예상하며 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② 인터넷상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소통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의 요구나 의견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수용하여 글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자신이 쓴 글을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취향이나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05 (마)는 서양에서 측면 상으로 표현하는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뚜렷이 살아난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⑤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파리 테르트르 광장에서 화가들이 인물의 옆얼굴만 그리는 풍경을 통해 옆얼굴이 얼굴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사람의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이라는 프로필의 개념을 밝히고, 서양에서는 프로필이 발달하였으나 동양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제시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몇몇 동물들의 예를 나열하면서 동물마다 각인된 전형적인 면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뉴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 그림에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을 통해 인간은 옆면과 앞면의 두 개의 경쟁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06 읽기 전 과정에서는 읽기 목적을 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배경지식, 제목, 사진, 그림 등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읽은 글을 읽어 볼 것을 권하는 것은 글을 모두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⑤는 읽기 전 과정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② 글을 읽는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읽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③ 글의 내용과 글에 담긴 시각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은 읽기 전 과정에 적절한 활동이다.
④ 읽기 전 과정에서 제목의 생소한 용어에 대해 알고 싶다고 느끼고 궁금증을 가졌다면 읽는 중 과정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07 인간은 진화하여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 이미지 면이 되었는데, 「늑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인물은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으로 그려졌다. 이는 곧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면을 그린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부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였고 문장의 형식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부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내용은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문장의 형식을 〈조건〉에 맞지 않게 서술하였다.	중
문장의 형식은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08 (가)에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에서, 특정 시기에만 발달했다고 하였고 (나)에서 이러한 시각적 재현은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각 상은 특수한 표현이고, 촉각 상은 보편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촉각 상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방식이므로 일부 지역에서만 발달했다고 볼 수 없고, 이 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미술의 일차적 기능을, (나)에서 미술의 보편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자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자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라는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고유 인식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고대 이집트인이 사람을 그릴 때는 정면과 측면을 병합하거나 정면이나 측면 중 어느 한쪽에서 본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고대 이집트인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촉각 상을 바탕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각적 사실이 아니라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답 풀이 ① ‘그 전통’은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전통을 말한다.

② ‘시각적 사실의 재현’은 곧 시각 상을 중시하며 그린 것이다.

③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은 시각 상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⑤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은 시각 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10 이 글은 시각 상과 촉각 상이라는 개념과 특징을 고대 이집트 벽화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미술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드러내는 예술이라는 미술의 정의(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림을 대하는 방식은 미술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③ 촉각 상이 보편적인 표현 현상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촉각 상을 바탕으로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다)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그린 그림과 신분이 높은 사람을 그린 그림을 대조하며 그림마다 고유한 표현 기법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미술의 정의를 제시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⑤ 미술이 공간 예술이라는 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 예술로서의 성격만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가 아닌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11 (가)에서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 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자동차에 생명 공존 문화를 접목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그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자동차에 생명 공존 문화를 접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 위험과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등 보행자가 운전자에 비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평등한 자동차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나)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어머니가 처음 구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고 하면서 『왕자와 거지』를 읽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왕자와 거지』를 읽고 영국의 헨리 8세, 중세 궁정의 풍속도,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책을 읽는 일 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앎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고 하며 독서를 통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앎의 만남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2 (가)는 논설문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그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나)는 수필로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글쓴이가 관찰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담고 있다.

③ (가)의 글쓴이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어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나)에 타인의 입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나)는 글쓴이가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는 현재 자동차 문화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3 (가)는 논설문이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 보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나)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므로 글의 주제를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ㄴ. 설명문을 읽을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읽기 방법이다.

ㄹ. 글쓴이의 입장이 자신과 다를 경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거나 왜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쓴이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은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본문 286~291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③ 05 ④ 06 ② 07 ④
08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에 아들이 아닌 구렁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아들의 환생으로 보고 충격을 받아 졸도한 것이다. 09 ① 10 ④ 11 ⑤ 12 ② 13 ③ 14 ④
15 '전단'은 지소가 월리를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기 위해 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의 개임을 알게 되자,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전단을 감춘 것이다. 16 ④
17 ⑤ 18 ⑤ 19 ④ 20 ④ 21 ③ 22 ⑤

01 (가)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데 그 대상은 고향의 평화롭고 따뜻한 정경과 함께 아버지와 누이, 그리고 아내의 모습도 있다. (나)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가)와 (나)의 공통점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음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질화로'를 통해 볼 때 현대가 아닌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 (나)는 '아파트, 승합차'로 보아, 현대를 배경으로 하므로 동일한 시대 배경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는 각 연이 독립된 장면으로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 것이 아니다.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있다.

④ (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중심이고, (나)는 주인공인 지소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 중심이다.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만 '실개천, 황소, 질화로, 짐배개' 등 향토적 소재를 통해 현장감을 주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 (가)의 화자는 고향을 떠난 상태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반면 화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는 (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각 연의 끝에 후렴구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1~5연은 각각 고향 마을, 아버지, 화자의 유년 시절, 누이와 아내, 고향 집 등을 중심 소재로 하여 독립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③ '옛이야기 지줄대는, 해설피, 함추름' 등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사하여 전개하고 있다.

④ '파아란 하늘빛(시각)',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청각)', '따가운 햇살(촉각)', '금빛 게으른 울음(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향의 정경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03 (가)의 '별'은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의 '별빛'은 갈등의 해소 후 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② (가)의 '별'은 화자가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떠올린 고향 집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요소이며, (나)의 '별빛'은 과거가 아닌 현재 인물이 있는 곳의 배경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과거 회상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별'은 화자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며, (나)의 '별빛'은 주제와 직접 연관되기보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가)의 '별'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뿐, 단란했던 고향 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별빛'은 지소 가족이 갈등을 끝내고 화목한 가운데 이와 어울리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할 뿐,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별'은 소망을 기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에서 지소는 아빠가 빨리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별빛'을 향해 그 소망을 기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①은 '울음(청각적 이미지)'을 '금빛(시각적 이미지)'으로 전이시켜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진 공감각적 표현이다. 반면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금으로 타는 태양(시각적 이미지)'을 '울림(청각적 이미지)'으로 전이시켜 시각의 청각화가 이루어진 공감각적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풀벌레 소리(청각)'를 '가득 차 있었다(시각)'라고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이다.

② '울음(청각)'을 '꽃처럼 붉은(시각)'으로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지는 표현이다.

④ '벌레 소리(청각)'를 '젖어 흐른다(시각)'라고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지는 표현이다.

⑤ '가벼운 웃음(청각)'을 '흩어져 있었다(시각)'라고 전이시킨 청각의 시각화이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감상: 이 시는 아국땅에서 죽음을 맞은 아버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비애를 절제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② 서정주, 「문둥이」

주제: 천형(天刑)의 운명과 인간 존재의 비극성

감상: 이 시는 문둥이를 통해 세상과 합일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③ 박남수, 「아침 이미지」

주제: 생동감이 넘치는 광명의 아침의 모습

감상: 이 시는 어둠이 온갖 물상(온갖 사물)을 낳는다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아침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④ 신석정, 「대숲에 서서」

주제: 지조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

감상: 이 시는 대나무 숲을 보면서 대나무처럼 곧게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⑤ 김광균, 「외인촌」

주제: 현대인의 고독감

감상: 이 시는 아국적 정취를 바탕으로, 화자의 고독감과 우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상화하고 있다.

05 ㉔는 정현이 차에서 살며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빠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소가 알아차린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말이므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정현을 바라보고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아이들을 찾은 후의 안도감과 속상함이 뒤섞인 마음에서 등을 때리며 하는 말이고, 이후 지소를 끌어안는 것으로 보아 원망이 담긴 것은 아니다.
 ② 엄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자신의 신세 한탄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반응이므로 신세 한탄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지소가 자신(정현)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음을 아는 상황이므로, ㉔는 무덤덤하기보다는 지소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담긴 행동이다.

06 (나)에서 ‘나’가 작대기를 든 것은 갑자기 나타난 구렁이에 대해 어린이로서의 순수한 적의와 파괴욕 때문이지, 할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렁이가 할머니를 해친 것이 아니고 구렁이가 삼촌이 죽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한 할머니가 그 절망감에 줄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고 점쟁이가 예언한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무 날’이 중요하며 아들의 귀환을 굳게 믿고 있다.
 ③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이승의 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침착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건네며 달래고 있다.
 ④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외할머니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화해를 하고 있다.
 ⑤ ‘나’도 할머니를 용서하며 화해를 한 것은 ‘나’가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7 <보기>의 시점의 기준을 보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하지 않으므로 작품 밖에서 서술하는 3인칭 시점이고, 인물의 내면 파악이 가능하므로 전지적 시점이다. 이에 따라 서술자는 전지적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와 행동 등에 대해 서술할 수 있으므로, (나)에서 외할머니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짐작할 수 없도록 ‘엄한 꾸지람’ 등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의 의도나 사정 등을 전부 다 알고 서술하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나)에는 외할머니가 ‘나’의 작대기를 뺏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지적 시점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② 전지적 시점이므로 가족 등 다른 인물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③ 3인칭 시점으로 바뀌므로, 1인칭의 서술자 ‘나’는 작품 속 이름으로 등장해야 한다.
 ⑤ 1인칭 관찰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 서술자가 달라지므로, 할머니가 줄도하는 상황을 작품 밖의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면 ‘나는 목격했다.’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08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에 아들 대신 구렁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일 내로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은 할머니로서는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머니는 이에 충격을 받아 줄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할머니의 줄도’ 이전 및 이후 상황을 바탕으로, 구렁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구렁이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만을 바탕으로 하여 ‘할머니의 줄도’의 이유를 서술하였다.	중
구렁이에 대한 할머니의 인식을 포함하지 않고, ‘할머니의 줄도’를 단순히 구렁이와 연관 지어 서술하였다.	하

09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하며 상대가 처한 상황을 상기시키고 있으며(ㄱ),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이라고 말하며 상대의 심정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ㄴ). 그리고 집안 식구나 노친(할머니)의 마음을 언급하며 주변인들의 심정을 짐작하게 하여 떠나도록 유도하여(ㄷ)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ㄷ. 상대를 걱정하며 달래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구렁이에 게 어떤 위해가 가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ㄹ. 가족이나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하게 밝혀 전달하는 내용은 없다.

10 할머니는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삼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날’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자기 눈에 물 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자신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뜻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좌정관천(坐井觀天)은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다는 의미이다.
 ③ 오비이락(鳥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맞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⑤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11 (마)에서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문장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서술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민족의 불행을 상징하는 길고 지루한 장마가 끝났음을 언급하면서 형식적으로 한 줄 띄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끝맺음을 통해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장마는 축축하고 지루하여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작품의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장마는 오랜 기간 많은 비를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장마는 이 작품에서 가족이나 민족의 불행을 상징하므로, 이와 같은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곧 가족과 민족을 둘러싼 갈등이나 암울한 분위기 역시 건널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③ 장마는 가족이나 민족의 불행을 의미한다. 그것이 끝났다고 하였으므로 작품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가족의 갈등이나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이 작품에서 ‘나’의 가족이 겪는 비극이자, 당대 우리 민족의 비극은 곧 육이오 전쟁을 의미한다.

12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이다.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시나리오는 신(Scene)을 구성단위로 하며, 편집 등에 의해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④ 시나리오는 배우가 촬영 현장에서 연기로 재현하므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현재형으로 제시된다.

⑤ 시나리오는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하는 희곡과 달리,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여 영화 촬영에 필요한 공간이나 인물의 수, 시간 등에서 제약이 거의 없다.

13 [A]는 지소의 내레이션이다. 지소는 월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라며 사례금을 받아 생일 파티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소의 내면 갈등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지소의 생각이 드러나는 내레이션 부분이다. 따라서 희곡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무대 위의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방백에 해당하는 장면이다.

④ 지소는 개를 훔쳤고, 사례금을 오백만 원 요구할 것이고, 이후 집을 구하여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14 인서트(Ins.: insert)는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과 화면 사이에 삽입하는 화면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S# 84'에 'S# 66'의 일부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관객이 월리와 '윤서오'라는 화가의 관계를 빨리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그러나 'S# 66'의 전체 장면이 아닌 일부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S# 66'의 사건의 진행을 축약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S# 66'을 삽입함으로써 이 장면을 보여 주지 않을 때보다 사건이 늦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월리의 방울 목걸이를 떼며 보았던 이름표의 인물과 화가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목걸이의 이름을 떠올린 지소나 인서트 장면을 본 관객이 월리의 주인이 '윤서오'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⑤ 'S# 66' 장면이 없다면, 관객들이 월리와 윤서오의 관계를 빨리 연관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서트 기법을 통해 관객이 사건의 흐름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5 '전단'을 발견하는 것은 지소가 집을 구하기 위한 계획에 꼭 필요한 단계이다. 개를 찾는 전단이 불고, 그 전단에 사례금이 명시되어야 월리를 돌려주고 돈을 받아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소가 전단을 들고 노부인을 찾아온 것은 사례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지소는 노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가지고 온 전단을 감춘다. 이를 통해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과 이후 지소가 월리를 돌려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전단의 의미를 밝히고, 전단을 감춘 이유(월리가 노부인의 죽은 아들인 윤서오의 개임을 알고 지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임.)를 서술하였다.	상
전단의 의미를 밝히지 않고, 전단을 감춘 이유만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
전단을 감춘 이유를 서술하지 않고, 전단의 의미만을 서술하였다.	하

16 (다)에서 지소는 자신의 잘못을 노부인에게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노부인이 이에 대해 확인하듯이 묻자 지소는 다시 한번 자신이 월리를 훔쳤다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처럼 말하기가 어려워 긴장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심정을 나타내는 지시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이므로 발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므로 원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체념할 이유가 없다.

③ 긴장되고 초조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⑤ 지소가 많이 망설이다가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무 일도 아닌 척 말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7 노부인은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여 상심하고 있었는데 월리가 돌아와 내심 기뻐하고 있으므로, 월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지소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잃어버린 거 아니다. 월리는 집을 나간 거야."라는 말을 통해 노부인이 월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제 발로 집을 나간 거야, 월리는. (혼잣말로) 모두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야."라는 말을 통해 노부인이 월리가 자신을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여 상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소는 노부인과 아들, 그리고 월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노부인에게 월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노부인에게 소중한 존재인 월리를 돌려보내면서 지소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아빠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다)에서 월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채워 주면서 말하는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소는 월리를 훔친 뒤 월리 목에 달려 있던 방울 목걸이를 떼었는데, 월리를 돌려주며 방울 목걸이를 다시 월리에게 달아 주는 모습에서 월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것처럼 월리의 모습을 처음과 같이 매만져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글이므로, 소설과 같이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하기보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서술한다.

오답 풀이 ①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②, ③ 글쓴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된 소재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며,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④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글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19 (라)에서 글쓴이는 햇빛은 참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 참나무를 보러 산에 올라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참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원한 그늘을 내주고 미소를 짓거나 무어

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는 데서 '나'가 참나무에게서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참나무를 우주 나무로 삼았다는 것은 참나무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봄에 대못을 빼냈던 상처가 겨울이 되어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⑤ 첫 번째 문장에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며 자기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며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20 이 글의 '혈벙은 나무(참나무)'가 찬바람 속에서도 무연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 주는 존재인 반면, <보기>의 '붉은 꽃'은 백일홍이 폭풍이라는 시련을 이겨 내고 맺은 결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대상의 의미는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의 '혈벙은 나무'와 의미가 통하는 대상은 <보기>의 '백일홍'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이 글의 '겨울(찬바람)'과 <보기>의 '여름(폭풍)'은 각각 참나무와 백일홍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이다. 또한 참나무와 백일홍은 각각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존재이다.

⑤ 이 글의 참나무와 <보기>의 백일홍이 시련에 굴하지 않은 모습을 각각 '무연히 서 있었다.'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이성복, 「그 여름의 끝」

주제: 시련 극복을 통한 생명력의 실현

감상: 이 시는 자연물과 화자를 대응시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곧 화자는 폭풍에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무사히 이겨 낸 백일홍을 통해 자신의 시련과 절망도 극복했음을 드러내면서 깨달음이란 고통 없이 오지 않는 것이라는 통찰을 표현하고 있다.

21 ㉠의 '짜'는 '~기 짝이 없다'는 식으로 쓰여, '비할 데 없이 대단하거나 매우 심한.'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반갑기 짝이 없었다.'와 같이 비할 수 없을 만큼 반갑다는 의미로 쓰인 ㉢이다.

오답 풀이 ① '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아무'의 뒤에 쓰여, 소용되는 바를 뜻하는 말이다.

④ 단번에 벌어져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⑤ '무슨'의 뒤에 쓰여, 모양새나 형편을 낮추는 말이다.

22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다. 참나무는 겨울에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근 채 찬바람 속에서 무연히 서 있으며, 이런 계절의 변화나 아물지 않은 상처에도 아무 말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본 글쓴이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원망하지 않았는지,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글쓴이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기대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희로애락의 인간의 감정을 일체 드러내지 않겠다는 내용은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②, ④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한 그루 나무처럼 겉모습을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3. 영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본문 293~297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②, ④ 11 ③ 12 재민네 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여섯 시까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3 ① 14 ④ 15 (가)는 글쓴이의 주장을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며, (다)는 참여자 간의 협의(협상)를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16 ② 17 ㉔: 부정적 ㉕: 긍정성 18 ⑤ 19 ③

01 이 글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그것의 해결 방안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드러내고 있다.
③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김새롬 군의 이야기를 구체적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
⑤ '스마트폰의 두 얼굴'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이후 전개될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나)를 보면 스마트폰의 누리소통망(SNS)은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 밤을 새우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나)~(다)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이득과 폐해를 모두 제시하면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스마트폰의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가)의 사례에 나온 김새롬 군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이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교우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고 음악이나 영화도 감상하며 유용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
② 스마트폰에 푹 빠지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부모님은 학습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김새롬 군은 공부 외의 다양한 측면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
⑤ 누리소통망(SNS)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며 재미를 느끼는 김새롬 군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4 입시와 학교 공부로 바쁘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고, 친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해결 방안이다.

오답 풀이 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스마트폰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해결 방안이다.
③ 문제 해결의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면 적절한 반응이지만 <보기>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일을 할 때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요술 방망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3어절의 중심 내용과 함께 서술하였다.	상
스마트폰을 요술 방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중심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스마트폰이 요술 방망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만 서술하였다.	하

06 ㉔는 숫자 9의 모양과 같이 스마트폰을 할 때 고개 숙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고, ㉕는 무엇인가에 얽매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㉔를 통해 대상의 외형적 특징을, ㉕를 통해 대상의 내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㉔는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나인'이라는 명사에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 무리를 뜻하는 접사 '-족(族)'을 붙여 만든 신조어를 제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가 아닌 ㉔가 신조어이다.
②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㉔에 반영되어 있다.
③ ㉔는 숫자가 맞지만, ㉕는 숫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㉔, ㉕는 모두 대상의 장점과는 관련이 없다.

07 협상은 일정한 절차로 진행된다.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의 단계를 밟는데 (가)는 시작 단계, (나)는 조정 단계, (다)는 해결 단계에 해당된다. 조정 단계는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단계이므로 ④의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에 적절하다.
② 조정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나)에 해당된다.
③, ⑤ 시작 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에 해당된다.

08 이 협상에서 정연과 재민은 둘 다 대회 준비를 위해 음악실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는 문제로 인해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그동안 음악실의 청소는 밴드 동아리가 담당해 왔다.
② 외부 대회 참가자만 음악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나)의 재민의 말('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 권리가 있어.')을 통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교내 합창 대회와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의 일정은 겹치지 않았다.
 ⑤ 재민네 받은 교내 합창 대회 연습을 이유로 음악실을 사용하고자 한다.

09 (나)에서 정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평가 기준은 정중한 표현과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 오답 풀이** ① ‘(흥분한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파악하여 말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발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④ 밴드 동아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10 (다)에서 재민과 정연은 협상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재민은 주말에는 음악실을 밴드 동아리가 사용하게 되어 주말에 연습할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여 교실에서 연습하기 위해 밴드 동아리에게 전자 피아노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정연은 주중에 재민네 반에 음악실을 양보한 상태에서 음악실 청소까지 하면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며 청소년 밴드 경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음악실 청소를 재민네 반이 맡아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재민이다.
 ③ ‘서로 잘해 보자.’라고 한 것은 음악실 사용 문제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며, (다)에서 재민과 정연이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다)에서 정연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시 협의할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 ㉠에서 재민은 각 대회의 참가 시기만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을 뿐, 대회의 위상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재민은 ‘우리가 음악실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잖아.’와 같이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자며 협상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의 ‘너도 알다시피’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의 ‘(흥분한 목소리로)’를 통해 자신이 나가는 대회가 더 위상이 높은 대회임을 밝히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는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 내리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진정하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1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씩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고, 주중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정연의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평일 시간대의 활용 방법, 주말 시간대의 활용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평일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의 활용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3 (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성인의 2배 정도라고 했을 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4.0퍼센트, 잠재적 위험군은 27.6퍼센트라고 하였으므로 총 31.6퍼센트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외모가 곧 능력’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외모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⑤ (나)의 ‘정상 체중인 여학생 중 34.7퍼센트가 자기가 살찐 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외모에 대한 집착과 한국 여학생의 신체 왜곡 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4 (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인원의 비율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나) 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판을 조사 자료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15 (가)는 논설문, (다)는 협상 담화로, 둘 다 우리 삶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가)는 글쓴이의 주장을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며, (다)는 협상 참여자 간의 협의(협상)를 통해 해결 방안(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다)의 해결 방안 제시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가)와 (다)의 해결 방안 제시 방법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6 (가)에는 스마트폰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한편 제시된 자료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를 추가하려 할 때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은 제시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제시된 자료에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제시된 자료에는 아동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중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17 제시된 해결 방안에서는 대중 매체에서 외모를 희화화하지 말고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중 매체에서도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외모의 가치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해결 방안의 내용이 어느 한쪽 측면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주말은 밴드 동아리가 음악실을 사용하고 그 대신 평일 특정 시간에는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한다는 대안은 재민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ㄴ은 재민의 대안을 정연이 받아들인 것이다.

19 ㉠은 상대방의 말뜻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표현이고, ㉡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은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본문 300~303쪽

01 ㉠ 02 ㉠ 03 ㉢ 04 ㉠은 기본형이 '안다'로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오는 경우이므로 된소리인 [안따]로 발음한다. ㉠은 기본형이 '알다'로 된 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다]로 발음한다. 05 ㉡ 06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난나치 07 ㉡ 08 ㉡ 09 ㉡ 10 ㉣ 11 ㉠: 인사말, '한자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이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베갯잇, '고유어 +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진실하게 써야 하는데 거짓으로 썼으므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01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02 '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몬하다]가 된다. 이후에 'ㄷ'과 'ㅎ'이 합쳐져 'ㅌ'의 한 개 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모타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산새'는 [산새]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결과이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 '내복약'은 비음화(㉡)에 따라 [내봉약]이 되고, 이후에 'ㄴ'이 첨가(㉢)되어 [내봉낙]으로 발음된다.

㉣ '웃 한 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온한벌]이 된다. 이후에 'ㄷ'과 'ㅎ'이 합쳐져 'ㅌ'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오탄벌]로 발음된다.

㉤ '직행열차'는 'ㄱ'과 'ㅎ'이 합쳐져 '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지캥열차]로 발음된다. 이후에 'ㄴ'이 첨가(㉢)되어 [지캥널차]로 발음된다.

03 '따라'는 어간 '따르-'에 'ㅌ' 모음이 결합하면서 'ㄴ' 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따라서 'ㅌ' 모음이 아닌 'ㄴ'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 '밥물'은 [밥물]로 소리 나는데 파열음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비음화 현상이다.

㉡ '꽃혀'는 [꼬쳐]로 소리 난다. 이는 받침 'ㅈ'이 뒤에 오는 'ㅎ'과 결합하여 'ㅊ'의 하나의 소리로 축약되어 소리 나는 것으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해당한다.

㉣ '해돋이'는 [해도지]로 소리 나는데 끝소리가 '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 'ㄷ'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구개음화 현상이다.

㉤ '전라도'는 [절라도]로 소리 나는데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뀐 것이다. 이는 유음화 현상이다.

04 <보기 1>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은 'ㄴ, ㄹ'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이다. <보기 2>의 ㉠은 기본형이 '안다'로 'ㄴ'으로 발음되는 용언의 어간 받침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오는 경우이므로 된소리인 [안따]로 발음한다. 이것은 ㉠이 된소리되기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은 기본형이 '알다'로 여기서의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다. 즉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다]로 발음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와 ㉡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와 ㉡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만을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이유와 ㉡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그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05 '갈등(葛藤)'은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이 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갈똥]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주꾸미'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주꾸미]로 발음해야 한다.

㉢ '동그라미'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동그라미]로 발음해야 한다.

㉣ '관건'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관건]으로 발음해야 한다.

㉤ '교과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교과서]로 발음해야 한다.

06 '날날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ㅌ'이 'ㄷ'으로 바뀌어 [난날이]가 된다. 이것이 끝소리가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와 만나는 구개음화의 환경을 충족하여 [난나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통해 [난나치]로 발음된다.

07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란/난(欄)'은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다. 고유어와 외래어 명사 뒤에서는 '난'으로, 한자어 명사 뒤에서는 '란'으로 적는다. '독자란(讀者欄)'과 같이 '欄'이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란'이라 적는다. 그러나 '어린이 + 란(欄)'과 같이 '欄'이 고유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린이난'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 한자 '숨길 녀(匿)'은 이 규정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익명(匿名)'처럼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때에는 '은닉(隱匿)'처럼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이 규정에 해당하는 예로는 '양심(良心)', '역사(歷史)', '예의(禮儀)' 등이 있다.

④ ‘백분율’에서 ‘률’은 ‘ㄴ’ 받침 뒤에 이어지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율’로 적어야 한다.

⑤ 두음 법칙은 ‘라디오’, ‘뉴스’ 등과 같은 외래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08 ‘나갔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의 ‘ㄷ’이 ‘ㄷ’으로 바뀌어 [나간네]가 된다. 이후에 ‘ㄷ’이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거쳐 [나간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넋이’는 겹받침 ‘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되므로 ‘ㄷ’이 연음되어 [넉시]가 되고, ‘ㄴ’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ㄷ’이 오므로 된소리되기에 의해 [넉씨]로 발음된다.

③ ‘단팔이’는 끝소리가 ‘ㅍ’인 형태소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ㅍ’이 구개음 ‘ㅍ’으로 발음되므로 [단파치]로 발음된다.

④ ‘늑지도’에서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므로 [늑지도]가 되고, ‘ㄴ’으로 발음되는 받침 뒤에 ‘ㄷ’이 오므로 된소리되기에 의해 [늑찌도]로 발음된다.

⑤ ‘밤낮으로’는 홑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홑받침은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제 음가대로 발음되므로 [밤나즈로]로 발음된다.

09 ‘닫히다’가 [다치다]로 발음되는 것은 끝소리가 ‘ㄷ’, ㅍ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ㅟ, ㅢ’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ㅍ’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인 구개음화에 따른 것이다. ‘제12항-1’은 거센소리되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닫히다’는 [다치다]로 발음되기 전 ‘ㄷ’이 ‘ㅎ’과 만나 ‘ㅌ’이 되어 [다티다]로 발음되는데, 이것이 거센소리되기의 결과로 ‘제12항-1’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센소리는 숨이 거세게 나오는 자음으로 국어의 ‘ㄷ, ㅌ, ㅊ, ㅍ’이 있다.

③ 음운의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으로, 표기와 달리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한 개가 줄어든다.

④ ‘ㄸ’ 뒤에 ‘ㄷ’이 결합하면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ㄸ]으로 발음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예이다.

⑤ ‘ㅎ’과 ‘ㄴ, ㄷ, ㄷ’이 결합하여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고 한 것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운으로 소리 나는 현상, 즉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10 ‘앞으로[아프로]’는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한 경우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라 발음한 것이다. ‘값을[갑썰]’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한 경우로,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발음한 것이며 ‘ㅅ’은 규정에 맞게 된소리로 발음하였다.

오답 풀이 ① ‘뉘대[덕따]’는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른 것이고, ‘웃이[오시]’는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른 것이다.

② ‘닭은[달글]’과 ‘할애[할타]’ 모두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른 것이다.

③ ‘절어[절머]’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른 것이고, ‘있다[일따]’는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른 것이다.

⑤ ‘뉘이대[더피다]’와 ‘꽃을[꼬썰]’ 모두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른 것이다.

11 ‘인사말’은 ‘한자어(인사(人事)) + 고유어(말)’로 된 합성어이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고 [인사말]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베갯잇’은 ‘고유어(베개) + 고유어(잇)’로 된 합성어로 앞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인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 [베갯넛]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두 단어 모두 올바르게 표기하고,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상
두 단어 모두 올바르게 표기하였으나, 그 이유는 하나만 〈조건〉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중
두 단어 중 하나만 올바르게 표기하고, 그 이유도 하나만 〈조건〉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하

12 ④의 밑줄 친 부분은 ‘ㅍ’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ㄴ, 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야단 법석’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깍 두기’로 적는다.

②, ③ ‘ㄴ’ 받침과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잔뜩’과 ‘살짝’으로 적는다.

⑤ ‘해쓷하다’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해췌하다’로 적는다.

13 ‘꾸준히’는 형용사 ‘꾸준하다’의 어근 ‘꾸준-’에 ‘-히’가 붙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일찍이’는 ‘일찍’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뜻을 더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슬며시’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슬며시’라고 적는다. [붙임]의 규정에 적용되는 예로, ①과 ① 모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느긋이’는 형용사 ‘느긋하다’의 어근 ‘느긋-’에 ‘-이’가 붙어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한 태도로’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② ‘어렴풋이’는 형용사 ‘어렴풋하다’의 어근 ‘어렴풋-’에 ‘-이’가 붙어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이므로 [붙임]의 규정에 따라 소리대로 ‘갑자기’라고 적는다.

③ ‘정확히’는 형용사 ‘정확하다’의 어근 ‘정확-’에 ‘-히’가 붙어 ‘바르고 확실하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이다. ‘깨끗이’는 형용사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에 ‘-이’가 붙어 ‘사물이 더럽지 않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이다. 둘 다 ①의 예로 적절하다.

⑤ ‘더욱이’는 ‘더욱’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그러한 데다가 더’라는 뜻을 지닌 부사가 된 경우로 그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하므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낙낙히’는 형용사 ‘낙낙하다’의 어근 ‘낙낙-’에 ‘-히’가 붙어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조금 크거나 남음이 있는 정도로’라는 뜻의 부사가 된 것으로 ①의 예로 적절하다.

14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그가(대명사+조사) ∨ 떠난(동사) ∨ 지도(의존 명사+조사) ∨ 벌써(부사) ∨ 삼십(수사) ∨ 년이(의존 명사+조사) ∨ 흘렀다(동사).’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5 ‘아는이름’에서 ‘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그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아는 이름’으로 적는 것이 올바른 띄어쓰기이다. 의존 명사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으므로, 보조 용언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8항에서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이철 씨’라고 띄어 쓴다.

③ ‘가마니’는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라는 뜻의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두 가마니’라고 띄어 쓴다.

④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청군 대 백군’이라고 띄어 쓴다.

⑤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하였으므로, ‘할 수밖에’라고 띄어 쓴다.

16 ‘깨 + 앞’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인 환경에서 ‘ㄴ’ 소리가 덧나 [꺾임]으로 발음된다. 이는 1-(3)의 조항에 부합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꺾임’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깨 + 앞’과 관련된 조항은 1-(2)가 아니라 1-(3)이다.

오답 풀이 ② ‘해 + 수(數)’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이에 2-(1)을 적용하면 [해쑤/헐쑤]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헐쑤’로 적는다.

③ ‘배 + 길’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이에 1-(1)을 적용하면 [배길/뽕길]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뽕길’로 적는다.

④ ‘제사(祭祀) + 날’은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이에 2-(2)를 적용하면 [제산날]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제산날’로 적는다.

⑤ ‘예사(例事) + 일’은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이에 2-(3)를 적용하면 [예산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예산일’로 적는다.

17 (가)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했을 뿐, 인터넷 매체가 사회적 여론을 공고하게 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

②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며, 이럴 경우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가 어렵다.

③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내는 등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④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18 (다)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사회적 윤리라고 한다.’를 통해 쓰기 윤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문헌 자료, 사진이나 그림, 음성이나 음향,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료는 윤리적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쓰기 윤리는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인터넷 매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매체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9 <보기>의 광고는 인터넷상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인터넷 매체는 익명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고 하면서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남몰래 숨어서 쓰는 나쁜 말’이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보면, 인터넷 매체에서는 글쓴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어 예절을 지켜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익명성이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므로,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터넷 매체는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 광고 문구 중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마세요!’는 서로 얼굴을 마주해도 할 수 있을 만한 예의 바른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광고를 포괄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 (가)에서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보기>는 올바른 언어 표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보기>의 글쓴이는 글을 쓸 때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에서는 자신이 가지 못한 백록담에 대해 아름다웠다고 기록하였으므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또한 ㉢에서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도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 ㉢에서 <보기>의 글쓴이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와 그 근거를 모두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 ㉢에서 <보기>의 글쓴이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는 정확히 밝혔으나 그 근거는 하나만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 ㉢에서 <보기>의 글쓴이가 위반한 쓰기 윤리의 종류는 정확히 밝혔으나 그 근거를 모두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본문 306~309쪽

- 01 ① 02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이 나 향토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등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08 ③ 09 엄마는 부탁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하고 있고, 서준은 거절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하고 있다. 10 ② 11 ③는 과거 시제이고, ⑥는 미래 시제이며, ⑥는 현재 시제이다. 따라서 ③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고 ⑥는 사건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이며, ⑥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12 ② 13 ⑤ 14 ①은 ①보다 말을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며, ①은 ①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15 ⑤

01 가는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지역 방송이라고 해도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이므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에서는 같은 사람이 대화 상황과 상대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나에서는 같은 지역 사람과의 대화 상황이라 지역 방언을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다에서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④ 같은 지역 사람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⑤ 가는 방송 보도라는 공식적인 상황이고, 나와 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02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향토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효과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제시된 지문에 국한하여 서술하였다.	하

03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性)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성 역할을 구분 짓는 사회적 고정 관념이 언어생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여자는 ‘-요’와 같은 비격식체와 ‘요걸로’, ‘안 그래요?’ 등의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남자는 ‘-버니까, 버니다’ 등의 격식체와 ‘급한 일 아니면 끊어.’와 같이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령조로 말하고 있다.

③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통해 성별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각각 사회적 위치와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남자는 ‘-버니까, 버니다’ 등의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완결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여자는 ‘-요’와 같은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뇨, 뭐 …….’처럼 미완성형 문장으로도 대화를 하고 있다.

04 이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전문 용어로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전문 용어의 사용 목적이 해당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과시하거나 존경심을 이끌어 내기 위함은 아니다.

③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어려워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④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질감이나 거리감을 줄 수 있다.

05 바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못 했어.”라고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완곡한 표현이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었으므로 거절을 유보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풀이 ① 나 의 남학생은 ‘내가 추워서 그러는데’라고 자기 처지를 설명한 후,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 줄래?’라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② 다 의 여학생은 ‘본관에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③ 라 의 남학생은 ‘먼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본관의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⑤ 사 의 남학생은 ‘늦어서 미안’이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근데 왜 여기서 보자고 그랬어? 길 막히는 데인지 몰랐어?’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다.

06 가, 다, 마, 사 는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말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등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07 나와 같이 부탁하는 말을 할 때나, 라와 같이 건의하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나와 라의 남학생이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와 라의 남학생이 고려하고 있는 점을 맞게 썼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8 대화의 원리 중에서 순서 교대의 원리는 대화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하고 있으므로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상대방이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을 뿐,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거나 상대방의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④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⑤ 상대방이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09 엄마는 서준에게 동생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오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준은 엄마의 부탁에 거절하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엄마와 서준의 말하기 상황을 각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엄마와 서준의 말하기 상황을 한쪽 입장에서만 서술하였다.	중
엄마와 서준이 처한 상황을 서술할 뿐 명료하게 각각의 말하기 상황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0 나에서는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조사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④ 다는 ‘되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가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 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은 과거 시제로 말하는 시점에 비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앞서고, ㉡는 미래 시제로 말하는 시점에 비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나중이며, ㉢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일치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의 시제를 모두 맞게 쓰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서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의 시제를 모두 맞게 쓰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 두 가지만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의 시제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 한 가지만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2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는 물건값이 전에 올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드러나므로, 「2」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영화가 잠든 것은 말하는 시점보다 전의 일이므로 「1」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③ 코스모스가 이미 피었고, 지금도 피어 있는 상태이므로 「2」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④ 비가 와서 내일은 소풍을 갈 수 없다고 미래의 일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말하고 있으므로 「3」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⑤ 이대로 공부하면 대학에 붙는 것은 확실하다는 의미이므로 「3」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13 제시된 방송 보도문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객관성이 약화되어 기자 의 주관적 의견을 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모두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 그 주체를 제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14 ㉠은 직접 인용 표현이고, ㉡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직접 인용 표현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전하는 듯이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간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보다 생생한 느낌을 덜하지만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과 ㉡의 표현 효과를 비교하여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과 ㉡의 표현 효과 중 일부만을 서술하였다.	하

15 ‘생각되어진다’는 ‘-되다’라는 피동 접사와 ‘-어지다’라는 피동을 만드는 표현을 중복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 표현이 되지 않게 ‘생각된다’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은 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된다’가 아니라 ‘생각한다’로 고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자기 스스로 하는 생각, 예상, 판단, 짐작 등을 말할 때 책임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판단된다’도 이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② 주어가 능동적으로 극복할 일인데도 ‘극복되다’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하며 ‘극복하다’로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모여지다’는 피동 접사 ‘-아-’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중복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고, ‘믿겨지다’는 피동 접사 ‘-가-’와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중복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요즘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남용하는 일이 많다는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한 이해이다.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본문 311~317쪽

01 ⑤ 02 ③ 03 ④ 04 (가)와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고 축제의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 05 ③ 06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한다. 07 ③ 08 ③ 09 ① 10 ③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③ 1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17 ③ 18 ㉠과 '마지막 땅'은 모두 강 노인의 땀방울이 묻어 있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은 계속 존재하는 공간이고, '마지막 땅'은 이제 곧 팔릴(사라질) 공간이라는 점에서 작가는 ㉠을 제시함으로써 강 노인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9 ⑤ 20 ① 21 ② 22 ④ 23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24 ① 25 ④ 26 ⑤

01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므로 (가)와 같은 방송 매체와 달리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가 쉽다. 그러나 (나)는 광고의 특성상 복잡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인쇄 광고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방송 매체, (나)와 (다)는 인쇄 매체로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이의 관점과 의도가 드러나 있다.

② (나)와 (다) 모두 인쇄 매체이므로 방송 매체인 (가)와 달리 주로 문자 언어로 정보를 전달한다. (가)는 주로 음성 언어, 영상, 자막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③ (가)는 방송 매체이므로 인쇄 매체인 (나), (다)와 달리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④ 신문 기사는 '표제 - 부제 - 전문 - 본문(-해설)'로 구성되는데 특히 표제와 기사 본문, 사진 등에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02 (나)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보령 머드 축제를 해외에 전파한 사례로 제시한 것일 뿐 둘을 비교하여 보령 머드 축제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하여 그가 머드 체험장을 찾았다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보령 머드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3만 9,000여 명으로 지난해 30만 4,000여 명보다 약 44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The 19th Boryeong MUD Festival'과 같이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03 방학을 맞은 젊은이들이 머드 축제를 즐긴다는 내용은 (가)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말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마지막 기자의 말에서, (나)의 보령 시장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뉴스 진행자의 말과 기자의 마지막 말에서, (나)의 '세계적인 축제

로 발돋움해 왔다.'와 보령 시장의 말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기자의 첫 번째 말에서, (나)의 3문단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기자의 두 번째 말에서, (나)의 1문단 '충남 보령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머드 원료 등을 수출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공정성이란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가)와 (나)는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하고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축제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보완할 점 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편견에 치우쳐 있으며 따라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나)의 내용이 긍정적인 면만 드러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내용으로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와 (나)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썼지만 그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가)와 (나) 중 하나만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기자의 말에서 '내년부터 5년간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므로 수출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머드 원액을 화물선에 싣고 있는 영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령 시장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령 시장의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령시가 뉴질랜드와 머드 원액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므로 협약 증서를 담은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기자의 말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띤다."를 통해 뉴질랜드 대사가 머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다.

06 (나)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이고, 축제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사진을 제시하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한다고 서술하였다.	상
'외국인', '세계적인 축제'라는 말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의미는 맞게 서술하였다.	중
'외국인', '세계적인 축제'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맞게 서술하였다.	하

07 ㉔의 앞뒤 문맥을 보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색의 머드를 얼굴에 발랐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에는 ‘그림이나 물건에 물이 들여지거나 색이 칠하여져 빛깔이 나게 됨.’의 의미를 지닌 ‘착색’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㉕에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열.’의 의미를 지닌 ‘개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㉖의 앞뒤 문맥을 보면 보령 머드 축제가 곧 세계적인 축제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㉖에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의 의미를 지닌 ‘명실상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㉔ ‘탈색’은 ‘섬유 제품 따위에 들어 있는 색깔을 뺌.’ 또는 ‘빛이 바랜.’의 뜻을 지닌다.

㉕ ‘개회’는 ‘회의나 회합 따위를 시작함. 또는 의회, 전람회, 박람회 따위를 열.’의 뜻을 지닌다.

㉖ ‘주최’는 ‘주창하여 개최함.’의 뜻을 지니는데,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 쓰인다.

㉗ ‘명실불부’는 명실상부와 반대되는 말로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지 아니함.’의 뜻을 지닌다.

08 매체를 읽을 때에는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전달하려는 내용과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㉓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방송, 인쇄, 인터넷 매체 등 각 매체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②, ⑤ 글쓴이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는지, 자신의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파악해야 그 표현 방법이 효과적으로 쓰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④ 글의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글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09 ‘구둣발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는 주 씨의 행위는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 씨가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나)의 ‘강 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와 (라)의 ‘강 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의 ‘씩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 건어불인 채인 팔뚝의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체 어려웠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의 ‘모종의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의 ‘강 노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 부동산이었으니까.’에서 알 수 있다.

10 (나)의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통해 강 노인의 밭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동네에 소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동네 아이들이 하루종일 집 밖에서 뛰어노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아 원미동은 소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지닌 동네임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강 노인의 아들이 둘 있지만 생활비를 보태 줄 자식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 자식들이 타지에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④ (라)에서 강 노인은 겨우내 굳어 있던 땅에서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골라내며 땅을 갈아엎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울 동안에는 땅이 얼어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지만 연탄재 부스러기를 골라내느라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⑤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의 고집 때문에 개발이 안 된 곳도 있지만, (다)에서 험값이었던 원미동 땅들이 박 씨 부부의 활약상으로 요 근래 들어 황금값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미동의 땅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강 노인은 땅에서 나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밭농사에 정성을 쏟고 있다. (라)에서도 몇 억짜리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강 노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용문이가 연탄재를 거둔 일을 보고는 ‘요 모양이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은 용문이가 일한 것이 마음에 차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라)를 보면 강 노인은 지난 몇 년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를 보면 강 노인은 원미동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 칭하며 땅의 소중함을 모른 채 밭에 연탄재를 내다버린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⑤ (라)에서 강 노인은 재밖에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에서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어떤 것이라도 쓸어 담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12 (나)는 강 노인의 외양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큰 키에 거대한 몸집, 검붉은 얼굴과 유난히 크고 빨간 주먹코, 씩씩한 걸음걸이, 팔뚝의 꿈틀거리는 힘줄, 우렁찬 목소리’ 등을 통해, 강 노인이 꾸밈없고 씩씩하며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액자 구조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성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일 구조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으므로 서술자의 내면을 서술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④ 서술자는 (나)에서 서술되고 있는 강 노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지 않으며 풍자적 서술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나)에서는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회 현실의 문제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13 (가)에서는 강 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땅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중요성을, (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중요성을 주제 의식으로 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욕심’에 대한 경계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나)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②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배려'는 적절치 않으며, (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없다.

③ (가)는 땅을 팔라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와 상황이 드러나지만 '극복의 지'를 주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땅의 소중함을 아는 강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추구'를 이끌어 내기는 무리가 있으며, (나)에서는 자연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14 <보기>는 (가) 작품의 일부로, 강 노인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드러나 있다. 강 노인의 땅 문제로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 간에 갈등은 발생하지만, 동네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집주인들은 각자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 합심하여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 노인의 땅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해되는 중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를 보면 집주인들은 도로변의 땅에 푸성귀나 심는 것보다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 신수가 흰해지는데 더 좋다고 생각한다.
② (가)를 보면 강 노인의 아내는 남은 땅을 팔아 자식들을 돕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③, ⑤ 강 노인은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자신의 땅에 발농사를 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큰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5 강 노인은 과거 원미산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린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땅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이 땅을 팔러 가면서도 밭의 채소에 물을 주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6 (나)는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된 아시안 남녀 곧 외국인 노동자를 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 데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라는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라는 문제의식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외국인 노동자'와 '차별적 인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17 (나)는 다문화 시대에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다룬 작품이다. 작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그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관점을 '낮찍 부끄러웠다'와 같은 반성적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가 '나'로 표현되어 있어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작품을 생산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자가 '나'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꼭 작가 자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재창작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④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 세대를 아울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⑤ 생활 주변의 경험을 특수하고 함축적 시어가 아닌 평이한 시어와 진솔로 표현하고 있다.

18 강 노인은 원미산 장대봉을 바라보며 젊은 날에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렸던 것을 떠올린다. 즉 원미산은 그의 땀방울이 묻어 있는 산으로, '마지막 땅'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미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마지막 땅'은 곧 팔려서 사라질 공간으로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다. 작가는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강 노인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①과 '마지막 땅'의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밝혀 작가가 얻고자 한 효과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①을 제시하여 작가가 얻고자 한 효과를 올바르게 썼으나 '마지막 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①과 '마지막 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밝혀 썼으나 작가가 얻고자 한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19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함께 어우러져 물결을 타고 있는 모습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들과 동등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와 대비되면서 화자가 자신의 인식에 대하여 반성하게 되므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에게 자기반성, 성찰의 정서를 유발할 뿐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를 부끄럽게 하므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③ 화자에게 자기반성의 계기가 될 뿐,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색채 이미지는 여러 색깔의 새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므로 화자의 내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20 강 노인은 당시의 개발 열풍으로 서울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 때문에 원미동까지 땅값이 들쭉거리고, 이 상황에 휘말려 자식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식들이 잘못된 원인을 사회적 현상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아내를 원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강 노인은 이전에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이 처분했고, 또 땅을 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허탈한 심정이 들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③ 부동산으로 가던 발길을 다시 밭으로 돌린 것으로 보아 아직 밭에 미련과 애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원미산 장대봉을 바라보며 오래 산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회한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강 노인은 땅을 팔러 부동산에 가다가 밭에서 자라나는 고추 모종, 아욱 등을 보며 목을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밭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한다. 팔기로 결심한 땅이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을 통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진실한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가)에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소개하고, (나)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어지는 (다)~(마)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의의 또한 밝히고 있지 않다.

③ (다)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반론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저출산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저출산 현상의 양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다)에서 저출산에 대한 다른 시각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와 비교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22 이 글의 글쓴이는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결혼 적령기층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오답 풀이 ① 혼인 건수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 최근 국내 출산과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였다.

② 현재 국내 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오늘날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을 들고 있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하여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라 하였다.

⑤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라고 하였다.

23 (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 정책의 당위성도 확보될 것이다.’를 통해 적정 인구의 정확한 계산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 확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의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서술하였다.	하

24 글쓴이는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의 행복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은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는 새로운 육아 문화로 각 지역이나 기업 단위로 공동 육아 시설을 확충하여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새로운 육아 문화의 하나로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여성이 지고 있는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러한 육아 문화가 서둘러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⑤ 남녀 모두 육아 휴직을 편히 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육아 문화의 한 가지이다.

25 독자는 읽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읽을 사회적 문제나 성찰할 만한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이나 책을 선정하여 읽고(ㄷ)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ㄷ). 그리고 나서 자신이 속한 구체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한다(ㄹ). 그 뒤에 다른 사람들과 책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며(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한다(ㄱ).

26 사회적 이슈를 다룬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글쓴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일 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② 책이나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③ 독자는 책이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비교해 보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④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본문 319~321쪽

01 ⑤ 02 ④ 03 ② 04 교차 조사, 질의응답 05 ④
06 ③ 07 ① 08 (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자료를 통해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관계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으며,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09 ⑤ 10 ② 11 ① 12 ㉠은 고당류 음료를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하는 것을, ㉡은 응급 환자를 목격한 상황을 의미한다.

01 토론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들어 가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밝혀 나가는 말하기이다. 합의나 협력을 통해 쟁점을 풀어 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는 토론이 아닌 토의이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다.
② 토론은 반드시 토론자가 논제에 대해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의견을 달리해야 한다.
③ 토론자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제에 따라 쟁점을 선정하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④ 토론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야 하며, 사회자의 진행하에 이루어진다.

02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들어야 한다. 반대 2는 유럽 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쟁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반대 측의 입론 과정이기 때문에 쟁점에 반대하는 주장이 들어가야 하므로, ㉡에는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이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반대 2는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이 더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에 들어갈 근거로 적절하다.

03 찬성 2는 ‘우리나라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를 통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정책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기대 효과를 가정하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세금의 징수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꼭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반대 2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찬성 2가 주장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설탕 세를 통해 얻은 세금을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반대 2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찬성 2와 반대 2가 모두 설탕 세와 관련된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할 때 상대측의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고 반론으로 넘어가는 교차 조사식 토론이다. 교차 조사는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05 이 말하기는 토론으로, 상대측 토론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지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상대측에 대한 예의를 갖춘 언행은 토론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이다.
② 토론자는 상대측과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분명하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주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③ 청중은 주장의 타당성과 정당성, 근거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며 능동적으로 들어야 한다.
⑤ 배심원은 토론자의 주장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06 (가)에는 심폐 소생술을 실행하여 어머니를 살린 고등학생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질병 관리 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 수치 자료를 통해 일반인들이 실시하는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와 통계 수치는 이 글을 쓸 때 수집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심폐 소생술로 가족을 구한 사례,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 심폐 소생술 교육의 방법 및 효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지역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지역 신문에 실린 글로서 지역 사람들에게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는 글이므로 아직 심폐 소생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예상 독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은 부족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예상 독자로 보기에 적절하다.

07 (가)가 질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내용만으로 독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가)에 쓰인 질문과 구체적인 사례는 화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글쓰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 소생술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와 같이 심폐 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 응급 환자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는 가정을 통해 심폐 소생술을 배워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8 <보기>는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의 증가에 따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는 (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자료가 (나)에 들어가면 일반인 심폐 소생술 실시율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관계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보기>가 들어갈 부분 및 시각 자료상의 효과와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상 효과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보기>가 들어갈 부분을 제시하였지만, 내용상 효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시각 자료 활용의 효과만을 서술하였다.	중
<보기>가 들어갈 부분만 제시하였고, <보기>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9 ㉠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 학교 선생의 말'로 고쳐 쓴다고 해도 친구의 말과 같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져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④ ㉠은 우리나라의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 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사용하여 ㉠과 ㉡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②, ③ ㉠은 비율이 '매우 낮은'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부분의 다른 나라의 비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어야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 (가)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고당류 음료를 많이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효과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지, 주장에 대한 기대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나)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 소생술을 실행할 수 있을 것

이다.'라는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심폐 소생술을 배우면 위급 상황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응급 환자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펴고 있다.

④ (가)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주장과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나)는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들어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나)는 심폐 소생술을 모르면 응급 환자가 있어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 (가)에서 찬성 1은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고 청소년의 고당류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 회사들이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서이므로 ㉠은 (가)를 반박할 수 있는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③ 비만의 원인을 당 때문으로 한정할 수 없고 염분 등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④ 비만의 원인을 당 때문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⑤ 당의 소비량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이 증가했다는 것일 뿐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12 ㉠은 식품 회사에서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고자 고당류 음료를 '무설탕'이라 홍보하면서 그 안에 '액상 과당'을 사용하는 것을, ㉡은 문맥을 고려할 때 '응급 환자를 목격한 상황'을 의미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과 ㉡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과 ㉡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과 ㉡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

본문 324~328쪽

- 01 ③ 02 ③ 03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움.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ㄹ, ㅇ’ 음을 통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줌.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② 09 ①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③
18 ④

01 이 시가는 고려 시대 민중들이 내외환의 혼란한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렀던 고려 가요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사대부가 주 창작층인 한시나 시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데서 창작 당시 화자가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이 시가는 고려 시대에 창작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악서에 기록되었다.

④ 전체 8연으로 각 연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분연체 형식으로 구성된 노래이다.

⑤ 고달픈 현실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내용으로 보아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하며 불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02 이 시가의 화자가 속세를 떠난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할 때 화자가 ‘물 아래’로 ‘가던 새’를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화자가 속세로 되돌아갈 방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시가의 화자가 유랑민이라고 할 때 ‘가던 새’는 ‘갈던 새(발이랑)’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보아 농토를 잃은 유랑민의 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임 무든 장굴’은 이기 묻은 쟁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땅을 일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유랑민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시가의 화자가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할 때 8연은 현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지내는 지식인의 체념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이 시가의 화자가 이별한 여인이라고 할 때 ‘가던 새’는 화자를 버리고 떠난 임으로 볼 수 있으며, 8연의 내용도 술이 임을 붙잡는다고 해석하여 술에게 임을 빼앗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3 이 시가의 후렴구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로 각 연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후렴구는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각 연을 나누는 역할을 하며,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특정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ㄹ, ㅇ’ 음이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후렴구의 기능을 세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후렴구의 기능을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후렴구의 기능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04 화자가 마지막 8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체념하고 삶의 고뇌와 시름을 잊고자 하는 행동이므로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멀위랑 두래’는 청산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대응하는 것은 6연의 ‘누 무자기 구조개’이다.

② ‘새’는 화자와 함께 우는 동병상련의 존재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③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화자에게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

④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돌에 맞은 화자는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에 좌절하고 체념하여 울고 있는 것이다.

05 이 시가에서 ‘강수’는 술을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화자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취하게(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술을 즐기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술’은 관찰사로서의 화자의 포부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화자는 현실적 삶에 대한 고뇌와 비애를 느끼지 않고 있다.

② 이 시가의 화자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따라서 술을 동경하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게 해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보기〉의 화자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의 화자에게 ‘술’은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시가의 화자가 ‘강수’를 통해 속세에 마음을 붙이고자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시가의 화자는 평민이나 좌절한 지식인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백성에게 대한 사랑을 언급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화자는 좋은 것(술)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화자의 애민 정신을 드러내는 소재는 〈보기〉의 ‘술’이다. 또한 〈보기〉에는 갈등의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정철, 「관동별곡」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애민의 정

감상: 이 가시는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관동 팔경과 해금강 등을 둘러보고 여행의 경로와 풍경을 소개하며 자신의 감흥을 노래한 작품이다.

06 (가)에서는 ‘세한 고절’은 ‘너’라고 하며 대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파리, 두터비,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당대 세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의인화를 통해 대상을 화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가)뿐이다. (가)는 대나무를 의인화함으로써 대나무를 높은 절개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여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눈’의 흰색과 ‘푸름소냐’의 푸른색에서 색채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서리서리’, ‘구벽구벽’에서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종장에서 화자를 두꺼비로 전환하여 두꺼비의 독백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파리에게는 기세등등하다가 백송골에게는 놀라 자빠지는 두꺼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해학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7 ‘두터비’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 것은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한 행동이므로 민중의 강한 저항에 의해 무너지는 권력자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자신보다 높은 권력자 앞에서 무너지는 또 다른 권력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파리를 괴롭히는 지배 계층으로 탐관오리에 해당한다.

② ‘파리’는 ‘두터비’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점에서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③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는 데서 ‘백송골’이 ‘두터비’보다 힘센 권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백송골’은 중앙 관리나 외세를 의미한다.

⑤ ‘두터비’가 놀라 자빠진 것이면서, 자기가 아니었다면 명이 들 뻔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악점을 감추기 위해 자기를 합리화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08 ㉠은 굵어질 절개면 대나무가 눈 속에서도 푸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나무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절개에 대해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③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염려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확신이나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있지 않으며, 대나무를 통해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⑤ 화자는 한겨울 추위도 이겨 내는 높은 절개를 지닌 대나무에 자신을 빗대어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09 ㉠은 추상적 관념인 ‘밤’을 마치 베어 내고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에서도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꿀꿀 / 배암의 포아리를 들고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고와서 서러워라.’는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이므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③ ‘같은’, ‘가듯’을 통해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을밤같이’에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울음을 ‘차게’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청각의 촉각화가 나타나 있다.

⑤ 흰 나비를 ‘그’라고 표현한 것에서 의인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흰 나비’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신동집, 「오렌지」

주제: 존재의 본질 파악에 대한 소망

감상: 오렌지를 통해 존재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닿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② 조지훈, 「승무」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감상: 불교의 춤인 ‘승무’를 통해 세속적인 삶의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③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제: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감상: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과 새로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대비시키며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④ 백석, 「여승」

주제: 여인의 비극적인 삶

감상: 일제 강점기에 가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어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감상: 새로운 세계를 동경했던 화자가 냉혹한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10 ㉠은 정든 임이 오시면 베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던 시간을 이어 붙여서 임과 함께하는 짧은 밤을 길게 늘리고 싶다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② 임이 화자에게 어떤 생각이나 오해를 가졌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은 임을 만난 이후의 일에 관한 내용이다.

④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화자가 직접 임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임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 싶은 마음은 드러나 있지만, 임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이 글에서는 계월이 보국의 애첩을 죽인 일로 인해 부부 사이인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남관의 수장이 올린 장계의 내용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보국이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팔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③ 이 글은 여성인 계월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인물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12 이 글에는 보국보다 계월의 능력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게 그려져 있으나 이는 당시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높아진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경우에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성의 능력으로 국난을 극복한 사례가 많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국에게 첩 영춘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가 첩을 두는 것을 허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국이 여자인 계월의 부하가 되어 계월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다른 여성 영웅 소설들과 달리 이 글에서 계월은 여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벼슬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당시 여성들의 남녀평등 및 사회적 자아실현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④ 천자가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려서 전장에 보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여공은 예전에 계월을 구출한 조력자이기도 하면서 보국의 아버지이다. 보국이 계월에 대해 불만을 갖자 보국보다 뛰어난 계월

의 능력과 영춘의 잘못 등을 들어 아들을 훈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여공은 보국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보국이 행한 업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보국에게 계월에게 대한 부부의 도리를 다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④ 갈등하는 보국과 계월 두 입장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월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국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⑤ 보국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계월과 갈등 상황에 놓이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14 ㉠은 오왕과 초왕의 침입을 알리는 글로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나타낸다. 천자가 이를 보고 계월을 부르고 있으므로 ㉠은 계월이 규중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과 보국이 오해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장계를 받은 천자에 의해 출정한 계월이 보국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으로 인해 보국이 계월을 무시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나 오해로 인한 것은 아니다.

③ 장계를 통해서도 장계를 받고 전장에 나가서도 계월이 보국에 가졌던 못마땅했던 감정이 풀리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제시된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다.

④ 계월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출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을 후회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없다.

⑤ 장계로 인해 여공이 계월에게 어떤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게 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없다.

15 ㉠에서 천자는 계월의 처지를 생각해서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즉 천자는 계월이 과거와 달리 혼인을 해 가정에 있는 처지를 두고 계월을 불러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과거와 현재의 계월의 처지가 달라졌으므로 계월을 부르기가 망설여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여공이 계월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여공은 계월의 사회 활동이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② 혼인 후 계월의 힘이 약해졌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천자는 계월이 규중에 있는 여자라서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③ 천자는 계월의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인정하여 전장에 보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보국을 부를 생각으로 계월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천자가 계월과 보국의 사이가 나쁜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해 계월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아니다.

16 전장에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전쟁의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계월이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는 것이나, (다)에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전장의 상황 등에서 계월이 겪는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다. 한편 (다)와 (라)에서 계월이 적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해 낸 부분에서 위기의 극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주인공인 계월과 적장인 맹길의 대결과 맹길이 패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③ 전장에 나가 적들을 물리치고 천자와 나라를 구하는 계월의 여성 영웅으로서의 뛰어난 활약상이 나타나 있다.

⑤ (라)에서 천자가 계월에게 만 리 변방에서 어찌 알고 자기를 구했냐는 질문에 대해 계월이 천자를 구하러 오기까지의 경위를 압축적·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7 계월이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장면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고전 소설의 전기적(傳奇的)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계월이 여공을 우연히 만나는 장면은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② (나)에서 계월이 천기를 살피다가 천자의 위태로움을 직감하고 천자를 구하기 위해 홀로 떠나는 장면은 계월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전장의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⑤ 계월의 비범한 능력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설정은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를 탈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 대원수가 되어 남편인 보국을 부하로 부리는 것이나 보국의 속 좁음을 비난하는 장면 등에서 계월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적고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말에서 사 씨가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여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씨는 여성으로서의 삶 안에서 유교적 가치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는 인물이다.

② 계월이 자신이 보국보다 능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국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볼 때 계월은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 씨의 경우 사 씨가 성별에 따른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사 씨는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등 유교적 이념인 충군 사상은 따르고 있으므로, 모든 유교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사 씨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유교적 가치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⑤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남편 보국에게 무시당하면서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분해하는 것으로 볼 때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본문 330~333쪽

01 ④ 02 ② 03 ② 04 ㉠ ‘무·춤:내’는 현대어로 ‘마침내’인데, ㉠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단어인 데 반해, 현대어 ‘마침내’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단어이다. 05 ⑤ 06 ⑤ 07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가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08 ⑤ 09 ④ 10 ④ 11 ② 12 ㉡의 뜻은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 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 다툼까지 할 수 있다.’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②

01 ‘·프·들’, ‘·뿌·메’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ㅇ(옛이음), ㅎ(여린하음), ㅁ(순경음 비음), ·(아래아)’ 등과 같은 글자가 존재하였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 어 적기를 하였다.

02 (가)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한글의 제자 원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창제의 목적이 나타나 있다. ③ (가)는 15세기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④ (가)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세종이 직접 지은 글을 세종이 죽은 후에 한글로 풀어 쓴 ‘어지’이다. 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서 자주 정신을,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에서 애민 정신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로 만든다는 내용에서 실용 정신을 엿볼 수 있다.

03 ‘서르’는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서로’로 변화했는데 의미는 그대로이다. 따라서 의미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변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말씀’은 중세 국어에서 ‘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말의 높임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③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④ ‘·놈’은 중세 국어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⑤ ‘하·니·라’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하다’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04 ㉠ ‘무·춤:내’는 현대어로 ‘마침내’로, 양성 모음 ‘·’, ‘ㅕ’만을 사용하고 있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단어인 데 반해, 현대어 ‘마침내’는 양성 모음 ‘ㅏ’, ‘ㅑ’와 음성 모음 ‘ㅣ’가 함께 사용되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단어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을 현대어로 바꾸고, 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상
㉠을 현대어로 바꾸었으나, 둘의 차이점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을 현대어로 바꾸었으나, 둘의 차이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便便安한·키’는 현대어로 ‘편안하게’로 해석할 수 있다.

06 (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외국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다)에 따르면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② (가)에 따르면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③ (라)에 따르면 국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국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A]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로, 이를 순화어나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가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라고 고쳐 쓸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7개의 잘못된 표현을 모두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상
7개의 잘못된 표현 중 4개 이상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중
7개의 잘못된 표현 중 4개 미만, 2개 이상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하

08 [B]는 가상 공간에서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초성만을 쓰는 등 지나치게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우리말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특히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대와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

09 (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세종 학당의 학생 수는 나타나 있으나, 세종 학당의 학문 수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우리말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국가 정책이 성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첫 번째 내용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즉 ‘경청하기’를, 두 번째 내용은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 듣기’라는 담화 관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말의 담화 관습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경청되 신중하게 판단하며 듣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다.

11 (가)의 화자는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나)의 속담들은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말조심하고,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며,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조심히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라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12 ㉠은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이는 ‘신중하게 말하기’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 반영된 것으로,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의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의 뜻을 밝혔으나,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훈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의 뜻을 밝혔으나,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훈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3 김 선생은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은 친구인 김 선생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하지 않고 채소 같은 안주만 내놓았다.

② 김 선생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와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④ 주인이 김 선생의 말에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을 통해 주인이 김 선생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의 요구에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김 선생이 사용한 돌려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4 김 선생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돌려 말하기의 방법과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15 ㉠에서 출연자는 자신을 칭찬하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대해 ‘과찬의 말씀’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즉 출연자의 말하기 방식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신을 칭찬하는 수진의 말에 대답하려는 정연에게는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② 수진의 말의 의도를 묻게 되면 돌려 말하더라도 수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진의 칭찬에 예의 없이 대답할 우려가 있다.

⑤ 겸손한 태도가 아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16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과거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할 필요가 있다. (가)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한 말하기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접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전통적 사회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접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 가령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하는 상황에서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을 뽑아 달라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무 경험도 적은 편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③ (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인턴 활동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⑤ 면접 상황에서는 자신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겸손하게 말하는 (가)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어 말하는 (나)가 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17 진목은 자신을 칭찬하고 생각해 주는 유슬 엄마에게 인상을 쓰는 등 버릇없는 태도를 취하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유슬 엄마는 ‘지난달보다 많이 늘었더라.’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진목의 어깨를 토닥이는’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진목을 칭찬하고 있다.

③ 유슬은 진목이 일부러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진목을 비난하고 있다.

④ 진목은 자신을 비난하는 유슬의 말에 기분이 상해 잘난 척한다고 유슬을 비난하고 있다.

⑤ 유슬은 ‘별것 아닌 거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진목을 낮추어 말하며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

m e m 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